

## 대기업 M&A하면서 외부 자문사보다 내부서 해결 ‘자문료 수입’ 된서리 맞은 IB

〈글로벌 투자은행〉

SK-롯데, 따로 선정 안해  
노무라 등 국내 철수설 솔솔

국내에 진출한 골드만삭스, 모건스탠리, JP모건 등 글로벌 투자은행(IB)에 준비감이 불고 있다.

국내 대기업들이 인수·합병(M&A)을 진행하는 데 있어 IB를 자문사로 선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주된 수입원인 M&A 자문료가 급감하면서 된서리를 맞고 있는 것이다.

16일 회계법인 등 관련업계에 따르면 대기업들은 법률자문과 회계자문은 국내에서 구하지만 유독 IB 자문사는 선정하지 않고 있다. 최근 진행된 M&A인 SK의 LG실트론 인수, 롯데그룹의 싱가포르 주류아로마티스 인수

참여, 2014년 삼성-롯데의 화학 계열사 빅딜 등이 이 같은 사례다.

국내 대기업들이 IB 자문사를 쓰지 않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다. 우선은 자체 역량 증가다. 삼성, SK, LG 등 국내 대기업들은 지배구조 재편, M&A 등 민감한 사안들을 외부가 아닌 내부에서 해결하려 하고 있다. 외부에 자문을 맡길 경우 정보가 썰 수 있다. 더욱이 이들의 지배구조 재편, M&A 등 민감한 사안일수록 외부에 자문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부에서 해결하려는 인하우스(In-house) 경향이 강하다.

국내 M&A에서 소송이 적은 것도 대기업들이 갈수록 IB들을 자문사로 선택하지 않는 배경이다. IB업계 관계자는 “미국과 유럽 등은 M&A가 진행되면 이에 대한 이해관계자들의 소송이

뒤따른다”며 “이 때문에 법적 구체성을 남기기 위해 IB 자문사를 선정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하지만 국내는 과거 외환은행 매각 때를 제외하고는 이슈가 집중되는 소송으로 변지는 경우가 거의 없어 IB의 필요성이 없어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사정이 어려워진 IB들은 국내에서 철수할 것이란 관측까지 나온다. 현재 산업은행 M&A를 거의 독점하는 크레디트스위스(CS)를 제외하면 대다수 IB의 실적이 부진하기 때문이다. 노무라금융투자, 임석정 대표가 이끄는 CVC캐피탈파트너스 등이 국내 M&A 업무를 접고 흥콩법인과 합철 것인 분석이 나오는 건 이런 이유에서다. 최재혁 기자 freshphase@

## 삼성의 경영시계, 하루 또 멈췄다

이재용 부회장 두번째 영장심사  
법원, 내일 새벽에 구속여부 결정  
고위 임원들 사실상 대기 상태

삼성과 박영수 특별검사가 다시 한번 법정에서 맞부딪쳤다. 양측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 여부를 결정지를 두 번째 영장실질심사에서, 물러설 곳 없는 배수진을 치고 치열한 논쟁에 돌입했다.

이 부회장은 16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실질심사 법정에 다시 모습을 드러냈다. 지난달 18일 첫 번째 구속 영장 청구로 법원에 나선 이후 약 한 달 만이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전 10시 30분 한정석 판사의 심리로 이 부회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시작했다. 구속 여부는 늦어도 17일 새벽에는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부회장은 영장실질심사에 앞서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 사무실에 오전 9시 20분쯤 도착해 특검팀과 함께 법정으로 들어섰다. 심사가 끝나면 결과가 나올 때까지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할 예정이다. 이 부회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3시간 이상 걸릴 것으로 보인다. 첫 번째 심사는 양측의 치열한 공방으로 3시간 40분이 소요됐다.

특검은 이 부회장에 대해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재산 국외 도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위증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만일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삼성은 1938년 설립 이후 처음 오너가 없는 경영 공백을 맞는다. 반대로 기각될 경우, 특검은 수사 기간 석 달 중 두 달을 삼성 수사에 집중했지만, 범죄 소명에 허점을 드러내 좌초될 위기에 직



뇌물공여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의 혐의로 두 번째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6일 오전 영장실질심사에 앞서 서울 대치동 특검 사무실에 출석한 뒤 특검팀 검사 등과 함께 서울중앙지방법으로 향하고 있다. 이동근 기자 foto@

면하게 된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법리적 분석만 놓고 볼 때 구속영장이 기각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그러나 또 다른 측에서는 “법원이 여론의 압박에 밀리면 정치적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내놓고 있다.

한편, 삼성 미래전략실은 법원 상황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등 긴박한 하루를 보내고 있다.

## 전안법·식통법 ‘탁상행정’...소상공인만 멍든다

중소 상공인들이 현장을 모르는 정부의 탁상행정 규제에 신음하고 있다. 최순실 사태로 국정환란이 이어지자 관료사회도 복지부동으로 업자와의 만남을 꺼리면서 현장을 모르는 탁상정책을 쏟아내고 있기 때문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이달 중 입법에 예고된 ‘식품통신판매법(이하 식통법)’이나 산업통상자원부의 ‘전자제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이하 전안법)’이 소상공인이나 온라인 소기업에게 과도한 책임을 떠넘기는 전형적 탁상행정의 예로 꼽히고 있다.

안전·위생부문 과도한 책임 부과  
현장 외면 정책·이중규제로 신음



식품을 판매하는 사업자들을 식통법으로 분류해 직접 관리하는 것이 요지다.

이에 대해 업계는 상품 비용을 올리고, 검사 기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어 법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고 반발하고 있다. 개정안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플랫폼 사업자가 직접 상품 판매에 관여해 품질 검수 등 관련 살피 비용이 증가해 입점 판매자의 판매 수수

료를 올릴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일각에서는 현행 식품위생법이 위해 식품 판매(제4-6조)와 허위·과대광고(제13조)를 금지하고 있는 것을 고려하면 이중 규제라는 지적도 나온다.

박중현 동대문상공인회장은 “법을 시행하면 소상공인들의 사업은 정리하는 부분이 많아질 것”이라며 “전안법도 원단의 안전성이란 이유로 원단의 종류와 염료 등 모든 검사를 거쳐야 하는데, 5일의 검사 기간을 바이어들이 기다려주지 않는다”고 말했다.

앞서 산업부도 시행 나흘을 앞둔 전안법을 놓고 소상공인들의 반발이 커지자 1년 연기한 바 있다. 전안법은 지난해 1월 공포한 법으로, 현장의 소상공인들이 법 시행으로 문을 닫을 수 있을 정도로 부작용이 커 비난이 확산하자, 산업부는 급하게 시행을 늦춰 탁상행정이라는 빈축을 샀다.

김하늬 기자 honey@

## 현대상선 조기 정상화 집중

정부, 해운업에 6.5조 + α 지원...수년내 선박량 100만TEU 회복

정부가 해운업에 6조5000억 원+α를 지원해 수년 내에 국내 선박량(배에 싣는 화물의 총량)을 구조조정 이전으로 회복한다는 계획을 내놨다.

하지만 국내 1위 선사인 한진해운 파산이 유력한 상황에서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라는 지적이 나온다.

지원하고, 1조 원 규모로 조성된 글로벌 해양펀드로 터미널 등 자산 인수를 돕는다.

또 2조5000억 원 규모의 선박 신조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최소 5척에서 최대 20척의 신조 계약을 지원한다.

정부는 해운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매각했거나 지분을 양도한 터미널 등 주요 자산을 확보하기 위해 항만기업들이 참여하는 ‘한국글로벌터미널운영사(KGTO)’도 만든다.

해수부는 이런 방안들을 통해 구조조정에서 살아남은 현대상선의 조기 정상화를 지원하고 수년 내에 국내 선박량 100만TEU(1TEU는 20피트 길이 컨테이너 1개)를 넘긴다는 게 목표다. 작년 12월 기준 선박량은 51만TEU

에 불과했다. 이는 해운업 구조조정이 시작되기 전 106만TEU의 절반 수준이다. 100만TEU는 구조조정 이전 수준으로 돌아간다는 의미다.

결국 해운업에 6조 원이 넘는 지원을 하지만 구조조정 이전으로 돌아가는 셈이다. 전문가들은 해수부가 해운업 위기를 진작에 알았지만 민간회사는 이유로 적절한 대책을 세우지 못했고, 구조조정 과정에서는 금융 논리에 밀려 제대로 힘을 쓰지 못했다고 지적한다.

실제로 해수부는 구조조정이 있기 불과 3년 전인 2013년에 해운업체의 요구에 따라 자본 확충을 지원했지만 그 뿐이었다.

이에 대해 해수부 고위 관계자는 “해운업의 위기를 정부도 알았고 한진해운과 현대상선에 우려를 표명했지만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다”며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곽도훈 기자 sogood@

## 해외투자 492억 달러 역대 최고

국내 경기침체로 해외부동산 등  
美 67% 늘어난 180억 달러 몰려

지난해 해외직접투자 신고액이 정부가 통계 수치를 작성한 1980년 이후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국내경기 침체가 심화되면서 경기 흐름이 양호한 미국 등에 대대적 투자가 이뤄진 영향이 컸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기획재정부가 15일 발표한 ‘2016년 연간 및 4분기 해외직접투자 동향’을 살펴보면 지난해 연간 해외직접투자 신고액은 492억4000만 달러로 전년보다 18.7% 증가했다. 이는 종전 최고치인 2011년 465억3000만 달러를 크게 웃도는 규모이다. 주로 경기 회복세가 뚜렷한 미국 투자 신고액이 전년 대비 66.9% 급증한 180억 달러가 몰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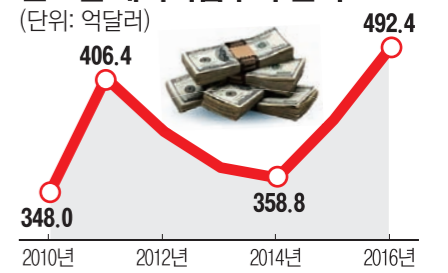
지난해 11월 삼성전자가 미국 전자 전문기업 하만(Harman)을 80억 달러에 인수한 영향이 컸지만 도·소매업

(66.7%)과 부동산·임대업(27.1%) 등의 직접투자액도 미국 직접투자 규모를 높인 배경이다. 반면 상대적으로 경기가 안정적이지 못한 중국에 대한 직접 신고액은 전년 대비 8.8% 감소한 40억 달러로 떨어졌다.

정부 관계자는 “대기업을 중심으로 미국에 투자하는 규모가 크게 늘어나면서 지난해 연간 해외직접투자 규모가 통계치를 작성한 1980년 이후 가장 많았다”고 설명했다. 실제 미국의 경우 지난 1월 20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신정부 출범 이후 경기회복 기대감이 더 커지고 있다. 미국 증시 또한 트럼프 행정부의 경제성장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되면서 연일 사상 최고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경제전문기관들도 미국의 경제성장률이 지난해 1.9%에서 올해 2%대에 오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반면 국내의 경기 흐름은 안갯속에 갇혀 있다. 정부 목표로 잡은 우리나라

연도별 해외직접투자 실적 (단위: 억달러)



의 올해 경제성장률은 2.6%다. 최순실 게이트 등의 국내 정치적 이슈나 미국 금리인상 등의 대외 리스크를 고려하지 않은 목표치다. 지난해의 경우에도 3% 경제성장률을 잡았지만 결국 2.7%에 그친 것을 고려하면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 역시 달성이 낙관적이지는 않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무엇보다 국내경기를 살리기 위해서는 투자가 필수적이지만 현재 상황이 녹록지 않다. 투자가 이뤄져야 일자리와 소득이 증가해 소비가 살아나지만 첫 단추부터 막힌 형국이다. 국내 10대 그룹 중 올해 투자와 채용 계획을 밝힌 곳은 SK그룹을 제외하면 단 한 곳도 없는 상황이다. 양창균 기자 yangck@

### 여성 친화기업을 찾아 1박2일 패밀리투어 한독 ▶ 20

햇배가 부르고 속이 더부룩할 때 먹는 국민 소화제 ‘웨스탈’로 유명한 한독, 주 5일 근무제가 실제 법제화되기 훨씬 전인 1998년에 도입한 한독은 탄력근무제도 2000년에 시작했다. 또한 엄마방 운영, 패밀리투어, 징검다리 휴일제 등으로 가족친화

경영을 펼치고 있으며, 특이한 점은 여직원들이 많은 연구개발 부서가 위치한 한독 본사 16층에는 남성 화장실이 없다는 것이다.

▶ 18 법과 사회 ▶ 18 내달 문어는 회생법원



김희철 대표 ▶ 9 구분무 회장 ▶ 14

경제신문 이투데이 모바일로 만나세요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찍으면 모바일로 이투데이 뉴스와 지면을 보실 수 있습니다. 안드로이드 앱

데이터 뉴스 Data News



한국 경제자유지수 4계단 오른 23위... 북한은 꼴찌

한국이 국가별 경제활동 자유도를 나타내는 경제자유지수 순위에서 20위권에 올라섰다. 미국 워싱턴 소재 헤리티지재단이 15일(현지시간) 발표한 '2017년 경제자유지수(Index of Economic Freedom)' 순위에서 한국은 작년보다 2.6점 높은 74.3점으로 23위를 차지했다.

한국은 2013년 34위를 기록한 이래 4년째 순위가 올랐다. 올해 순위는 지난해보다 4계단 높은 것이다.

반면 북한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조사 대상 180개국 가운데 꼴찌를 차지했다. 점수는 4.9점에 불과해 179위인 베네수엘라의 27.0점과도 많은 격차를 보였다.

홍콩이 1위를 차지했고 싱가포르와 뉴질랜드 스위스 호주가 나란히 5위에 들었다. 이들 상위 5개국 순위는 지난해와 비교해 변동이 없다. 에스토니아가 6위, 캐나다가 7위를 차지했고 아랍에미리트(UAE)와 아일랜드, 칠레가 각각 8~10위에 올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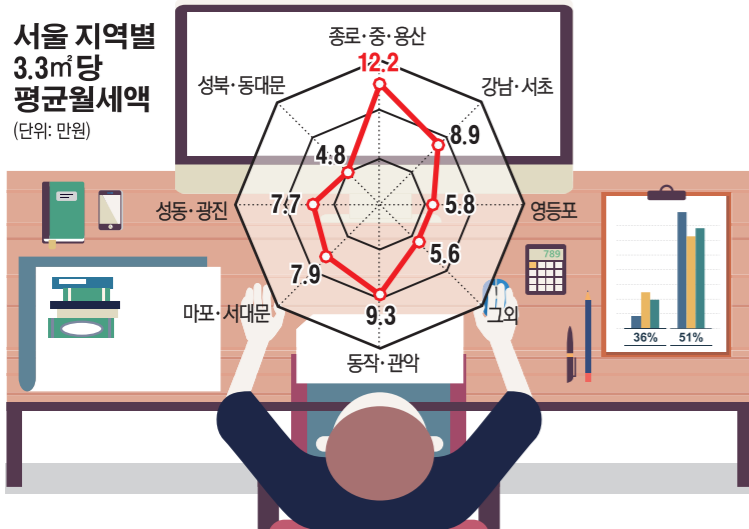
배준호 기자 baehj94@

월세 한 평 9.3만원... 몸 누일 곳도 빠듯한 노량진 공시족

공무원시험 학원이 몰린 노량진이 서울시내에서 손꼽힐 정도로 월세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대학가 임대료 역시 그 외 지역보다 월등히 높아 주머니 사정이 좋지 않은 '공시족'이나 청년일수록 비싼 월세 부담을 안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6일 서울시가 지난해 8월 시작한 월세계약조사 자료 4540건을 분석한 결과 동작·관악구 지역의 3.3㎡당 평균 월세액이 9만3000원으로 종로·중·용산구 지역 3.3㎡당 12만2000원에 이어 두 번째로 비쌌다. 강남·서초 지역은 3.3㎡당 8만9000원, 마포·서대문 지역은 7만9000원, 성동·광진 지역은 7만7000원, 영등포 지역은 5만8000원으로 각각 조사됐다. 서울시내 전체의 3.3㎡당 평균 월세는 7만5000원이었다.

청년층 월세 계약만 주려 따져봤더니 3.3㎡당 월세가 가장 비싼 자치구는 노량진이 속한 동작구로, 13만 원에 달했다. 이어 용산구 9만9000원, 마포구 9만2000원, 관악구 9만 원, 성동구 8만9000원 등의 순이었다.

이선애 기자 isa@



# “되돌아온 신뢰... 삼성·LG와 화주계약”

## 현대상선 ‘청신호’

유창근 현대상선 사장이 국내외 화주들과의 계약 협상이 현재 긍정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자신감을 보였다. 재무상태가 빠르게 개선되고 있고 정부의 지원도 이어지는 것이 큰 힘이 됐다는 설명이다.

15일 유 사장은 서울 종로구 연동동 본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올해는 국내외 대형 화주들로부터 선적 입찰에 참여해 달라는 요청을 많이 받은 상태”라며 “개선된 현대상선의 재무상태와 정부의 지원 정책이 화주들에게 전달돼 긍정적 영향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현대상선은 최대 규모인 미주 지역 화주들과 2~4월 협상을 벌여 5월 1일부터 1년 단위의 계약을 맺는다. 국내 대형 화주들과의 계약은 이미 1~2월에 이뤄졌다. 유 사장은 “국내에서는 이미 삼성, LG, 현대글로벌과 계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유 사장은 최근 월마트의 ‘한국 해운사 거래 중단’ 루머에 대해서 “지난해 법정관리 직후 월마트가 한진해운 담당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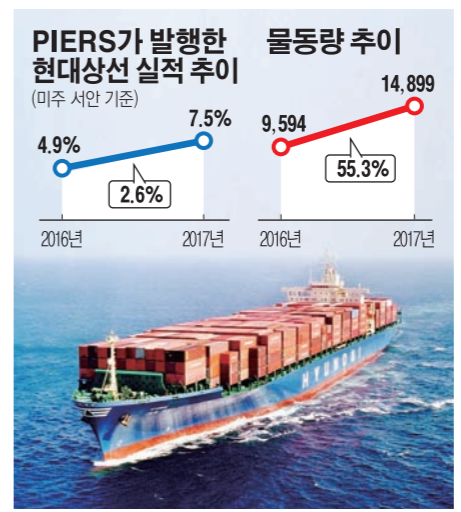
유창근 사장 “재무상태 개선... 정부지원 힘입어 화주 리브콜 월마트 거래중단 사실 아냐”

내달부터 ‘HMM+K2’ 시너지 1월 미주서안 물량 55.3% 늘어 4월엔 2M과 공조로 점유율↑

게 그런 내용의 이메일을 보낸 것은 사실”이라며 “다만 당시는 화물이 제대로 인도되지 못하는 문제로 감정이 격앙됐기 때문으로, 올해 실제 사업에 영향이 있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실제 월마트도 성명을 통해 “월마트가 한국 해운사와 더 이상 거래를 안 하기로 했다는 소문과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현대상선은 2015년 이후 끊겼던 월마트와의 계약 협상을 현재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유 사장은 또 선박은행 격인 한국선박



은행의 7200억 원 규모의 자금 확충에 대해 “터미널 인수와 지분 참여, 운영자금 등으로 활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유 사장은 “3월부터는 HMM+K2 컨소시엄을 통해 시너지를 창출해 경쟁력을 향상할 것”이라며 “4월부터는 세계 최대 해운동맹인 2M과의 협력을 통해 더욱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해운통계 조사기관인 피어스(PIERS)에 따르면 현대상선의 미주 노선 점유율은 점차 확대되고 있다. 현대상

선의 미주 서안 물량은 지난달 말 기준 1만4899TEU(1TEU는 20피트 길이 컨테이너 1개)로 작년 같은 기간의 9594TEU보다 55.3% 증가했다. 시장 점유율은 7.5%로 전년 동기 대비 2.6%포인트 상승했으며, 순위는 6위를 기록했다. 그러나 파산을 앞둔 한진해운의 이탈로, 국적선사의 미주 서안 점유율은 1년 새 12.5%에서 5%포인트 하락했다. 현대상선이 일부 한진해운의 점유율을 흡수했으니, 에버그린, 머스크, MSC 등도 조금씩 점유율을 늘린 것으로 분석됐다.

한편, 현대상선은 “지난해 한진해운 이후 시장 점유율과 처리 물량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며 “최근 신용평가에서 ‘D’등급(디폴트)에서 ‘BB’등급(안정적)으로 상향조정돼 고객의 신뢰를 얻은 만큼 많은 화주들이 현대상선에 다시 강한 신뢰를 보여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최근 한국신용평가는 출자전환 및 조건변경으로 완화된 재무 부담과 정책적 지원 수혜 및 최대주주의 지원 가능성, 국내 유일의 글로벌 컨테이너 선사로서의 중요성 등을 고려해 현대상선의 신용등급을 ‘BB’등급으로 상향한 바 있다.

김미정 기자 mj@

## 풀린 현찰 100조, 수표가 사라졌다

5만원권 화폐 수요 늘고 신용카드 사용 확산 자기앞수표 결제액은 일평균 610억 역대 최저

자기앞수표가 사라지고 있다. 고객권익 5만 원권이 등장하며 10만 원권 수표의 입지가 갈수록 좁아지고 있는 데다, 저금리 장기화에 따른 화폐 수요까지 오롯이 5만 원권의 몫이 됐다.

16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10만 원권 자기앞수표로 각종 대금을 결제한 금액은 하루 평균 610억 원으로 집계돼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직전해인 2015년 일평균 이용 금액 730억 원보다 120억 원이 줄어든 것이다.

10만 원권 수표의 일평균 결제금액은 2007년 4060억 원으로 4000억 원 선을 넘기도 했지만, 이후 계속해서 감소세를 보였다.

2010년(2480억 원)에는 3000억 원 아래로 떨어졌고, 2011년(1990억 원)과 2014년(940억 원)에 각각 2000억 원, 1000억 원 선이 무너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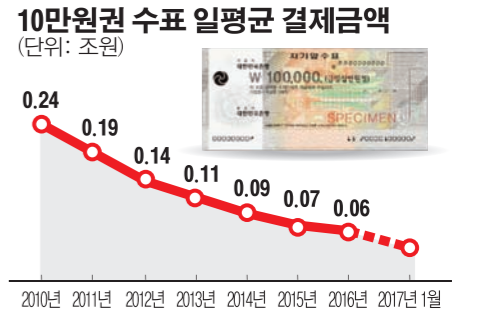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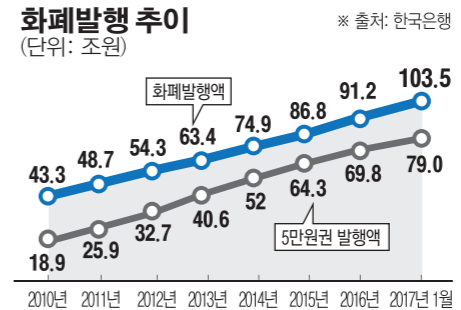
사용 장수 기준으로도 작년 상반기 61만 3000건에 불과해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수표 사용이 정점을 찍었던 2007년과 비교

할 때 10년 사이 6분의 1 수준으로 쪼그라든 셈이다.

이런 현상은 신용카드 사용이 확산하고, 모바일카드 등 간편결제수단이 자리 잡으면서 소비자들 사이에서 상대적으로 사용이 불편한 수표를 기피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2009년부터 유통되기 시작한 5만 원권 지폐 사용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점도 10만 원권 수표가 위반되는 원인으로 작용했다.

실제 5만 원권이 발행되기 전인 2000~2008년 시중에 풀린 돈은 연평균 1조~2조 원 수준으로 증가세를 보였지만, 5만 원권이 발행되기 시작한 2009년부터 2012년까지는 연평균 5조 원으로 증가 폭이 확대됐다.

이후 저금리 기조의 혜택까지 5만 원권에 집중됐다. 금리 인하가 본격화한 2013년부터 시중에 풀린 돈은 급격히 늘기 시작해 연평균 증가 폭은 10조 원을 넘어섰다. 2012년 54조 원에 불과했던 화폐발행 잔액이 지난해 103조 원을 기록하는 데는



불과 4년밖에 걸리지 않았다.

5만 원권 역시 2009년 발행 이후 연평균 6조~7조 원씩 늘었지만, 2013년부터는 11조~12조 원으로 증가세가 확대됐다. 같은 기간 10만 원권 수표 사용이 감소세를 보인 것과 대조적이다.

앞으로도 이 추세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기준 총 화폐 발행 잔액에서 5만 원권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 77.26% 수준인데, 선진국과 비교할 때 고객권 비율은 낮은 수준으로 평가되기 때문이다.

2014년 말 미국의 달러화 대비 100달러권 비중은 78.1%로 집계됐고, 일본의 엔화 대비 1만 원권 비중은 무려 91.7%에 달했다.

한은 관계자는 “5만 원권 등장 이후 화폐 발행 잔액이 계속해서 증가세를 보이는 반면, 10만 원권 수표 비중은 점차 낮아지고 있다”며 “선진국에 비해 고객권 비중이 낮은 사용하기 편리한 5만 원권 수요는 계속해서 증가세를 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남주현 기자 jooh@

31,000억 원  
30년 이상

## 해양 환경을 위한 희망에너지 LNG

# 한국가스공사가 선박연료의 친환경시대를 열어갑니다

해양 환경 규제에 따라 기존선박연료의 대안으로 청정연료인 LNG가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바다와 지구환경을 지키는 친환경 청정연료의 시작, LNG 벙커링으로 더 깨끗한 세상을 만들어갑니다.

**LNG 벙커링이란?**  
LNG를 선박용 연료로 공급하는 설비 및 행위를 의미합니다.

한국가스공사

한국LNG벙커링산업협회  
Korea LNG Bunkering Industry Association

# “美 도·소매업 구미 당기네” 투자액 규모 2만5000% 폭증

(지난해 4분기 기준)

## 업종별 해외직접투자 동향 살펴보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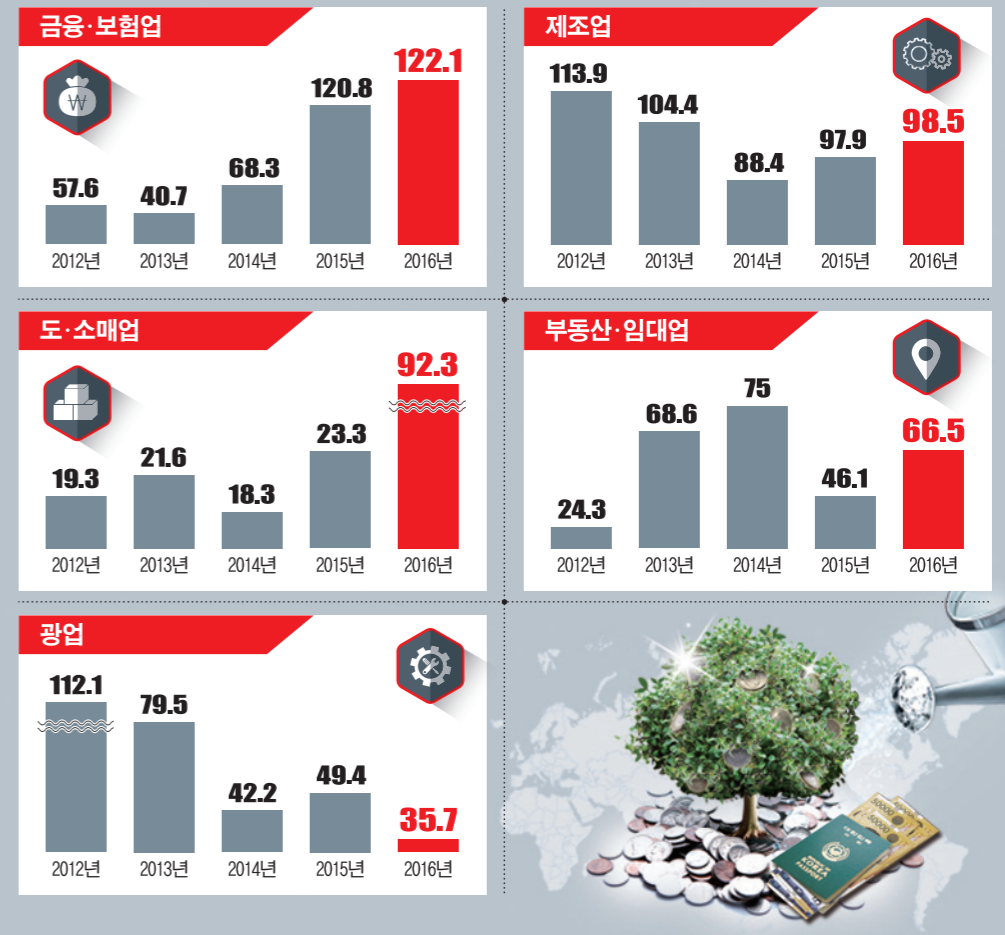
금융·보험업, 지난해 122억 달러로 '최대'... 제조업, 98억5000만 달러 부동산·임대업, 전년대비 44% 증가한 반면 광업은 30% 가까이 줄어 경기 살아나는 美에 투자 신고액 67% 증가... 중국·베트남 인기 '시들'

지난해 국내 자금의 해외직접 투자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것은 경기 흐름과 무관치 않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국내 경기가 침체될 회복 기미가 없자 국내 투자자들이 국내보다는 해외로 눈을 돌리는 것으로 보인다. 이를 방증하듯 국내자금의 해외직접투자 금액은 지난해 4분기 급증했다. 기획재정부는 15일 국내자금의 지난해 4분기 해외직접투자 신고액은 전년 동기 대비 33.9% 늘어난 182억 달러로 집계됐다고 발표했다. 이는 분기 기준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규모다. 기재부는 “지난해 4분기 기업인수합병(M&A) 목적의 투자신고액 급증이 연간 전체 신고액 증가의 주된 원인으로 분석된다”며 “미국 도·소매업에 집중적인 투자가 이뤄지면서 해외직접투자를 견인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자금의 투자지역도 성장률이 불안한 중국보다는 비교적 경기 상황이 양호한 미국 등에 집중적으로 투자가 이뤄졌다. 지난해 4분기 최대 투자 대

상국인 미국에 대한 투자 신고액이 도·소매업(2만 4997.3%) 등을 중심으로 182.5% 급증했다. 캐나다 역시 광업(1720.4%) 투자 신고액 급증으로 881.3% 뛰면서 지난해 4분기 투자 대상 상위 5개국에 진입했다. 반면 지금까지 주요 투자 대상국인 중국(38.1%), 베트남(12.9%) 등의 투자는 주춤하며 감소세를 보였다. 이 같은 영향에 힘입어 지난해 전체 해외직접투자 신고액도 전년 대비 18.7% 급증한 492억4000만 달러로 집계됐다. 이는 직전 최고 기록인 2011년 465억3000만 달러의 해외직접투자 신고액을 크게 웃도는 규모다. 지난해 전체 해외직접투자 신고액도 경기 흐름에 따라 투자가 집행된 것으로 풀이된다. 북미 투자 신고액이 도·소매업(654.4%), 부동산·임대업(27.2%) 등을 중심으로 크게 증가하면서 전년 대비 68.6% 늘었고 유럽도 금융·보험업 부문이 투자를 견인하면서 전년 같은 기간보다 72.0%

높아졌다. 하지만 아시아는 금융·보험업 투자 감소 영향으로 전년 대비 21.9% 신고액이 줄었다. 특히 국가별로는 미국에 대한 투자 신고액이 180억 달러로 전년 대비 66.9% 급증했다. 이는 도·소매업(666.7%)과 부동산·임대업(27.1%) 등의 직접투자액이 크게 증가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반면 중국에 대한 직접 신고액은 전년 대비 8.8% 감소한 40억 달러로 집계됐다. 중국 직접투자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제조업이 19.8% 줄어든 영향이 컸기 때문이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부동산·임대업(44.2%)과 도·소매업(29.9%) 신고액이 크게 증가한 반면 광업(-27.7%)은 감소했다. 최대 비중을 차지하는 금융·보험업(1.1%)과 제조업(0.6%) 신고액은 전년 수준을 유지했다. 지난해 전체 해외직접투자 신고액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송금액 역시 전년 대비 14.2% 증가한 352억5000만 달러로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기재부는 올해에도 세계경제 성장세 회복, 미국 재정부양,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전 세계적으로 해외직접투자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미국 금리인상 가능성과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탈퇴,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Brexit), 유럽 선거 결과 향방 등 대외 불확실성이 해외직접투자를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봤다. 양창규 기자 yangck@

업종별 해외 직접투자 실적 (단위 : 억 달러, 신고액 기준)



## 포폴리즘 법안 붓물, 유통업계 '한숨'

### KC인증 품목 의류·잡화로 확대시킨 '전안법' “옷 디자인 조금 바뀌도 인증비 부담” 영세업체 사정 알고나 만든 법인지...

유통업계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장기화하는 경기불황에 실적 악화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각종 규제가 강화되는 데다 최순실 사태로 앞당겨진 대선 이슈에 각종 포폴리즘(대중영합주의) 규제 법안이 쏟아지고 있어서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국회에 이어 20대 국회에서도 유통과 관련된 발의된 규제 법안은 20개 가까이 된다. 규제 법안의 변면을 살펴보면 김종훈 무소속 의원 등은 대형마트 의무휴업 일수를 현행 2회(격주)에서 주 1회씩 4회로 확대하고, 백화점과 면세점은 월 2회의 의무휴업을 신규 지정한다는 내용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지난해 말 발의했다. 또 정인화 국민의당 의원은 지난해 말 대형점포가 지역협력계획서를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 강제금을 매출의 10%까지 부과한다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경태 새누리당 의원 등도 지난해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 개설을 현행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변경하자는 법안도 내놓았다. 각종 법안의 목적은 유통 대기업들의 무분별한 출점과 영업으로부터 골목상권을 지키는 것을 표방한다. 상대적 약자인 중소 상인들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울타리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적 규제가 제 역할을 하고 있는지는 물음표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조사에 따르면 의무휴업일의 전통시장 방문 횟수 증가는 연평균 1회에도 못 미치는 0.92회에 불과했다. 또 김한표 자유한국당 의원 자료에 따르면 의무휴업으로 반사이익을 볼 것으로 기대됐던 전통시장 매출은 2011년 21조 원에서 2012년 20조1000억 원, 2013년 19조9000억 원으로 되레 감소했다. 소비자들은 대형마트가 쉬는 날 전통시장을 방문하기보다 온라인몰을 이용하거나 장보기를 미루는 게 대부분이다. 사실상

소비 증발의 역효과만 일으킨 셈이다. 최근 유통업계의 새로운 규제 대상으로 주목되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식품통신판매법 시행령 개정안과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전안법)이 적절하지도 논란이 되고 있다. 업계는 법 취지에는 일정 공감하지만 온라인 사업자의 불필요한 책임을 강요하는 한편 영세 제조사나 농가, 소상공인의 사업 위축이 뒤따를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법 개정이 이뤄지면 온라인 유통업계는 개별 판매 상품에 대한 검수, 배송 과정 등에 직접 개입할 수밖에 없다. 비용 증가의 부담을 덜고 위법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고자 일정 규모 이상의 판매업체만을 대상으로 거래를 틀거나 판매자에게 수수료를 높여 발생 비용을 전가할 가능성도 있다. 온라인 유통 관계자는 “현행법으로 충분히 규제하고 있는 내용을 행정상의 편의로 업체에 과도한 책임을 지우는 것은 우려스러운 문제”라며 “업계와 충분한 논의 및 의견 수렴 없이 개정되는 것은 요즘 문제가 터져 나오고 있는 전안법과 다를 바 없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전안법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안전확인 KC(국가통합인증마크) 인증서 보유 규정이 전기·유아용품에서 의류·잡화로 확대되면서 소규모 유통·수입업자들은 모든 취급 제품에 대해 품목별로 20만~30만 원의 인증을 받아야 하는 비용 부담이 발생하게 됐다. 아울러 공장 주문부터 매장 배송까지 나을 안팎이면 끝나는 생산 시스템도 붕괴 위기에 처했다. 중소기업중앙회 서정현 생활경제부장은 “계절성과 짧은 유행기, 다양한 선호도를 반영해야 하는 섬유·의류업종은 조금만 변형을 가해도 새로운 제품이 돼 신규 인증이 필요하다”며 “다품종 소량생산 업체들의 부담이 매우 크다”고 말했다. 조남호·전효점 기자 spdran@

#### 유통업 대표 규제 및 발의 법안

김종훈 의원 등	대형마트 의무휴업 일수 주 1회로 2배 증가, 백화점·면세점 월 2회 의무휴업
정인화 의원	대형점포 지역협력계획서 불이행 시 매출의 10%까지 이행강제금 부과
조경태 의원 등	대형마트 및 기업형 슈퍼마켓(SSM) 개설 등록제서 허가제로 변경
식약처	온라인 식품 판매 사업자를 식품통신판매업으로 분류, 업체의 식품 검수 비용 증가 등 우려
전안법	KC 인증서 보유 규정 의무·잡화로 확대, 소규모 업체 수입만 인증 비용 부담 우려

## 건강도 지키고 자산도 지키는 종신보험 교보가 만들면 보험의 능력은 더 커집니다

**(무)교보건강플러스변액종신보험**

교보생명의 새로운 종신보험은 인생전반에 필요한 것까지 보장합니다. 종신보험의 혜택에 3대 질병 또는 LTC 발생시 진단보험금 선지급 보장, 안정적인 자산관리까지 기대할 수 있는 (무)교보건강플러스변액종신보험-당신의 내일에 필요한 것들을 지킵니다

\*3대질병 또는 LTC 진단보험금 선지급시 사망보험금을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일반사망보험금은 고의적 사고 및 2년 이내의 자살의 경우 지급을 제한합니다. \*3대질병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서 해당되는 분류번호(질병코드)와 알-뇌출혈·급성심근경색증을 말합니다. \*LTC(long term care)는 약관에서 정한 보장기준에 따른 중증치매상태 또는 일상생활장애상태를 말합니다. \*변액보험은 운용실적에 따라 보험금이 변동되는 실수익형 상품으로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가입자에게 귀속됩니다. 또한 중도해지시 해지환급금은 최저보증이 되지 않습니다. \*이 보험계약은 예금저축보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다만 약관에서 정한 최저사망보험금, 최저보장보험금 및 특약에 한하여 예금저축보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의 해지환급금(또는 만기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가된 지급금을 합하여 연당 '최고 소액한도'이며, 5천만원 한도를 초과하는 내리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또한, 보험계약자 및 보험금수급자가 사망하면 보호되지 않습니다. \*이 같은 계약을 해지하고 신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보험금수가 가액도거나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으며, 보장 한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상품 내용은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준법감사인(재인원) 1-611-26 상품지원팀(2016.11.23) 생명보험협회 상무팀 제2016-3423호(2016.11.23)

**KYOBO**  
교보생명

# “軍복무기간 줄이자” vs “軍폴리즘” 비판

대선주자 공약분석 7 국방

문재인, 현행 21개월→18개월로  
남경필, 사병월급 최저임금 50%  
이재명, 복무기간 10개월로 단축  
안철수 ‘기간단축·모병제’ 시기상조  
유승민 “병역기간 논의 그만하자”  
안희정, 전직전통제권 환수

대선주자별 안보국방 분야 공약					
문재인	안희정	안철수	이재명	유승민	남경필
군복무기간 18개월로 단축, 국방예산 GDP 대비 3%로 상향	복무기간 단축 반대, 전직전통제권 환수	2020년대 초중반 군 50만명 유지, 청와대 NSC에 북핵대응센터 설치	군복무기간 10개월까지 단축, 선택적 모병제 도입	사드 추가 배치, 전술핵 재배치	연봉 2400만 원 모병제 시행, 사병월급 최저임금 50% 수준으로 인상

북한의 신형탄도 미사일 발사와 김정남 피살 사건 등으로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 위기가 고조되면서 대선주자들도 국방·안보 공약 다짐기에 심혈을 기울이는 모습이다. 특히 조기대선 국면에서 포퓰리즘 바람을 타고 군 복무기간 단축, 모병제 등 병역에 대한 공약은 표심을 가를 주요 이슈로 부상했다.

우선 병역 공약의 전면에 등장한 군 복무기간 단축과 모병제 등에 대한 유력 대선주자들의 입장은 엇갈린다.

대선 여론조사 1위를 달리는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현행 21개월인 군 복무기간을 참여정부의 ‘국방개혁 2020’에 따라 18개월까지 줄이겠다는 공언했다. 그는 최근 18개월 단축을 기본으로 하되 여지가 있으면 단계적으로 더

줄여보자는 의사도 내비쳤다.

같은 당의 이재명 성남시장은 전문 전투병 10만 명을 모집하는 ‘선택적 모병제’를 도입해 의무복무기간을 10~12개월로 줄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의무복무기간에 월 100만 원을 적립해 제대할 때 준다는 공약도 내놨다. 모병의 병역기간은 3년 이상으로 설정했다.

바른정당의 남경필 도지사는 전면적인 모병제를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오는 2022년까지 사병 월급을 최저임금액의 50%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인상해 2023년부터 연봉 2400만 원에 3년간 복무하는 병사를 모집해야 한다는 게 구체적인 구상이다. 이를 위해 필요한 6조9000억 원의 예산은 법인세·비과세 감면 축소(5년간 16조5000억 원)로 조달할

수 있다고 남 지사는 설명했다. 그는 “인구절벽 시대에 지금의 병력을 유지하려면 모병제 전면 도입 외에는 대안이 없다”고 말했다.

반면 각각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대선주자인 안철수, 유승민 의원은 군 복무기간 단축, 모병제에 대해 ‘포퓰리즘’이라며 비판의 날을 세우고 있다. 안 의원은 “복무기간 단축은 지금은 무책임한 주장”이라며 부사관 지원과 특기병 제도를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다. 유 의원은 “대선 때마다 군 복무기간을 줄이면 도저히 군대를 유지할 수 없다”며 “이제 그만 논의하자”라고 대선주자들에게 제안했다.

실제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이러한 군복무 공약은 재원 마련에 대한 구체적

인 대안 없이 젊은 층의 표심만 노리는 ‘군포퓰리즘’에 지나지 않는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안보 문제에 있어선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와 전직전통제권 회수, 국방예산 증액 등이 대선주자들의 관심사다. 안희정 지사는 자주국방을 위해 ‘안보·외교 지도자회의’ 신설과 전직전통제권 환수 등을 공약했다.

문재인 전 대표와 안철수 의원은 또 국방비를 국민 총GDP 대비 3%까지 점진적으로 증액시켜 나가겠다고 입을 모았다. 유승민 의원은 사드 2~3개 포대 추가 배치와 전술핵 한반도 재배치를 북한 도발 대비책으로 제시했다.

전문기자 puri21@

# 자유한국당 ‘보이콧’... 임시국회 ‘안갯속’

與 상임위 의원 전원 회의 불참  
野 정부 향한 ‘질타의 장’ 바뀌어  
개혁법안 처리 또 물건너갈 수도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의 자리가 비어 있다. 뉴스시스

여야 간 신경전이 길어지면서 여당이 빠진 ‘반쪽상임위 운영이 계속되고 있다. 이에 상법 개정안 등 개혁법안과 경제 활성화 법안이 국회에서 표류하고 있어 경제적 불확실성을 키운다는 지적이 나온다.

자유한국당은 16일 국회 상임위 불참을 이어갔다. 이날 오전 예정됐던 7개 상임위 가운데 기획재정위원회와 안전행정부위원회는 이를 연속 열리지 못했다. 미래창조과학부·농림축산식품부·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오전 10시 30분께 국회 상임위 회의장에 도착했다.

“반쪽짜리” 2월 임시회는 여야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당분간 파행 운영될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여당 위원들의 전원 불참으로 상임위는 법안 논의가 아닌, 야당의 정부를 향한 ‘질타의 장’으로 바뀌었다. 전날 정부위에 참석한 정재찬 공정거래위원회장은 제1모집회 합법 과정에서 공정위가 삼성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을 추궁당하면서 진땀을 뺐다.

파행 국회의 해법에 대해 정부위 소속인 한국당 김중서 의원은 “여당의 상임위 불참은 야당의 일방적인 ‘날치기

통과’에 대한 문제제기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앞으로 더 이상 발생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혀야 한다”면서 “환노위 위원장이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재발방지 약속을 하면 바로 풀릴 것”이라고 주장했다.

문제는 국회 파행이 지속되면서 상법 개정안 등 쟁점 개혁법안 논의가 사실상 멎기로 밀려나고 있다. 여야 간 대치가 계속돼 경제 법안들이 수년째 국회에서 움직이지 못 하면서 기업들 역시 갈피를 못 잡는 상황이 반복되는 악순환을 낳고 있다. 다만 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지난 13일 “야 원내대표와 원내수석부대표 간에 합의된 법률안이 있다면 일부가 반대해도 국회의장이 직권 상정할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며 상법 개정안 직권 상정을 예고했다.

정용욱 기자 dragon@

# ‘김정남 피살사건’... 분주하게 움직이는 대선주자들 文 “외교자문” 劉 “사드 배치” 安 “국방비 증액”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이복형인 김정남 피살 사건이 조기 대선 정국의 돌발 변수로 떠오르면서 주자들의 움직임도 분주해졌다. 지난 12일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동해상으로 발사한 데 이어 다시 불어닥친 북풍(北風)을 타려는 중도·범보수 주자들과 달리 진보진영 주자들은 보수의 북풍물이에 휘말리지 않겠다는 모습이다.

북한 변수에 가장 민감할 수밖에 없는 건 유력주자임에도 보수 일각에서 끊임없이 ‘안보관 불만’ 의심을 받고 있는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다.

문 전 대표는 16일 외교자문그룹 ‘국민 아그레망’을 발족하고 긴급 외교전문가 좌담회를 여는 등 발빠른 대응에 나

섰다.

이날 오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긴급 좌담회를 통해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김정남 피살 등 현안을 점검하고 전문가들의 자문을 구했다. 다만 그는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결정권을 자기 정부에 넘겨야 한다는 등 기존 안보 이슈 관련 입장은 고수하고 있다.

반면 문 전 대표의 안보관을 수차례 문제 삼았던 바른정당 대선주자인 유승민 의원도 이날 오후 국회에서 ‘안보 위지 어떻게 극복할까’라는 제목의 긴급토론회를 연다. 김정남 피살 사건을 계기로 긴급히 마련한 것이다.

유 의원은 이 자리에서 조속한 사드

배치 필요성과 함께 수도권 방어를 위해 사드 2~3개 포대를 한국의 국방예산으로 도입하자는 전날의 주장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안철수 국민의당 전 대표 역시 보다 공세적으로 나선 형국이다. 안 전 대표는 전날 “자강안보를 강력 추진해 안보 대통령이 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킬체인(Kill Chain·미사일 공격을 탐지해 타격하는 공격형 방위시스템)과 한국형 미사일방어(KAMD) 개발을 조기에 완료하고, 국방비를 GDP 대비 3%까지 점진 증액해 나가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또한 사드 배치에 반대했던 그간의 입장이 바뀔 수 있다는 가능성까지 내비쳤다.

김미영 기자 bomnal@



북한의 강철 말레이시아 주재 대사가 15일 밤 김정남의 시신 부검이 진행된 병원 법의학실 앞에서 승용차 쪽으로 가고 있다. 부검은 오후 8시에 끝났다. 쿠알라룸푸르=AP/뉴스시스

# 안전 우려 ‘SRT·민자도로’ 국정감사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표발의



비상 정치되거나 탈선 가능성도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우려다.

여기에 SRT를 운영하는 (주)SR은 코레일, 사학연금 등 공적자금 출처로 세워진 데다 코레일과 같은 철도 운송업무를 대행함에도 민간 회사라는 이유로 국가 감시망에서 빠져 있다고 전 의원은 지적했다.

민자도로 운영자 역시 도로공사와 동일한 업무를 하지만 민간회사라는 이유로 감시망에서 벗어나 있다. 특히 민자도로는 도로공사가 운영하는 고속도로보다 통행료가 1.8배 정도 비싼데도 불구하고 수천억 원의 MRG(최소수입보장)가 발생해 국가재정에 부담을 주고 있다. 애당초 잘못된 수요 예측으로 생겨난 민자도로의 운영 적자를 혈세로 메워주고 있는 셈이다.

김미영 기자 bomnal@

5070 시니어 매거진 Monthly Magazine

**BRAVO My Life**

02 FEBRUARY 2017

황새벽사 박사님의 팔색조 매력

97세 김형석 교수가 전하는 행복 메시지

이명규의 심·신·체이론

남편과의 추억으로 먹고사는 아들다운 미망인 고은아

재미로 보는 대선 후보들의 관상

정세고독의 강을 건너는 고도원

당신 그릇을 가졌는가

**grit**

잡나가는 사람에게 이유가 있다

재능, 운, 노력을 할 버무려 최선의 인생을 살게 하는 힘

### 5070 시니어 잡지 <월간 브라보 마이 라이프>

#### COVERSTORY 잘나가는 사람에게서 이유가 있다

**PART1.** 사람이 있는 고생이 행복임을 깨닫는 사람 김형석 연세대 명예교수

**PART2.** 잘 풀리는 인생, 특별한 삶의 노하우

**PART3.** 철학이 있는 사람들 미디어리터스 미래성형외과 김종환 원장. 자생한방병원 국제진료센터 라이몬드 로이어 센터장, 가제트 숭집 대표 겸 배우 김경범씨, 정신과 의사 나코시 아스후미씨

**PART4.** 인상으로 풀어보는 재미있는 대선 이야기 박정희 해당 인성코치 연구원장

**PART5.** 신통방통! 운 좋아지는 습관에 도전하다

**문학관 답사기 김수영 문학관**

**순수시인 김수영, 너른 풀밭에 누워 자유를 외치다**

도시 숲을 헤치고 빠른 속도로 버스가 달린다. 희미하게 햇살이 보였다 안 보였다 한다. 짙은 갈색 나무 끝이 파란 하늘 배경으로 흔들흔들, 구름의 속도로 움직인다. 작은 버스정류장에 내려 차갑고 신선한 공기와 마주하며 이정표를 따라 걷는다. 곧 다다른 곳은 김수영 문학관. 문체의 자유를 넘어 진정한 자유세계를 위해 끊임없이 저항하고 아파했던 순수시인 김수영의 세계가 구름이 가는 속도만큼 잔잔히 흐른다.

**2월의 산책**

**발길이 닿는 곳, 곧 예술이 된다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매서운 추위에 앞서귀들은 메말랐어도 마음은 따뜻하게 감성은 촉촉하게 보내고 싶다면 미술관 나들이를 추천한다. 전시에 따라 매력이 달라지는 게 미술관이지만,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은 전시를 외에도 즐길거리, 볼거리가 풍성하다. 눈 오는 날 방문한다면 미술관 통유리로 바라보는 풍경이 또 하나의 예술 작품이 될 것이다.

#### 신라보가 만난 사람

**아직도 건재한 현역 테일러, 여용기**  
“웃 잘 입으니까 인생이 술술 풀려요”

**고도원 이침편지문화재단 이사장의 (절대)고독**  
절대고독의 강을 건너며 채우는 내면의 아우라

**(지금의 라디오 시대) DJ, 그리고 (최유리)의 쇼호스트**  
최유리의 인생 후반전 지금이 최고의 순간

**맞춤형 건강 도시락으로 새해 식단 관리하기**

그저 가볍게 한 끼 때우기 식사가 아닌 내 건강상태까지 고려한 맞춤 도시락이라면 어떨까? 물론 가장 중요한 ‘맛’을 빼놓을 수는 없다. 프리미엄 도시락 전문점 ‘바버너박스’에서 찾은 맛과 건강, 그리고 KBS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을 계기로 본지 제작에 참여한 김홍관 시니어 인턴기자가 직접 체험하며 맛본 도시락 후기까지 담아냈다.

**이명규 心治 데이트**

**16세 연상 남편과의 추억으로 먹고사는 아름다운 미망인 고은아**

72세에 이토록 아름다운 여인이 또 있을까? 연보라색 머릿결이 눈부신 고은아는 지금도 매력 발산 중이다. 여성의 미를 탐닉할 줄 아는 못 남성들이라면 그녀를 보는 순간 심장이 몇 초진이라도 멈출 수밖에 없으리라.

**동년기자의 페이지**

강신영·박미령·최은주·유미숙·박혜경·한정수 동년기자 첫사랑이 생각날 때

**부치지 못한 편지**

조환익 한국전력공사 사장 쓸쓸한 만추의 어느 날 떠나버린 친구에게

# 4월 위기? 진화나선 경제팀

## 이찬우 기재부 차관보 “대우조선 4400억 회사채 만기 대비 중” 추가지원 없다 못박아... 2월 고용악화에 취약계층 대책 고심

대우조선해양의 4400억 원 규모 회사채가 만기 도래하는 4월 위기설이 시장에 확산되자, 정부는 “과도한 우려”라며 불안 심리가 확산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나섰다. 그러나 대우조선에 대한 추가적인 유동성 지원은 없다고 못박았다.

이찬우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4월 위기설에 대해 “현재 경기 상황을 위기에 준하게 대응하고 있지만, 위기 자체로 보는 건 과한 판단이다. 위기를 강조하다 보면 경제 심리가 위축돼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 차관보는 “대우조선은 4월에 회사채 만기가 돌아오는 것과 수급상황을 당국이 체감하고 있고, 크게 문제가 안 될 것으로 본다”며 “추가적인 유동성 지원은 없다. 수주나 자구노력이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4월 위기설의 근거인 미국의 환율조작국 지정 가능성은 정무적인 판단으로 높지 않다고 본다”며 “작년에 비해 올해는 수출이 상당히 호조세고, 기저효과도 있지만 3개월간 플러스로 갔다. 2월 수출동향을 보면 조업 일수가 부족함에도 1월보다 나은 수준으로 본다”고 낙관했다.

앞서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역시 4월 위기설에 대해 “경제 상황이 녹록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게 보지 않는다. 상상 못할 위기는 없을 것이며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고 본다”고 강

조했다. 정성립 대우조선 사장 역시 “(회사채 상환) 문제는 회사 내에서 나름대로 인지를 하고 대비하고 있다. 회사 나름대로 철저하게 여러 가지 각도로 대비하고 있다”는 입장을 전한 바 있다.

정부와 업계가 한목소리로 4월 위기설은 없다며 불안 심리 확산 차단에 나선 가운데 고용 한파는 더 몰아칠 기세다.

이 차관보는 “고용의 질이 악화되고 제조업 취업자가 10만 명 이상 줄고 있다”며 “1월 제조업 취업자가 (전년 동월 대비) 16만 명 감소했다. 지난해 1월에는 14만 명이 늘었는데 이를 합하면 30만 명이 줄어든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지역별 고용이 1월에 16만9000명이 증가했다. 비자발적인 건 고용의 질적 측면에서 좋지 않다”며 “1월도 고용의 숫자가 좋지 않지만 졸업이 있는 2월이 더 어려울 가능성이 있다. 3월엔 청년 등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대책을 마련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고용노동부만 일자리 부처가 아니라 전 부처가 담당이라 생각하고 일자리 창출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고용 전망을 토대로 올해 업종별 특이사항을 각 부처별로 점검하고 3월 중 경제정책 방향에 답을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정필 기자 roman@

# 지상파 3사 UHD 본방, 예상대로 3개월 연기

## “장비도입 지연... 9월로 연기” 의견서... 방통위, 대응책 없어 문제 키워

이달로 예정돼 있던 KBS, MBC, SBS 등 지상파 3사의 수도권 초고화질(UHD) 본방송이 3개월 연기됐다. 기술적인 문제로 2월 방송이 어려울 것이라는 시각이 우세했지만, 주무 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가 적절한 대책을 내놓지 않아 문제가 확산됐다. 지상파 3사 측은 “KBS의 장비 도입 지연 등을 고려해 UHD 본방송 개시를 9월로 늦춰 달라”는 의견서를 지난해 말 방통위에 제출했다.

방통위는 15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지상파 3사의 UHD 방송국 운용개시일을 오는 5월 31일로 연기했다. 방통위는 지난해 11월 지상파 3사의 UHD 본

방송을 허가하면서 수도권은 세계 최초인 올해 2월, 광역시는 올해 12월, 나머지 시군 지역은 2021년까지 순차적으로 도입하기로 했다.

그러나 지상파 3사는 “KBS의 장비 도입 지연 등을 고려해 UHD 본방송 개시를 9월로 늦춰 달라”는 의견서를 지난해 말 방통위에 제출했다.

일각에선 지상파 UHD 방송과 관련해 방통위가 주무기관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고삼석 방통위상임 위원은 “작년 허가 심사 때 3사 모두 (2월 개시) 일정에 차질없이 준비하겠다고 답변했다”며 “기술적 문제가 사전에 충분히 예견됐음에도 적절히 대응하지 못한 것”이라고 말했다.

UHD 표준 선정을 두고도 논란이 일었다. 방통위가 국내 UHD 표준을 이달 말이나 내달 초 출시되는 북미식(ATSC 3.0) 표준을 선택하면서, 현재 판매되고 있는 유럽식 표준 UHD TV의 경우 직접 수신이 불가능해졌다. 유럽식 UHD TV를 산 소비자들은 전송 방식을 변경해 주는 5만~6만 원 상당의 단말기를 별도로 부착해야 한다.

김병근 기자 nova@

# 정부 “한국, 환율조작국 아니다”... FT에 항의 서한

정부가 아시아의 환율조작국은 한국이라고 보도한 영국의 파이낸셜타임스(FT)에 항의 서한을 보냈다. 미국의 실제 환율조작국 지정 가능성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한 이례적인 조치다.

16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은 공동명의로 FT 영국 본사와 일본 지사에 보도내용이 사실과 다르니 신중을 기해 달라라는 내용의 항의서한을 전달 보냈다. 앞서 FT는 아시아에서 환율 조작을 하는 국가는 한국과 대만, 싱가포르라고 13일 보도한 바 있다.

FT는 한국과 대만이 외환시장 개입 내용을 공개하지 않기 때문에 트레이더들이 국제수지 데이터나 시장 움직임을 토대로 추론하고 있지만, 이들 국가가 환율에 개입한 흔적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중국과 일본의 경상수지 흑자가 국내총생산(GDP)의 3% 수준에 미치지 못하지만, 한국의 경상수지 흑자는 GDP의 8%에 육박한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했다.

이에 정부는 항의서한을 통해 한국이 원화 절하를 위해 일방적으로 시장에 개입하지 않았

## 기재부-한은 “일방적 시장개입 안 했다” 美 환율조작국 지정 가능성 차단 나서

으며, 이 같은 사실은 국제통화기금(IMF)의 한국 경제 보고서와 미국 환율보고서에서도 인정하고 있다고 맞섰다.

또한 한국의 경상수지 흑자는 고령화와 유가 하락에 기인하고 있고, 이 같은 내용을 뒷받침하는 연구가 많으며, 국제결제은행(BIS)이 발표한 것처럼 원화의 실질 가치가 계속 고평가되고, 따라서 환율 저평가로 경상수지 흑자가 발생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잘못됐다는 내용을 강조했다.

이정필 기자 roman@

## ‘해외인프라 수주 지원 협의회’ 주재하는 최상목 기재부 차관



최상목 기획재정부 차관(오른쪽 두 번째)이 16일 서울 영등포구 수출입은행에서 '제4차 해외인프라 수주·투자 지원 협의회'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 정부 ‘내수·수출활성화 대책’ 마련한다

## 유일호 경제부총리 “내수 둔화에 경기회복 제약”... 이달 중 발표

정부가 대내외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내수가 둔화되면서 경기 회복세를 제약하고 있다는 판단하에 이달 중에 내수와 수출 활성화 대책을 잇달아 내놓기로 했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정부는 내수를 활성화하고 민생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위해 정책 노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우선 소비심리 회복과 가계소득 확충, 생계비 부담 경감 등을 내용으로 하는 ‘내수활성화 대책’을 이달 중 발표할 계획이다. 또 무역투자진흥회의를 개최해 내수의 또 다른 축인 투자 활성화 방안과 최근 회복세를 보이는 수출지원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유일호 부총리는 “지역경제 활성화, 생활밀착형 산업과 고령사회 유망산업에서 민간의 투자 기회를 확대하고 수출품목 다변화, 전략시장별 맞춤형 진출 방안, 전자상거래 등 새로운 수출 방식 촉진 등을 중심으로 수출구조 혁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민생의 핵심인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 산업 육성 및 투자 증대가 일자리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일자리 관점에서 정부정책을 추진해 고용시장에 활력을 준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크고 국민 체감도가 높은 에너지, SW, 국토교통, MICE 등의 분야에서 20개의 주요 일자리 과제를 선정해 집중관리해 나간다.

3월 중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분기별로 추진 실적을 점검하기로 했다.

유 부총리는 “이 과정에서 각 부처 장관이 모두 ‘일자리 책임장관’이라는 사명감으로 소관업종에서 새롭게 창출되거나 수요가 증가하는 일자리를 면밀히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올해 외국인관광객 1800만 명 유치를 목표로 프리미엄 상품 개발 등 관광프로그램의 품질을 높이고 동남아·중동·일본 등으로 시장을 다변화할 계획도 밝혔다. 수산물 수출은 고부가가치화, 수출시장 다변화를 추진해 2018년까지 수산물 수출 규모 30억 달러를 달성하기로 했다.

곽도훈 기자 sogood@

## 대한민국 사장님의 희망자산 노란우산공제

홍보대사 이금희, 서경석

### 노란우산공제가 소기업·소상공인 사장님의 희망이 되겠습니다

**절세혜택**  
납입부금에 대해 연 300만원 소득공제로  
최고 125만원 까지 절세할 수 있습니다

**압류금지**  
공제금은 법률에 의해 압류가 금지되어  
사업 실패 시에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복리이자**  
별도 사업비 차감없이 납입부금 전액에 연 복리  
이자가 적립되어 목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고객복지**  
상해보험(2년), 법률·세무 등 자문을 무료로  
유망시설 등을 할인가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대한민국 소기업·소상공인 사장님이라면 누구나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관련세법에 의해 법인기업의 대표자는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문의 1666-9988 www.8899.or.kr**

Google play / 애플 앱스토어에서 노란우산공제를 다운로드 받으세요!

\* 본 상품은 가까운 KB국민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KEB하나은행, KBK기업은행, 농협은행, 우체국, 대구·부산·경남·광주·전북·제주은행에서 가입할 수 있습니다.  
\* 이 금융상품은 예금적보유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으나 중소기업경영이 감독되고 비영리 공익법인인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영하는 공적 공제제도입니다.

**KBIZ 중소기업중앙회**



따뜻한  
금융  
미래를 함께 하는  
따뜻한 금융



# 지구 반대편까지라도 신한이 함께 갈게요

지금, 머릿속으로 떠올려보세요  
가족과 떠났던 여행지, 업무차 떠났던 출장지  
우리의 삶은 점점 넓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넓어질 글로벌 세상을 위해  
신한은 먼저 나아가 준비하겠습니다  
국민과 기업을 아낌없이 지원하는  
전세계 20개국 161개 네트워크로  
미래를 함께 하는 따뜻한 금융이 되겠습니다



신한금융그룹

신한은행 신한카드 신한금융투자 신한생명 신한BNP파리바자산운용 신한캐피탈

제주은행 신한저축은행 신한데이터시스템 신한아이타스 신한신용정보 신한프라이빗에쿼티

# ‘육류대출’ 저축銀·캐피탈사 현장조사

금융감독원이 이번 달 말 육류담보대출 사기 피해를 당한 저축은행과 캐피탈사를 상대로 현장감사에 돌입한다. 대출 잔액이 가장 많은 동양생명에 대한 검사는 지난달 마무리됐다.

1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현재까지 피해가 확인된 저축은행·캐피탈사 가운데 대출 잔액이 비교적 큰 곳을 중심으로 현장감사를 단행한다. 가장 많은 대출을 해준 HK저축은행과 효성캐피탈이 유력할 것으로 보인다.

사기를 당한 저축은행·캐피탈사는 HK저축은행(354억 원), 효성캐피탈(268억 원), 한화저축은행(178억 원), 신한캐피탈(170억 원), 한국캐피탈(113억 원), 조은저축은행(60억 원), 세림저축은행(22억 원) 등이다. 보험사로는 동양생명이 유일하며 대출 잔액(3803억 원)이 가장 많다.

금감원은 피해 저축은행·캐피탈사를 모두 조사하기엔 무리가 있는 만큼 대출 규모가 비교적 큰 곳을 중심으로 감사에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금감원은 동양생명은 지난해

HK저축은행·효성캐피탈 등 금감원, 100억 이상 대출 대상 절차 문제점·담보 관리 등 조사 공동담보물 처분 교통정리 손실 최소화...사고수습 나서

12월 27일 현장감사에 착수했다. 육류담보대출 사기극이 불거진 직후 바로 감사에 돌입한 것이다. 동양생명에 대한 검사는 한 달 가까이 지난, 1월 20일 마무리됐다.

저축은행·캐피탈사에 대한 검사가 사고 불거진 지 두 달 지나야 이뤄지는 데엔 금감원의 현실적인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 고위관계자는 “동양생명에 비해 저축은행 등은 상대적으로 피해 규모도 작고 여러 곳이 연루된 만큼 감사한다고 휘저어놓으면 초기 사고 수습 자체가 안 될 것이라 판단했다”며 “이번 달 안으로 대출 규모가 큰 곳을 대상으



제2금융권 육류담보대출 현황 (단위: 억 원) ※ 출처: 각사 공시

회사명	대출규모	대손충당금(예정)	3분기누적손익
HK저축은행	354	266	307
효성캐피탈	268	201	189
한화저축은행	178	134	132
신한캐피탈	170	128	301
한국캐피탈	113	85	111
조은저축은행	60	45	53
세림저축은행	22	17	55

로 감사에 들어간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이번 현장감사에서 육류담보대출 절차의 문제점, 담보물 관리(수입 소고기의 적정성, 피해 금융기관의 손실 가능성 등을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금감원은 저축은행 등의 손실을 최소화하고 사고 수습을 빨리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겠다는 계획이다.

피해 저축은행과 캐피탈사들은 총대출 금액의 75%가량을 대손충당금으로 쌓기로 한 상황이다. 이들 금융사는 대출 금액 전액을 ‘회수의문’으로 분류하고,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에 따라 이 중 75%를 대손충당금으로 적립할 예정이다. 저축은행 중 대출잔액이 가장 많은

HK저축은행은 이미 지난해 결산에 354억 원의 75%인 266억 원을 대손충당금으로 반영했다.

현재 채권단은 참고에 있는 소고기의 담보 가치가 떨어지기 전에 담보물을 먼저 매각하고, 처분 대금을 공동 예치하는 데 합의한 상황이다. 다만 이후 담보물 우선권을 다투는 과정에서 소송전이 난무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한 채권단 관계자는 “동양생명과 엮여 있지 않은 담보물은 채권단 합의 하에 담보가 변경되기 전에 빨리 매각할 수 있지만 채권단서 빠진 동양생명과 공동담보로 된 물건은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박규준 기자 abc84@

## “관치금융 꼬리표 이제는 떼때” 수협 첫 ‘내부 은행장론’ 솔솔

이원태 회장 4월13일 임기만료 이르면 20일 행추위 내정 “차기는 非금융관료” 목소리



이원태 수협 은행장

4월 임기가 만료되는 이원태 수협은행장의 후임에 첫 내부 인사가 선임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수협은행장은 그동안 정부 관료 등 외부인사가 차지해 왔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수협은행은 오는 20일부터 3월 초 사이에 행정추천위원회(행추위)를 구성해 차기 행장을 내정한다. 이원태 행장의 임기는 4월 13일 만료된다. 수협법에 따르면 행장 임기만료 40~60일 전에 행추위를 구성해야 한다. 은행은 일정에 맞춰 행추위를 꾸린 뒤 공모절차를 거쳐 차기 행장을 선임할 계획이다.

수협은행은 아직 공모 절차도 시작되지 않았지만 일각에서는 벌써부터 낙하산 인사가 거론된다. 전 외환은행 출신인 장병구 전 행장 이후로 이주형, 이원태 두 행장 모두 기획재정부, 예금보험공사 부사장을 거쳐 잇따라 행장으로 선임된 바 있기 때문이다.

수협은행 지분은 수협중앙회가 100% 가지고 있지만, 외환위기 직후 공적자금 사별로 계좌 현황을 조회하거나 재무분석을 위해 고객이 일일이 자신의 자산 현황을 파악해 기업해야 했다. 하지만 마이머니에서는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18개 은행과 우체국, 14개 카드사, 16개 증권사, 22개 보험사 등의 자산 현황을 한꺼번에 불러와 통합 관리할 수 있다. 수협은행의 한 관계자는 “핀테크 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채널이 확대되면서 기존 영업점을 통한 대면 채널은 물론 비대면 전용 서비스를 통한 주거 고객 등 충성 고객을 확보하기 위한 은행권 경쟁이 치열하다”라고 평가했다. 박일경 기자 ikpark@

다. 그러나 최순실 게이트 등 낙하산 인사에 대한 논란이 커지면서 은행 안팎에서는 내부 출신 은행장 선임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수협 관계자는 “이번에도 정부 측 인사가 은행장으로 선임되면 관치금융 논란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비금융 관료 출신 은행장은 은행 업무 파악이 오랜 시간이 필요하고, 조직 운영이 경직되는 경향이 있다는 점도 부정적인 영향으로 꼽힌다. 특히 외압 영향으로 은행의 자율경영을 침해 받을 위험도 있다. 반면 내부 출신이 은행장이 되면 이같은 논란을 피할 수 있고, 경영상 강점을 가질 수 있다. 우선 수협은행이 원활하게 공적자금을 상환하기 위해서는 금융업 실무 전반에 대한 높은 이해도와 전문성을 갖춘 인물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내부 출신 행장은 업무상 교류할 일이 많은 수협중앙회와 원활한 관계를 유지해 중앙회의 전폭적인 지지를 이끌어낼 수 있다.

최근 IBK기업은행이 2010년 이후 3년 연속 내부 출신 은행장을 선임하고, 신한은행, KB국민은행, 우리은행 등이 내부 인사를 중용하는 등 은행권의 흐름도 수협은행의 첫 내부 출신 은행장 선임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정수현 기자 int1000@

## 소매금융으로 눈 돌리는 시중은행

시중은행들이 우대금리 혜택을 확대한 예·적금과 신상품 기획력이 돋보이는 새로운 금융상품을 앞다퉈 출시하면서 고객몰이에 나서고 있다.

16일 은행권에 따르면 KEB하나은행이 지난 6일 내놓은 ‘하나머니세상 적금·정기예금’이 출시된 지 9일 만에 5만 좌를 돌파했다. 하나은행은 이 상품을 적금은 50만 좌, 정기예금은 1조 원을 한도로 각각 특판 중이다.

돌풍을 이끈 가장 큰 이유는 저금리 시대 이래적인 고금리 은행 상품이라는 점이다. 최대 연 3.3%의 금리 효과가 있다. 기본금리 1.0%에 우대금리 최대 1.8%가 더해져 최고 2.8%가 적용된다. 특히 만기 시 이자에 붙는 원천징수세 만큼 하나머니를 적립해줘 실제 면세상품과 같은 파격적인 조건을 내걸었다.

이를 통해 하나은행이 최근 가입자 수 790만 명을 돌파한 하나멤버스 회원이 주거 고객으로 이어지도록 전략적인 접근을 시도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

우대금리 확대...年 최대 3.3% 하나은행 ‘하나머니세상 적금’ 출시 9일 만에 5만좌 돌파 우리·신한도 새 금융상품 출시 국민 ‘셀프 자산관리’ 서비스도

온다. 우리은행도 민영화 원년을 맞아 소매금융 강화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우리은행은 주가지수의 상승과 하락 시에 자동으로 수익 실현이 가능한 펀드로 계속 리밸런싱 해주는 ‘우리 펀드 오토(AUTO) 리밸런싱 서비스’를 금융권 최초로 시행했다.

고객이 사전에 목표수익률을 지정하면 자동으로 반대편(인덱스펀드↔리버스펀드)로 지급과 매수가 이뤄져 주가 상승과 하락 시에도 모두 고객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

### 주요 시중은행 기획 금융상품

구분	상품명	특징
KEB하나은행	하나머니세상 적금·정기예금	최고금리 연 3.3%(기본금리 1.0%+우대금리 1.8%+이자소득세 만큼 하나머니 적립)
우리은행	우리 펀드 AUTO 리밸런싱 서비스	사전 지정 목표수익률 따라 자동으로 반대편(인덱스펀드↔리버스펀드) 지급·매수
신한은행	신한 알파리치 적금	최고금리 6개월 이상 1년 미만 연 1.8%, 1년 이상 2년 미만 연 2.0%, 2년 이상 3년 미만 연 2.2%, 3년 이상 연 2.3%
KB국민은행	KB 마이머니	통합자산조회 - 은행·증권·보험 등 89개 금융기관 자산현황 통합조회 - 보통예금계좌, 카드승인 최근거래 내역 한 화면에서 제공 - 부동산, 자동차 등 등록자산 시세 자동변경 적용

다. 이처럼 하나은행과 우리은행이 전통적 영업 기반인 소매금융 강화를 위한 본격 행보에 나서면서 소매금융의 정통강자인 KB국민은행과 신한은행의 방어 전략이 주목받고 있다.

이들 두 은행은 지난달 신한은행이 ‘알파리치 적금’을 출시한 것을 제외하고는 아직까지 예·적금 등 금융 신상품에 있어 별다른 특판 계획이 없는 상태다. 대신 자산관리 등 대(對)고객 서비스를 강화해 주거 고객 이탈을 막고 있다.

국민은행은 지난해 9월 은행권 최초로 선보인 ‘셀프 자산관리’ 애플리케이션 ‘KB 마이머니’ 서비스에 집중하고 있다. KB 마이머니는 국민은행 외에 다른 은행, 카드사, 증권사, 보험사에 있는 정

보를 통합해 한 화면에 보여주는 서비스다.

지금까지는 모바일뱅킹을 통해 금융 사별로 계좌 현황을 조회하거나 재무분석을 위해 고객이 일일이 자신의 자산 현황을 파악해 기업해야 했다.

하지만 마이머니에서는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18개 은행과 우체국, 14개 카드사, 16개 증권사, 22개 보험사 등의 자산 현황을 한꺼번에 불러와 통합 관리할 수 있다.

수협은행의 한 관계자는 “핀테크 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채널이 확대되면서 기존 영업점을 통한 대면 채널은 물론 비대면 전용 서비스를 통한 주거 고객 등 충성 고객을 확보하기 위한 은행권 경쟁이 치열하다”라고 평가했다. 박일경 기자 ikpark@

## ‘핀테크 금융제한’ 함께 만들어가요



SC제일은행은 스타트업 및 핀테크 관련 IT기업에 소속된 개인 또는 단체를 대상으로 ‘핀테크 금융제한 공모전’을 열고 내달 1일부터 4월 7일까지 공모작을 접수한다고 16일 밝혔다. 공모전 주제는 총 37지로 각각 △디지털 채널 이용 방안 △모바일상품 제안 △데이터 분석 방법 제안이며 이 중 한 주제를 선택해 응모하면 된다. 사진제공 SC제일은행

www.douzone.com

# 인공지능 시대 회계프로그램 벌써 여기까지 왔습니다!

클라우드 인프라와 빅데이터 처리기술, 다양한 기계학습 및 딥러닝 응용 알고리즘을 구현한 인공지능 회계프로그램 더존 Smart A 회계증빙을 자동수집, 자동분개, 자동입력하고 회계 및 세무신고 데이터의 오류까지 자동으로 검증해줍니다.

**더존 프로그램의 주요 모듈 구성**  
(필요한 모듈만 선택 도입 가능)

회계관리   세무조정   인사급여   영업관리   생산관리  
외주관리   구매관리   자재관리   무역(수출입)   서비스관리  
공사현장관리   전자세금계산서   바로수급서비스   금융CMS서비스

### 더존 Smart A 자동 회계처리 프로세스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통장

자동수집 → Cloud Center → 자동분개 → 자동회계처리 엔진 → 자동입력 → 자동검증

빅데이터 분석 기업 표준 회계처리 패턴   기계학습 기업별 과거 회계처리 이력

회계장부   자금관리   세무신고

회계·세무신고 능력 및 오류 검증

법인세 MRI 검사   부가가치세 MRI 검사   상품등기 알림서비스   4대보험 신고 알림서비스

국가공인 AT(회계실무/세무실무)자격시험 더존 프로그램 사용자라면 누구나 취득할 수 있습니다. 더존 홈페이지 자격시험 사이트에서 핵심강좌 무료 수강. 지금 검색창에서 **더존 자격시험** 을 검색하세요.

국가기술자격 전산회계응용사, 국가공인 ERP정보관리사도 공식 수험용 프로그램인 더존 프로그램으로 준비하세요.

기업의 모든 IT 고민, 더존 IT코디네이터와 상담하세요 | 문의 1688-5000

# 삼성전자, 브라질에 7번째 디자인센터

중남미시장 20% 이상 급성장  
TV·스마트폰 점유율 1위 수성  
현지 맞춤형 제품 개발에 집중



삼성디자인 라틴아메리카의 전경. 사진제공 삼성전자

“고객은 0.6초 만에 떠난다. 삼성의 디자인은 아직 1.5류에 불과하다. 짧은 순간에 고객의 마음을 붙잡지 못하면 승리할 수 없다.” 2005년 이탈리아 밀라노로 주요 사장단을 긴급 호출, 현지에서 사장단 회의를 가진 이진희 삼성전자 회장의 일성은 ‘디자인 혁신’이었다. 밀라노 선언 이후 삼성전자는 세계 거점에 디자인 센터를 늘리며 ‘소프트파워’ 확보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우변동 R&D 센터에 디자인 역량을 한데 집결한 데 이어, 중남미 지역 소비자들의 요구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상파울루에 라틴아메리카 디자인 거점 센터를 추가 오픈했다. 이로써 삼성전자는 현재 서울을 포함 △일본 도쿄 △중국 베이징 △인도 델리 △영국 런던 △미국 샌프란시스코 △브라질 상파울루 등,

총 7곳의 해외 디자인 연구소 체제를 구축했다.

삼성전자는 글로벌 소비자들의 요구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디자인 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삼성이 ‘디자인 혁명의 해’를 선언한 1996년 일본 디자인 센터를 설립한 것을 시작으로 2008년 인도에서 ‘삼성디자인센터’를, 2012년에는 미국에 흠어져 있는 거점을 샌프란시스코로 통합했다. 이후 해외에서는 큰 움직임이 없다가 지난해 9월 중남미 지역에 센터를 추가로 설립한 것이다.

디자인 센터의 성과도 상당하다. 삼성전자가 중국 지역 점유율 방어에 R&D 센터와 디자인 센터가 협업해 내놓은 ‘갤럭시C’ 시리즈가 대표적이다. 인

도에서 인기를 얻은 ‘갤럭시C’도 인도 특유의 정서가 반영되도록 삼성디자인센터가 디자인한 제품이다.

7번째 거점으로 선택한 중남미 지역에서 삼성은 TV와 스마트폰 시장에서 점유율 1위를 기록하고 있다. 한국 브랜드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데다가, 소독 증가와 컴퓨터·통신기기 보급 확대 등으로 2009년 이후 매년 20% 이상 급성장하고 있다. 성장 속도로는 중국에 이어 세계 2위 지역이다. 중남미는 삼성뿐 아니라 글로벌 기업들이 공을 들이는 시장이다. 삼성은 중남미 지역 디자인 센터에서 모바일 기기와 TV 및 가전제품 분야에서 소비자의 요구 사항을 듣고 맞춤형 제품 개발을 하는 데 집중할 계획이다. 정유현 기자 yhssoo@

# 테슬라·BYD 상륙 초읽기 전기차 ‘춘추전국 시대’

글로벌 전기차 공룡인 테슬라와 BYD(비야디)가 국내 상륙을 본격화하면서 국내 전기차 시장의 춘추전국시대가 열릴 전망이다.

16일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테슬라는 최근 국토교통부에서 제작자 등록 인증서를 발급받아 올 5월 국내 진출을 사실상 확정했다. 테슬라는 국토부의 제작자 등록 검증 절차 가운데 생산시설·시험시설을 국제기준을 충족했다. 하지만 판매 차량의 사후 관리를 제공하는 기술력과 시설을 갖춰야 하는 데 시간이 걸려 인증이 미뤄졌다.



테슬라의 모델S. 출처 테슬라 홈페이지

테슬라, 국토부 인증 통과·5월 출시  
BYD ‘K9’ 등 전기 버스 투입 예정  
현대자동차-쉐보레과 경쟁 본격화

인증받으면 ‘K9’, ‘C6’ 등의 전기 버스를 승용차에 앞서 국내에 투입할 예정이다. 대형 버스인 K9은 이달 말, 15인승 버스인 C6는 7월 말 우도에 20여 대를 들여온다. BYD 관계자는 “승용차는 내년엔 국내에 투입할 예정이지만, 보조금 개편이 이뤄지면 이른바 올해 안에 들여올 수도 있다”고 밝혔다.

테슬라와 BYD의 국내 진출이 임박하면서, 사실상 무주공산에 가까웠던 국내 전기차 시장의 경쟁도 본격화하고 있다. 국내 전기차 시장은 현대자동차 ‘아이오닉 EV’가 선두하고 있는 가운데, ‘북미 올해의 차’로 선정된 한국지엠 쉐보레 ‘볼트(Bolt) EV’도 이르면 내달 출시한다. 아이오닉 EV, 볼트 EV와 함께 테슬라, BYD의 전기차가 도입되면 국내 전기차 시장의 경쟁은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 한 관계자는 “춘천 인프라가 구축되면 전기차 시장은 급속도로 성장할 것”이라며 “세계 전기차는 선두하는 테슬라, BYD의 국내 진출로 전기차 시장 경쟁이 가속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용비 기자 dragonfly@

# SK도 전경련 탈퇴

오늘부터 계열사 20곳 순차 탈퇴  
4대 그룹 중 현대자동차만 남아

SK그룹이 오늘부터 전국경제인연합회 공식 탈퇴를 진행한다.

16일 세계에 따르면 SK그룹은 이날 계열사 SK텔레콤과 SK이노베이션이 탈퇴를 내는 것으로 전경련을 공식 탈퇴한다. SK하이닉스, SK㈜ 등 나머지 계열사 18곳도 차례로 전경련에 탈퇴를 제출할 예정이다. 지난해 국회 청문회에서 최태원 회장이 전경련 탈퇴 의사를 밝힌 지 3개월 만이다.

SK의 전경련 탈퇴는 지난해 말 4대 그룹 가운데 처음으로 전경련 탈퇴를 공식화한 LG그룹과 이날 초 탈퇴한 삼성에 이어 세 번째다. 현대차는 아직까지 탈퇴를 공식 통보하지 않았지만, 올해 회비를 내지 않기로 결정하는 등 사실상 활동을 접었다. 세계는 현대차도 조만간 공식적으로 탈퇴 의사를 밝힐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전경련 전체 연간회비 492억 원 가운데 절반 이상을 부담해 온 4대 그룹의 잇따른 탈퇴로 전경련의 해체 작업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주요 회원사의 이탈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30대 그룹 가운데 OCI가 탈퇴 의사를 밝혔으며, CJ그룹·LS그룹·교보그룹·한화그룹·미래에셋그룹 등도 탈퇴를 고려 중이다.

전경련은 차기 회장 선임을 통한 쇄신 작업을 이어갈 것이라는 입장을 이어가고 있다. 오는 17일과 24일 이사회와 정기총회를 차례로 개최할 예정이다. 전경련은 이 자리에서 후임 회장 후보를 알리고 정기총회 때 차기 회장을 추대할 계획이다. 다만 유력 후보로 거론됐던 인사들 대부분이 거부 의사를 밝히고 있어 차기 회장 선임에 난항을 겪고 있다.

재계 한 관계자는 “회장 후보도 내세우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기총회가 제대로 열릴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후임 회장을 내세우지 못할 경우, 전경련도 사실상 해체 수순을 밟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문선영 기자 moon@

# 쉐보레, 전국 최우수 판매왕 시상식 개최

2016 판매우수 카매니저 시상식



한국지엠 쉐보레는 15일 저녁 남산 인근 호텔에서 ‘2016년 쉐보레 최우수 판매왕 시상식’을 개최하고, 사상 최대 내수판매 실적 달성에 공헌한 89명의 최우수 카매니저를 선정해 시상했다. 최우수 판매왕은 전국에서 가장 많은 402대를 판매한 복인천 대리점 양승호 차기 차지했다. 제임스 김 한국지엠 사장(가운데), 데일 설리번 영업·A/S·마케팅부문 부사장(가장 오른쪽)을 비롯한 카매니저들이 함께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사진제공 한국지엠

# 롯데 다음주 조직개편... ‘후의 남자’ 거취는

〈신동빈 회장〉

황각규, 경영혁신실장 선임 유력  
소진세, 준법경영위원장 등 거론  
‘2인자’ 역할 부담 위기극복 노력



황각규 사장 소진세 사장

롯데그룹의 대대적인 조직개편과 임원인사가 다음 주 단행된다. 신동빈 회장 체제의 핵심 실세인 황각규 사장(정책본부 운영실장)이 그룹의 컨트롤타워인 경영혁신실장(사장) 선임이 유력해 롯데그룹 2인자의 자리에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경쟁을 펼쳤던 소진세 사장(정책본부 대외협력단장)은 신 회장의 경영이념을 실천하는 중추조직인 준법경영위원회 위원장이나 사회공헌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될 것으로 전망된다.

15일 롯데그룹 관계자들에 따르면 21일 롯데제과, 롯데케미칼 등 화학 식품 계열사 이사회를 시작으로 22, 23일 유통과 서비스 계열사의 이사회가 연달아 개최될 예정이다. 롯데그룹 관계자들은

소 사장의 이러한 역할 분담은 신동빈 회장의 경영권 분쟁, 검찰수사, 경쟁력 강화와 성장 주도 등 롯데그룹 내외적인 문제를 주도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풀이했다.

롯데그룹 관계자들은 “황각규 사장은 뛰어난 기획과 추진력을 보였고, 소진세 사장은 폭넓은 인맥을 바탕으로 내외적인 폭넓은 인맥과 소통을 주도해 롯데그룹을 이끌 적임자”라고 입을 모은다.

다음 주 단행될 것으로 보이는 롯데그룹의 조직개편은 정책본부 조직이 경영기획실로 개편되면 7개 실에서 4개 실로 재편되며, 인원도 250명에서 150명 안팎으로 40% 정도 감축된다. 또 계열사 역시 유통, 화학, 식품, 서비스 등 4개 사업군(비즈니스 유닛BU)으로 정리된다. 각 4개 BU책임자는 각 사업군의 대표 계열사인 롯데쇼핑, 롯데케미칼, 롯데제과, 호텔롯데 대표가 겸임할 가능성이 크다.

이꽃들 기자 flowerslee@

# 쌍용차 적자 탈출... 일등공신은 ‘티볼리’

지난해 순익 581억... 9년 만에 흑자  
15만5844대 팔아 '역대 최대' 매출  
티볼리 8만여 대... 판매량 55% 견인



쌍용자동차 ‘티볼리’. 사진제공 쌍용차

쌍용자동차가 2007년 이후 9년 만에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

쌍용차는 지난해 총 15만5844대를 판매해 매출 3조6285억 원, 영업이익 280억 원, 당기 순이익 581억 원을 기록했다. 16일 밝혔다. 이로써 쌍용차는 14년 만에 연간 최대판매 실적을 달성, 2007년 이후 9년 만에 흑자로 전환했다.

전년보다 7.7% 확대된 판매량은 2002년 이후 최대치다. 매출 또한 같은 기간 7% 증가하면서 청사 이래 역대 최대 매출 실적을 기록했다. 특히 티볼리 브랜드는 지난해 총 8만5822대가 판매되어 쌍용차의 제도약을 견인했다.

지난해 4분기 판매 성장도 눈부셨다. 지난해 12월, 티볼리의 해외 판매는

9000대를 넘어서며 청사 이래 첫 분기 1조 원 매출을 기록했다. 4분기 판매와 매출은 각각 전년 동기 대비 8%, 2.7% 증가했다. 분기 순익도 지난해 최대 실적인 194억 원의 당기 순이익을 기록했다. 순익 역시 5분기 연속 당기 순이익 흑자를 실현하면서 연간으로도 흑자 전환됐다.

쌍용차는 올해 대형 프리미엄 SUV인 ‘Y400’을 출시해 제품 라인업 확대하고, 흑자 기조를 이어나갈 계획이다.

양용비 기자 dragonfly@

# “상법개정안, 외국서도 찾기 힘든 희귀법안”

한경연 긴급좌담회... 前 법학회장 등 법학계도 반대 목소리

“상법은 기업을 옥죄는 법이 아닙니다. 체계에 맞지 않은 법 개정이 이뤄진다면, 국제적인 웃음거리가 될 겁니다.”

상법·기업법학회장을 역임한 전문가들이 상법개정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나섰다.

한국경제연구원원이 15일 서울 여의도 한국경제연구원에서 개최한 ‘상법개정안의 쟁점과 문제점: 전(前) 상법 학회장에 듣는다’ 좌담회에서 이들은 “국회에서 논의 중인 상법개정안은 외국에서도 입법례를 찾기도 힘든 희귀한 법안”이라며 상법 개정안 쟁점과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날 좌담회에는 최완진 전 상사법학회장과 김선전 전 상사판례학회 회장, 송중준 전 기업법학회 회장, 최준선 전 상사법학회 회장이 참석했다. 이들은 상법 개정안에 대해 “정지권이 인기 영합주

의에 매몰돼 내용은 입법정책으로 충분한 토의나 적용 대상인 기업의 공감대 없이 경솔하게 통과시켜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특히 감사위원 분리 선임과 대주주의 결권 3% 제한과 관련해 강도 높은 비난을 쏟아냈다. 김선전 전 상사판례학회장은 “상법 개정안에 담긴 소수주주의 감사위원 선임은 경영 투명성보다 경영 분장만 부추길 가능성이 크다”며 “기업지배구조나 회계 투명성을 높이는 게 단지 소수주주 감사를 위원을 선임하는 외형적 틀을 갖춘다고 해결되지는 않는다”고 지적했다. 최준선 전 상사법학회장은 “임원을 선임할 합당한 자격이 있는 자는 출자를 한 자로, 이 원칙을 파괴하는 것은 자유시장질서를 파괴해 자본주의를 버리고 사회주의로 전환하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문선영 기자 moon@

# “한화토탈 가족 여러분, 최대 실적 감사드립니다”

작년 영업이익 1조4000억... 그룹 창립 이후 계열사 최대  
김희철 대표, 경영설명회서 임직원들에 감사 인사 전해

“지난해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각자의 자리에서 노력해 준 임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16일 한화토탈에 따르면, 김희철(사진) 한화토탈 대표는 최근 충남 서산시에 있는 대산공장 대강당에서 열린 ‘2017 경영설명회’에서 지난해 최대 실적 성과를 만든 임직원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다. 한화토탈은 지난해 1조4000억 원



김희철 대표

안팎의 영업이익을 거둔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한화토탈 창립 이래 최고 실적이자, 한화그룹 창립 이후 계열사 중 실적으로

톱 품에 안긴 이후 매년 초 대산공장을 찾아 임직원들과 지난해 성과를 검토하고, 올해의 시황과 목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경영설명회’를 진행해왔다. 특히 올해 경영설명회는 창립 이래 최고 실적을 기록한 뒤 진행된 분위기가 더욱 화기애애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김 대표는 감사 인사 후 올해 석유화학 산업 전망과 한화토탈의 비전에 대해 밝

혔다. 그는 지난해 12월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무역의 날’ 행사에서 올해 석유화학 시황에 대해 지난해보다 침체될 것이라고 예상한 바 있다. 이날 김 대표는 임직원들에게 “올해는 다양한 정치적 이슈가 맞물려 불확실한 대외 환경에 처해 있다”며 “외풍에 흔들리지 않는 내부 경쟁력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오예린 기자 yerin2837@

# 이맘때쯤 치아용품 엄청 팔린다는데...

설 이후 치과 내원환자 10% 늘어  
혀클리너 판매 설 전보다 6배  
치실·구강청결제 등도 많이 찾아

설 연휴 동안 구강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치아 명절 후유증'에 시달리는 이들이 늘며 '치아관리 용품'이 특수를 누리고 있다.

연휴기간에는 한과, 약과, 술 등 당분이 많거나 기름진 음식을 즐긴 후 바로 잠들어 잇몸이 붓거나 염증, 치통 등의 통증이 생길 수 있다. 최근 일산에 있는 한 병원에 따르면, 지난해 설 연휴 이후 2주간 갑작스럽게 치과를 내원한 환자(272명)를 조사한 결과, 설 연휴 전 주환자 수(246명)에 비해 약 1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오픈마켓 옥션에 따르면, 설 연휴 직후인 최근 한 주(1월 31~2월 6일) 동안 치아관리 용품들을 찾는 이가 전 주 같은 기간보다 최대 17배 급증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연제, 어디서든 구강건강을 챙길 수 있는 제품들에 대한 판매율이 높았다. 혀 돌기 사이에 달라붙은 박테리아를 제거해주는 '혀클리너'는 같은 기간 전 주 대비 6배(556%)로 가장 높은 판매율을 기록했다. 가지고 다니면서 양치할 수 있는 '치약·치솔 휴대용세트'도 3배(224%) 올랐고, 치아 사이의 이물질이나 프라그를 깨끗이 제거하는 데 효과적인 '치간치솔'도 3배(247%) 상승했다.



왼쪽부터 자일리톨 가루, 구강세정기, 혀클리너.

양치 후 추가적으로 관리해주면 충치 예방에 도움을 주는 '구강청결제·가글(114%)과 치실(173%)도 모두 2배씩 치솟았고, 잇몸과 치아를 골고루 마사지해주며 세정해주는 '휴대용 구강세정기(338%)도 4배 이상 상승했다.

기능성 치약 제품을 찾는 이들도 늘었다. 피로하거나 잇몸 상태가 좋지 않을 때 찾게 되는 '시린이지약'은 17배(1661%) 증가했고, 구취제거 치약도 2배(144%) 상승했다. 잇몸케어 치약(66%)도 오름세를 기록했다.

건강한 백세시대의 주요 조건으로 '건강'의 중요성이 대두하자 같은 기간 치아관리 용품에 대한 수요도 커졌다. 극세모로 잇몸은 자극하지 않되 치아 틈새까지 관리해주는 '미세모 칫솔'도 2배(118%) 신장했고, 치실도 95% 올랐다. 가정용 구강세정기(76%)와 구강청결제·가글(40%)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두 자릿수 증가했다.

또 건치국가 핀란드의 치아건강 비결로 '자일리톨 가루'가 최근 들어 방송에 소개되면서 자일리톨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추세다. 실제 옥션에서는 '자일리톨 가루'가 인기검색어 상위권에 올라 있다.

옥션 인기 상품인 위터픽의 '플레타늄 위터픽 구강세정기(13만1010원)'는 10단계의 세밀한 수압 조절이 가능하며, 강한 맥동 수압으로 잇몸을 마사지해준다. 한우리약조의 '자일리톨 가루(600g·1만890원)'는 어떤 것도 첨가하지 않은 100% 핀란드산이며, 구강 내의 충치 유발균 활동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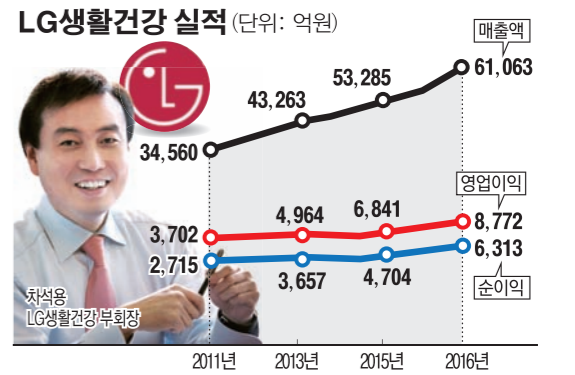
옥션 관계자는 "설 연휴에는 야식, 음주 등 치아와 잇몸에 자극적인 음식을 섭취하는 경우가 많아 치주 질환들이 심해지는 경향이 있다"며 "명절 직후 치아관리 용품이 특수를 누리며 관련 제품을 찾는 이가 급증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꽃들 기자 flowerslee@

# 손대는 것마다 히트다 히트! 차석용 매직 비결은 '고급화'

〈LG생활건강 부회장〉

LG생건 작년 매출 사상 첫 6조 돌파  
영업익은 29%↑... 화장품서 5781억  
화장품 매장 '네이처컬렉션' 전환 가속

방부제 뺀 섬유유연제 '아우라' 론칭  
유기농 반려견 사료 '시리우스월' 출시



지난 12년간 LG생활건강의 실적 성장을 이끈 차석용 부회장의 경영 전략이 주목을 받고 있다. 업계에서 '차석용 매직'으로도 통하는 그의 경영 비결은 사업 포트폴리오의 '프리미엄화'다. 차 부회장의 이러한 경영 전략을 밑바탕으로 LG생활건강은 최근 다양한 프리미엄 제품을 내놓고 있다.

LG생활건강은 14일 명품 향수의 한처럼 고급스러운 향기를 그대로 담은 프리미엄 섬유유연제 브랜드 '아우라'를 새롭게 론칭했다. 최근 섬유유연제 구매 시 향이 가장 중요한 선택 기준으로 부상하면서 향수 같은 생활용품을 기화하게 된 것. 아우라는 11종의 방부제를 배제하고 피부 비자극 테스트를 완료해 예민한 피부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다.

LG생활건강이 이에 앞서 4000억 원대로 추산되는 반려견 사료 시장에 뛰어든 것도 눈길을 끈다. LG생활건강은 작년 8월 펫 케어 제품을 출시한 데 이어 이달 초 프리미엄 유기농 브랜드 '시리우스월'을 출시해 '시리우스월'을 중합 펫 케어 브랜드로 발돋움시켰다. 시리우스월은 농약과 인공 향료는 물론 부속물을 배제한 순수 정육만을 사용하는 등 유기농 원료 비율이 95%에 달한다.

주력 사업 부문인 화장품 분야에서도 차석용 부회장은 프리미엄 전략을 구사한다. 테페이스샵과 보뎀 매장을 중심으로 네이처 컬렉션을 확대하기로 한 것이 대표적이다. LG생활건강은 브랜드숍 시장

의 경쟁 심화와 테페이스샵의 부진으로 지난해 2월 자연주의 브랜드 편집숍인 네이처 컬렉션을 선보였다. 지난해 말 기준 96개 매장을 운영 중이며, 해외에서도 기존 테페이스샵 매장을 네이처 컬렉션으로 전환하며 매장 운영 효율화를 진행하고 있다.

LG생활건강은 차 부회장의 이러한 프리미엄 전략이 시장에 먹혀들면서 사상 최대 실적을 구가하고 있다. LG생활건강은 지난해 8809억 원의 영업이익을 거두며 전년 대비 28.8% 성장했다. 매출은 6조941억 원을 기록해 사상 처음 6조 원 고지를 넘어섰다.

사상 최대 성적표 이면에는 고고도미사일체계(사드·THAAD) 약제에도 전략적으로 육성한 럭셔리 화장품의 성공이 밑바탕이 됐다. 화장품 부문은 영업이익만 5781억 원으로 전년 대비 42.9% 급증한 것이 이를 입증한다. LG생활건강은 중국에서 럭셔리 브랜드 확장은 물론 최고급 백화점 입점 확대를 지속해 현재 '후' 158개, '숨' 15개 매장을 운영하고 있다.

한편 LG생활건강은 올해 경영계획으로 매출 6조5200억 원, 영업이익 9540억 원을 제시하며 사상 최대 행보가 이어질 것을 예고했다. 증권업계에 예측한 LG생활건강의 컨센서스(시장 평균 전망치)는 매출 6조6344억 원, 영업이익 9787억 원으로 유사해 실적 달성의 기대를 높이고 있다.

조남호 기자 spdran@

Time is our tradition.

GROVANA  
Swiss Made Since 1924

SPECIALTIES  
1728.9552

KOI COMPANY Co., Ltd 02)6403-2112 www.grovana.co.kr

롯데백화점 본점 02)772-3908 롯데백화점 영등포점 02)2164-6191 롯데백화점 안양점 031)463-2189 롯데백화점 서울역점 02)6965-2637 롯데백화점 광명점 02)6226-2142 롯데백화점 광고점 031)8064-2168 롯데백화점 부여점 041)435-2608 현대시티아웃렛 동대문점 02)2283-2118 현대시티아웃렛 용산점 02)2012-4146 AK플라자백화점 수원점 031)240-1137 신세계백화점 충정점 041)640-5081 이타일월드 02)313-4108 타임갤러리 070)8265-5528 이노아이 02)6002-6123 시계상사 031)441-0802 사본워치 031)463-9788 타임24 031)931-5555 WB(워치보이) 070)8632-5300 퍼크타임 031)506-3886 타임컬렉션 031)575-1866 패션이탈랜드(에진) 042)280-9117 복외치 043)223-1333 명성시계 051)253-5354

[면세점] 갤러리아면세점 63점 02)2136-2646 두타면세점 02)3399-9372 통화면세점 02)1689-6680 신세계면세점 명동점 02)6370-4072 신라면세점 서울점 02)2230-3997 제주관광공사 지정면세점 064)780-7869 SM면세점 서울점 02)2120-6027

시리우스월

후

아우라

# 패션업체 온라인 '이커머스 플랫폼' 진화

MCM 'M5' 선보이며 옴니채널 강화  
세정 O2O 쇼핑몰 '더혹' 안정 궤도에  
신원도 온·오프 연계 쇼핑몰 5월 오픈

패션 업체들이 자사 온라인몰을 중심으로 O2O, 옴니채널 등을 강화하며 이커머스 플랫폼으로 진화하고 있다.

1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신원은 오는 5월 O2O 쇼핑몰을 오픈한다. 신원은 자사 온라인 쇼핑몰을 O2O 플랫폼으로 개발해 이커머스 시장 진출을 본격화한다. 신원은 현재 쇼핑몰 명칭을 공모 중이며, 오는 5월 앱과 웹·모바일 등 다양한 포맷으로 선보일 예정이다. 신원은 향후 브랜드 대리점에서 상품 발송, 매장 픽업 등 O2O 서비스를 적용해 본사와 매장 간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MCM은 일찌감치 O2O 서비스 'M5'를 선보였다. M5 서비스는 MCM이 럭셔리 업계 처음으로 선보인 옴니채널 서비스로, 5개 숫자를 M5 앱이나 MCM 직영몰 웹사이트, 혹은 매장 내 키오스크에 입력해 프로모션, 상품 정보 등의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다.

세정그룹 역시 지난해 10월 라이프스타일 O2O 쇼핑몰 '더혹'을 오픈했다. 더혹은 '라이프스타일

O2O 쇼핑 플랫폼'이란 콘셉트로, 온라인 쇼핑 증가와 모바일 라이프 트렌드에 따라 온·오프라인을 넘나드는 3545세대 남녀 라이프스타일에 맞췄다.

최근 세정에서 전개하는 패션, 잡화 브랜드와 더불어 국내외 신진 브랜드 120여 개가 입점, 총 4만 8000여 개의 아이템을 선보이고 있다. 상품은 트렌디한 패션의류를 중심으로 액세서리, 잡화, 슈즈, 리빙, 오피스 아이템 등 라이프스타일 패턴에 따른 다양한 카테고리 구성되어 있다.

특히 더혹은 크게 O2O 쇼핑 환경 최적화와 기존 오프라인 매장 점주와의 상생에 포인트를 두고 있다. 온라인 주문 상품에 한해 전국의 매장에서 반품 및 수선 접수가 가능하다. 상품을 빨리 받고자 하는 고객은 재고가 있는 근거리 매장을 통해 당일 배송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최근 더혹은 오픈 4개월 차에 들어서며 안정화 단계를 거치고 있다. 특히 기존 오프라인 매장 점주와의 상생에 포인트를 두는 만큼 브랜드 대리점에서 매장 발송, 매장 픽업 등 O2O 시스템에 대한 빠른 적응과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다. 더혹 온라인 전체 주문 중 매장을 거쳐서 발생하는 O2O 매출이 약 40%를 차지할 정도다. 이처럼 세정은 더혹의 O2O 기능을 통해 자사 브랜드의 온라인 채널을 강화하고, 기존 오프라인 매장으로 고객을 유입, 수익을 창출하는 'O2O 상생 플랫폼'을 실현한다는 전략이다. 이꽃들 기자 flowerslee@

우리나라 첫 은행  
since 1899

우리은행

# 위비아~ 움짤을 부탁해

# 위비빅캐

위비멤버스&위비톡 가입고객 300만 돌파

하나, 둘, 셋  
위비~!



우리은행 민영화 성공  
고객님의 응원에 감사드립니다

## EVERYDAY! 달콤한 금융생활플랫폼



**위비뱅크**

공인인증서 없이  
송금부터 대출, 환전까지!  
편리한 모바일 전문은행



**위비톡**

귓속말, 평메시지, 게임,  
여행, 맛집정보 등  
즐거움 가득! 모바일 메신저



**위비멤버스**

우리은행, 우리카드  
포인트를 현금처럼!  
통합멤버십 서비스



**위비마켓**

우수중소기업 상품에  
여행, 금융, 보험까지!  
착한가격의 모바일 오픈마켓



**위비캠**

보정, 필터, 스티커, 움짤,  
뮤직피쳐링까지!  
위비톡 전용 셀카 APP

# ‘汎서울’ 지축·감일·고등에 7000가구

〈고양〉 〈하남〉 〈성남〉

고양 삼송지구도 올해 마무리  
상한제 적용 대상 분양가 저렴해  
스타필드 고양·이케이 등 호재도  
삼송 3차 아이파크 2월 시작으로  
성남 고등 ‘호반베르디움’ 등 공급

서울에 인접해 있는 경기도 고양시 삼송·지축, 하남시 감일, 성남시 고등 택지지구 등이 새로운 주거지로 각광받고 있다. 삼송지구는 택지지구가 완성돼 이미 생활편의시설 등이 잘 갖춰진 곳으로 올해 분양이 거의 끝났고, 지축과 고등지구는 첫 분양이다.

16일 부동산인포에 따르면 올해 삼송, 지축, 감일, 고등지구 등 서울 인접 택지지구에서 7182가구가 분양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역별로는 고양 삼송지구 838가구(3곳), 고양 지축지구 2510가구(3곳), 하남 감일지구 2497가구(3곳), 성남 고등지구 1346가구(2곳) 등이다.

이들 지역은 모두 과거 보급자리지구로 불렸던 택지지구다. 이명박 정부가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를 풀어 지정했던 곳인데, 서울의 외연적 확산 방지와 녹지를 보존하기 위한 곳인 만큼 지리적·자연적 환경이 좋다. 분양가상한제

올해 삼송·지축·감일·고등 택지지구 분양 물량 \* 상기 내용은 건설사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출처: 부동산인포

구분	위치	단지명	전용면적(㎡)	총가구 수	분양시기	시공사
고양시 삼송지구	M3블록	삼송 3차 아이파크	84	162	2월	아이앤콘스
	M2블록	고양 삼송 2차 동원로알두크	59~84	312	4월	동원개발
	M4블록	고양 삼송지구 M4블록(가칭)	60이하	364	4월	현대 BS&C
	B3블록	고양 지축 반도유보라	60~85	549	6월	반도건설
고양시 지축지구	B4블록	고양 지축 푸르지오	78~84	852	6월	대우건설
	B2블록	한림플레이어	미정	1100	상반기	한림건설
성남시 고등지구	S2블록	성남 고등 호반베르디움	84	768	5월	호반건설
	S1블록	성남 고등지구 제일풍경채	60~85	578	5월	제일건설
	C3블록	하남감일지구 C3블록 컨소시움	85초과	684	9월	대우건설, 태영건설, 포스코건설, 현대건설
하남시 감일지구	C2블록	하남감일지구 C2블록 컨소시움	85초과	881	9월	대우건설, 태영건설, 포스코건설, 현대건설
	B6블록	하남감일지구 B6블록 컨소시움	60~85	932	10월	대우건설, 태영건설, 포스코건설, 현대건설

가 적용돼 분양가가 저렴한 것도 강점이다. 이런 장점에 이제까지의 분양 성적은 나쁘지 않다. 서울 마포구 삼양동 건나편의 고양 향동지구에서 지난해 7월 분양한 ‘향동 호반베르디움’은 1542가구 모집에 총 3만7613건이 접수돼 1순위 청약 접수 결과 24.3대 1을 기록했다.

집값 상승률도 높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삼송지구 내 아파트 값은 3년 전인 2014년 말 3.3㎡당 1185만 원에서 올해 1월 말 1478만 원으로 300만 원가량 치솟았다.

이들 지역은 호재도 많다. 서울 은평뉴타운과 인접한 삼송지구에는 ‘스타필드 고양’이 올해 상반기 오픈한다. 스타필드 고양은 연면적 36만4000㎡ 규모로 쇼핑·레저·관광·식도락·유희 등이 가능한 복합형 쇼핑공간이다. 인근 원흥

지구에는 ‘이케이(2호점)’도 개관할 예정이다. 507만11㎡ 규모의 삼송지구는 2007년부터 순차적으로 분양됐으며, 올해는 현대산업개발 계열사인 아이앤콘스가 M3블록에서 ‘삼송 3차 아이파크’를 2월 분양한다. 인근 119만㎡ 규모의 고양 지축지구에서도 대우건설이 B4블록에서 전용면적 78~84㎡ 852가구 ‘고양 지축 푸르지오’를 6월 선보일 예정이다.

성남 고등지구(56만9000㎡)에서는 호반건설이 첫 분양에 나선다. 호반건설은 S2블록에서 ‘성남 고등 호반베르디움’ 전용면적 84㎡ 768가구를 공급한다. 하남시 감일지구(170만8312㎡)는 9·10월에 대우건설·태영건설·포스코건설·현대건설 컨소시움이 C3·C2·B6블록에서 2497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구성현 기자 carlove@

# ‘광명12R’ 수의계약... GS건설 유력

시공사 입찰 세 차례 모두 유찰... 2102가구 브랜드 단지로 탈바꿈 기대

시공사 찾기에 난항을 겪어 온 광명뉴타운 12R 구역이 결국 3번째 입찰마저 유찰되면서 수의계약 방식으로 전환해 시공사를 결정하게 됐다. 이곳의 사업에 눈독을 들여온 GS건설이 수의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광명뉴타운 전 구역의 시공사 선정 작업도 모두 마무리된다.

16일 광명12R구역 주택재개발사업조합에 따르면 14일 이사회 회의를 열고 일반경쟁 입찰이 아닌 수의계약 방식으로 시공사 찾기에 나서는 방식을 논의했다. 조합은 오는 24일 열리는 대의원회의에서 이를 결정해 총회에 인준을 넘길 예정이다.

광명12R구역은 지난 10월부터 시공사 선정에 돌입했다. 1차에서는 대우건설, GS건설, 현대산업개발 등 대형건설사 3곳이 현장설명회에 참여하며 관심을 드러냈다. 그러나 GS건설만 입찰에 참여하면서 유효경쟁 조건이 성립되지 않아 유찰됐다. 이어 지난해 12월에 열린 두 번째 현장설명회에는 1차 때보다 많은 7개 회사가 눈독을 들어 무난하게 입찰이 마무리될 것 같았지만, 입찰에 나선 곳은 역시 GS건설뿐이었다. 지난달 열린 현장설명회와 입찰에서도 같은 상황이 반복됐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광명 12R구역은 GS건설

이 1년 전부터 물밑작업을 해 온 곳여서 도시정비 수주 열기에도 건설사들 사이에서 굳이 우리가 들러러 설 필요가 없다는 인식이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결국 이 구역은 지속적인 관리를 해오며 3번 모두 입찰에 들어온 GS건설이 경쟁 없이 시공권을 따낼 가능성이 커졌다. GS건설이 이곳의 시공권을 따내면 12R구역은 2102가구의 대규모 브랜드 단지로 탈바꿈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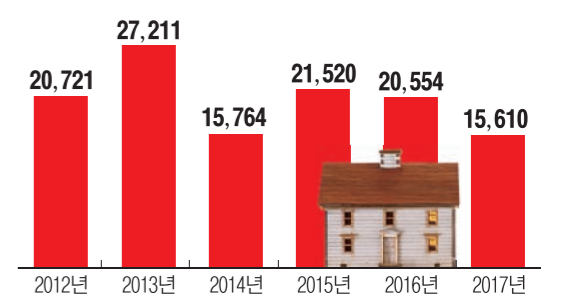
12R구역의 시공사 선정작업이 마무리되면 광명뉴타운 전체 시공사 선정 작업도 모두 마무리된다. 광명뉴타운은 경기 지역 대표적 재개발 사업지로 1R구역은 GS건설·한화건설·포스코건설이 맡았다. 그 밖에 △2R구역 대우건설·롯데건설·현대엔지니어링 △4R구역 현대산업개발 △5R구역 GS건설·SK건설·현대건설 △9R구역 롯데건설 △10R구역 호반건설 △11R구역 현대건설·현대산업개발 △14R구역 대우건설·한화건설 △15R구역 대우건설 △16R구역 GS건설·두산건설 등이 사업을 진행한다. 사업이 가장 빠르게 진행되는 곳은 16R구역으로 오는 3월까지 이주를 진행한다.

김동호 기자 sorahosi@

# ‘박원순표’ 임대주택, 올해도 1만5610가구

최근 5년간 10만5770가구 26만 명 수혜  
‘건설형’ 고덕강일·정릉 등 5390가구 공급

서울 공공임대주택 공급 현황 (단위: 가구)



서울시가 올해 고덕강일지구, 정릉지구 등 공공 임대주택 1만5000여 가구를 공급한다. 전체 주택에서 공공임대주택이 차지하는 비율을 OECD 평균 수준인 8%에 근접하게 끌어 올린다는 목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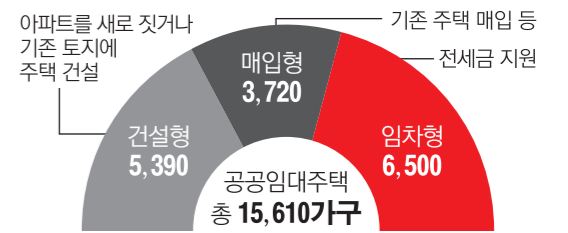
서울시는 15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17년 공공임대주택 공급 계획’을 발표했다. 최근 5년간 공공임대주택 공급량은 총 10만5770가구에 달한다. 평균 가구원 수 2.5명을 적용해 보면 용산구 인구(24만 명)보다 많은 약 26만 명이 공공임대주택 입주 수혜를 받았거나, 받게 되는 셈이다.

올해는 총 1만5610가구를 내놓는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아파트를 새로 짓거나 기존 토지에 주택을 새로 올리는 ‘건설형’이 5390가구, 기존 주택을 매입하는 등의 ‘매입형’이 3720가구, 전세금을 지원하는 ‘임차형’이 6500가구다.

건설형은 고덕강일지구 7개 단지 4935가구, 정릉지구 170가구, 오류동 행복주택 180가구 등으로 이뤄진다. 고덕강일지구는 용적률·건폐율·높이 제한 등을 완화한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해 우수한 디자인을 입힌다. 임대주택은 열악한 것이라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주민편의시설이 꼼꼼하게 채워진다.

재난위험시설을 재정비해 공공임대로 내놓는 사례도 처음으로 등장한다. 1969년에 지어져 수년 전 재난위험시설(D·E급)로 분류된 정릉 공공주택 지구가 대상으로 옛 정릉 스키아파트를 철거한

2017년 서울시 공급계획 (단위: 가구)



사업지가 대상이다. 이곳에선 170가구가 나온다. 이 외 건설형으로는 오류동행복주택 180가구, 세곡 6블록 90가구, 성북 연곡인2호 151가구가 계획됐다.

정우승 주택건축국장은 “임대주택 공급이 최근 5년간 비약적으로 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주거 취약계층 입주자 각각의 요구에 맞는 주택에서 살 수 있도록 수요자 맞춤형을 확대하고, 주민 커뮤니티 시설 설치에도 최선을 다해 과거 기피 대상에서 살고 싶은 공공임대주택으로 만들고, 양적 확충 시대를 넘어 질적 확충 시대로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이선애 기자 isa@

# “SOC투자 예산, 향후 5년간 47조 부족 전망”

전산연, 신설 줄고 개량·재투자 수요 늘어

앞으로 5년 동안 국내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예산이 최대 47조 원가량 부족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건설연)은 15일 경제성장률과 재투자비용을 감안해 적정 SOC 투자 규모를 추정해 본 결과, 우리나라 SOC투자 예산이 향후 5년(2016~2020년)간 약 22조2000억~47조2000억 원 부족할 것으로 예측했다고 밝혔다.

박수진 건설연 연구위원은 “196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건설된 SOC 평균 수명 주기(약 40~50년)가 도래하면서 안전과 재투자 수요가 급증하기 시작해 향후 우리나라 SOC투자는 신설 투자 비중이 점차 감소하고, 재투자 및 개량 위주로 재편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이어 “투자 규모와 실제투자액을 비교해 보면 1970년부터 2000년대 중반까지도 투자가 지속적으로 부족해 2020년대부터는 재투자 지출이 급증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재투자 비용 규모는 올해부터 향후 10년 동안 연간 약 5조3000억 원(총 53조 원), 이후 10년 동안 연간 약 11조8000억 원(총 118조 원)이 될 전망이다. 그

후 10년 동안에는 연간 약 30조 원(총 300조 원) 등 급격한 증가 추세를 보일 것으로 추정했다.

우리나라보다 먼저 SOC를 건설한 미국은 지속적으로 시설물 평균등급이 하락했지만, 개량과 투자에 필요한 예산(2013년 기준, 2016~2020년 5년간 약 3조3000억 달러 추정)을 확보하지 못해 유지와 관리에 급급한 실정이다. 이에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향후 10년간 약 1조 달러에 달하는 대규모 인프라 투자 확대를 발표하기도 했다. 일본, EU 등도 각각 이미 확장적 재정정책 기조하에 SOC 투자 확대를 추진 중이다.

반면 우리 정부는 향후 5년 동안 SOC투자를 2016년 23조7000억 원에서 2020년 18조5000억 원으로 연평균 6%p씩 감축할 계획이다. 미국, 일본, EU 등 선진국과 대조적인 모습이다.

박 연구위원은 “고용 창출, 국민복지 증진, 소득 불평등 완화, 미래 경제성장률 제고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효율적인 SOC 투자 전략이 필요하다”며 재투자와 개량에 초점을 맞춘 시설물 안전과 성능진단, 개량계획 수립, 재원조달 등의 통합 프로세스를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동호 기자 sorahosi@

**피곤해도 함께하는  
멋있는 아빠가  
되어주세요**

**SMART 비타민을 더해  
더욱 강력해진 비맥스 골드**

비타민은 물론 아연과 비타민D까지!  
생체 이용률이 높고, 흡수 빠른 활성형 비타민 비맥스 골드로  
건강하게 빛나는 오늘을 경험하세요!

- 활성형비타민 **비타민E** 50mg
- 흡수율이 높고 건강에 효과 **비타민D** 1000 IU
- 아연의 보급 **산하아연** 30mg
- 피로해소를 위한 **비타민C** 200mg

**SMART** 기능성비타민제  
**비맥스** 정  
**골드** B-max Gold tab.

광고심의필 : 1289-1700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니 첨부된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꼭 읽고, 의사·약사와 상담하십시오.

한중제약

# 버핏의 '투자원칙 변경' 사실이였다

멍저 버크셔 부회장 “버핏, IT·항공주 계속 배우고 있다”  
애플 주식 1분기만에 4200만주 늘려... 항공주도 매입  
“낮은 나무에 매달린 열매를 따는 것도 예전만 못하다”

최근 이례적인 투자로 주목을 끌었던 워런 버핏(사진 왼쪽) 버크셔해서웨이 회장이 실제로 자신의 투자 원칙을 바꾼 것으로 확인됐다.  
수십 년간 버핏의 오른팔 역할을 해 온 찰리 멩거(오른쪽) 버크셔 부회장은 15일(현지시간) 로스앤젤레스(LA)에서 열린 데일리저널코프의 수요 연례 회의에서 “버핏이 정보기술(IT)주와 항공주 투자를 계속 배우고 있다”며 투자의 원칙을 바꿨다고 전했다.  
야후파이낸스에 따르면 이날 멩거 부회장은 투자자와 학생들을 앞에 두고 2시간에 걸쳐 광범위한 이슈에 대해 연설했다. 그는 “예전에 비해 투자 환경이

어려워졌다”고 했다. 그는 “버핏과 예전 이야기를 자주 한다”며 “투자를 사냥에 비유한다면 과거에는 사냥감이 오기를 천천히 기다리기만 하면 됐다. 그러나 지금은 그렇게 투자 환경이 녹록지 않다. 낮은 나무에 매달린 열매를 따는 것도 예전만 못하다”고 밝혔다.  
멍저 부회장은 언론들이 버크셔가 애플과 항공주를 대거 사들인 것을 보도한 것과 관련해 “나는 우리가 미쳤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우리는 훨씬 어려워진 환경에 적응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즉 시장이 빠르게 변화하는 만큼 버핏의 투자 원칙도 변해가고 있다는 의미다. 또 멩거는 오늘날의 투자는



가변적인 상황에 대처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재 시장에서 투자의 의미는 ‘끝’이 아닌 사람들이 선호하는 추이를 지켜보는 것”이라고 말했다. 동시에 “지금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온힘을 기울여야 한다”며 현재 투자 환경이 어렵다는 사실을 거듭 강조했다.  
버핏은 원래 자신이 잘 아는 업종에만 투자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때문에 버핏이 이끄는 버크셔의 포트폴리오는 금융, 유통, 철도 에너지 등이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버핏이 2011년 IBM 주식을 대거 사들이면서 IT 투자에 발을 담그기 시작했다. 당시까지도 버핏은 애플에 대해서는

부정적이었다. 이후 버핏은 지난해 1분기에 애플 주식을 대거 사들이며 방향 전환을 분명히 했다. 지난 4분기에는 애플 주식을 전 분기의 1500만 주에서 5700만 주까지 늘렸다. 1분기 만에 약 4배가 늘어난 셈이다. 늘어난 애플의 주식을 액수로 환산하면 약 66억4000만 달러(약 7조5563억2000만 원)에 달한다. 버핏의 투자는 이번에도 성공적이었다. 애플의 주가는 지난 12개월간 42% 뛰었다. 14일 135.02달러로 모도 증가 기준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웠고, 15일에 0.36% 더 올라 주당 135.51을 기록하며 최고치를 다시 경신했다.  
버핏은 항공주도 다시 사들였다. 그는 과거 항공주 투자에 실패한 트라우마 때문에 그동안 항공주와는 거리를 뒀었다. 1989년 US에어웨이 주식을 사들였다가 약 8900만 달러의 손해를 봤다. 이후에도 여러 번 항공주 투자에 실패했다. 항공주 보유 지분을 늘린 것이 이목 을 끈 이유다. 이진민 기자 aaaa3469@

# 트럼프 '국경조정세' 강행하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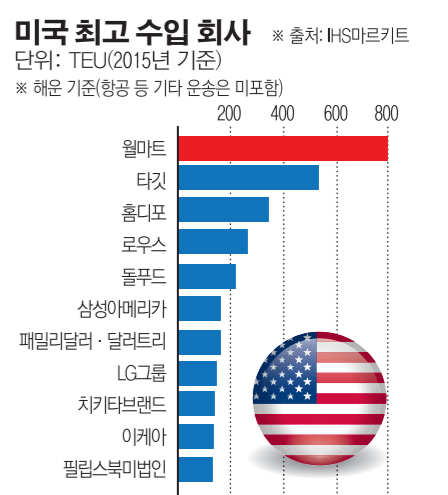
백악관서 소매기업 CEO 만나  
“조만간 세계 개혁안 제출할 것”  
CEO들은 '국경세' 반대 표명  
교역국간 통상전쟁 서막 예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국경조정세 도입을 결국 강행할 것인가. 트럼프 대통령이 15일(현지시간) 미국 유통업계 수장들과의 회동에서 조만간 세계 개혁안을 내놓을 것이라고 밝히면서 국경조정세 도입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타깃, 베스트바이, JC페니 등 8개 주요 소매 유통기업 최고경영자(CEO)들과 조찬 회동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조만간 경기 부양 차원의 세계 개혁안을 내놓을 뜻을 밝혔다. 이날 모인 CEO들은 세계 개혁안에는 지지 의사를 밝혔으나 국경조정세 도입에는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이들 소매기업은 국경조정세가 미국 내 소비자 가격 상승만 부추기는 꼴이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여당인 공화당은 국경조정세를 포함해 미국 내 기업의 세금 부담을 전반적으로 낮춰주는 세계 개혁안을 추진 중이다. 법인세가 낮아진다는 점에서 기업들은 환영하고 있지만 국경조정세 부분에서는 수출기업과 수입기업 간의 의견이 엇갈린다. 국경조정세는 기업 제품이 판매되는 곳을 과세 기준으로 삼고 수출은 비과세하고 수입은 비용을 과표없이 공제해주지 않는다는 것이 골자다. 즉 미국에서 해외로 물건을 파는 기업일수록 과세 소득이 줄어들기 때문에 수출촉진형 세제라는 평가를 받는다.

이 때문에 미국에 법인을 두고 부품이나 완제품을 수입하는 대부분의 기업은 국경조정세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수입 상품이 대부분인 월마트 같은 유



통업체와 대표적 수출업체인 제너럴일렉트릭(GE) 같은 업체는 이해관계에 따라 나누어 찬·반 목소리를 내고 있다. GE와 보잉 등 미국 제조업 25개사는 이미 국경조정세 도입을 위한 로비에 들어갔다. 동종 업계에서도 국경조정세에 따라 희비가 엇갈릴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영국 바클레이스의 애널리스트 브라이언 존슨은 “국경조정세는 Ford 자동차에는 혜택을, 제너럴모터스(GM)에는 리스크를 가져다줄 것”이라고 말했다. GM의 경우 미국과 멕시코에서 미국 내수용 픽업트럭을 만들고 있으며 캐나다와 한국에서도 자동차를 제조해 미국으로 수입하고 있기 때문. 반면 포드는 미국 내수용 픽업트럭을 모두 미국에서 제조하고 있다. 또한 픽업트럭과 고급 브랜드 링컨을 각각 캐나다와 중국에 수출하고 있다.

하지만 무역 상대국들의 반발이 워낙 거세 국경조정세 도입에 대한 회의론도 만만치 않다. EU를 포함한 미국 교역 상대국들은 전날 미국이 국경조정세를 도입하면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U의 무역 정책을 총괄하는 이우르키 카타이넨 EU 집행위원회 부위원장은 “누군가가 EU의 이익이나 국제 무역 규정에 반하는 행동을 한다면 우리도 대응책이 있다”고 강조했다. 김나은 기자 better68@

# ‘버크셔A주’ 1주 가격 집 한채 값... 버핏, 왜 분할 안할까

주주를 사업 파트너로 여겨  
투기 방지·주가 안정성 유지



세계에서 가장 비싼 주식으로 '가치 투자'의 귀재 워런 버핏이 이끄는 버크셔해서웨이(이하 버크셔) A주 주가가 주당 25만 달러(약 2억8597만 원)를 넘어 사상 최고치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버크셔의 A주 주가는 15일(현지시간) 전일 대비 0.23% 오른 25만990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전날에도 1% 가까이 상승해 25만 달러를 넘어선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는데, 그 기록을 다시 경신한 것이다. 버크셔의 A주 한 주 가격은 버핏의 저택 중 방 4개짜리 집 한 채 값에

해당한다.  
버핏은 작년 11월 미국 대선 당시 민주당의 힐러리 클린턴 후보를 지지했다. 버핏이 지지했던 후보가 낙선했지만 버크셔의 A주는 고공행진했다. A주가 대선 이후 지금까지 약 13% 상승했다는 사실이 이를 뒷받침한다. 현재 버크셔의 기업 가치는 4120억 달러에 달한다. 애플, 알파벳, 마이크로소프트(MS)에 이어 시가 총액으로 4위다.  
버크셔의 A주는 세계에서 가장 비싼 주식으로 꼽힌다. A주 주식은 사도 싶어도 못 사는 사람이 많다. 애널리스트들도 자신이 충분한 고객에게만 버크셔의 A주 주식을 권할 정도다. 반면 B주 가격은 A주의 1500분의 1이다. 가격 차이가 나는 만큼 B주 의견결도 A주의 1만분의 1에 불과하다.  
버핏은 A주 가격이 주당 3억 원에 육박하고 있음에도 더 이상 액면 분할하지 않는다. 이유는 ‘명품 전략’ 때문이다. 버핏은 주주를 사업 파트너로 여겨 장기적으로 보유할 투자자만 끌어들이는 원칙을 고수한다. 투기를 방지하는 효과와

함께 주가의 안정성을 유지한다는 장점이 따라붙는다. 에드워드존슨의 집 사냥한 애널리스트는 “대부분의 사람은 25만 달러를 투자할 만한 여유가 없다”며 자신이 충분한 동시에 장기 보유할 수 있는 고객에게만 버크셔의 A주를 추천한다고 밝혔다. 2014년 기준으로 버핏은 버크셔의 A주 주식을 39% 소유했다.  
버크셔는 원래 1888년에 설립된 섬유 회사다. 1962년에 버핏은 버크셔가 매우 저평가돼 있다고 확신해 주식을 사들였다. 이후 1965년 버핏은 버크셔를 인수해 지주회사로 재탄생시켰다. 버핏은 버크셔의 주요 자금줄인 보험업, 투자업을 핵심으로 두고 사업 확대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진민 기자 aaaa3469@

# 이스라엘 총리 부인 맞은 멜라니아 트럼프



모델 출신의 미국 퍼스트 레이디 멜라니아 트럼프 여사(오른쪽)가 15일(현지시간) 정상 회담차 미국을 방문한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의 부인 사라 여사와 워싱턴에 있는 스미소니언박물관을 찾아 로니 번치 흑인역사문화박물관장으로 부터 설명을 듣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네타냐후 총리와 회담에서 이스라엘이 진행해온 정착촌 확장 건설 보류를 주문하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평화 공존 구상인 '2국가 해법'에 집착하지 않을 뜻을 분명히 했다. 워싱턴D.C./로이터연합뉴스



# 보호무역·반이민에 굴하지 않는 펩시코

인드라 누이 CEO “트럼프 통상외교, 우리 제품엔 영향 없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보호무역주의와 반이민정책에도 펩시코가 굴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세계 최대 음료·스낵업체 펩시코는 15일(현지시간) 실적 발표에서 트럼프가 취임했지만 전 세계 소비자들은 여전히 우리의 제품을 먹고 마신다며 전혀 영향을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미국 CNN머니가 보도했다.

인드라 누이 펩시코 최고경영자(CEO)는 실적 발표 후 애널리스트들과의 콘퍼런스콜에서 “정치적 행동이 우리의 제품 소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믿고 있다”며 “우리의 활동은 전혀 저조해지지 않았다”고 역설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이후 멕시코와 중국 일본 등 미국의 주요 무역 파트너들이 불공정한 관행을 일삼고 있다며 거친 말을 쏟아냈다.  
그러나 후 존스톤 펩시코 최고재무책임자(CFO)는 “최근 멕시코에 다녀왔다”며 “현재 상황은 매우 좋아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미국 기업이면서 멕시코 회사이고 중국 회사이며 인도, 러시아 회사이기도 하다”고 펩시코

가 세계화된 기업임을 거듭 강조했다. 그렇다고 해서 누이 CEO가 무작정 트럼프와 대립각을 세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존스톤 CFO는 “누이 CEO가 백악관 경제자문위원 중 한 사람으로 세계화와 해외사업 장점을 트럼프에게 설명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트럼프가 미국 대선에서 승리하고 나서 이어진 강달러는 다국적 기업인 펩시코에 부담을 주고 있다. 펩시코는 이날 실적 발표에서 지난해 4분기 순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18% 감소한 14억 달러(주당 97센트)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존스톤 CFO는 “달러화가 강세를 보인 것이 주원인”이라며 “이는 계속해서 우리의 도전과제로 남아 있다”고 말했다. 펩시코는 환율 영향을 제외하면 순이익이 15% 증가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같은 기간 매출은 5% 늘어난 195억 1500만 달러로 전년보다 5% 증가했다. 이는 월가 전망인 195억 1000만 달러를 소폭 웃돈 것이다. 핵심인 북미 판매가 8% 증가하면서 실적을 견인했다. 배준호 기자 baeh94@

# ‘해킹 몸살’ 이후, 결국 인터넷 사업부 몸값 낮춘다

버라이즌에 48억달러 매각 진행  
해킹사건 터지면서 인수 제검토  
3억 달러 낮춰 4월쯤 합의할 듯

개인정보 유출 대란을 겪은 야후가 핵심 사업인 인터넷 사업부 매각 가격을 결국 낮출 것으로 보인다. 14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야후는 미국 이동통신회사 버라이즌 커뮤니케이션스와 인터넷 사업부 매각 가격을 3억 달러(약 3411억 원) 낮추는 방안이 조만간 합의할 전망이다.

버라이즌은 야후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한 조사가 끝나지 않아도 수정된 인수·합병(M&A)안에 합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관련한 소식통은 버라이즌 측이 자회사로 보유하고 있는 인터넷 기업 AOL과 야후의 합병이 상승효과를 낼 것인가에 대한 불확실성이 여전히 남아 있지만, 야후 M&A를 진전시키고 싶어 한다고 전했다. 해킹 피해를 본 것이 야후 사업의 일부에 그치고 AOL과의 합병이 여전히 상승효과를 낼 것이라 기대감 때문이다.  
앞서 경영난을 겪던 야후는 지난해 7월 48억 달러에 핵심사업인 인터넷 사업

을 버라이즌에 매각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지난해 9월 말 양사의 인수 절차가 진행되고 있던 와중에 문제가 생겼다. 2014년 해킹 공격으로 가입 회원 5억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으며 현재 수사당국의 조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밝힌 것.  
여기에 지난해 12월에도 2013년 8월 해킹으로 10억 명 이상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고 뒤늦게 공개해 논란을 일으켰다. 개인정보 유출 규모가 커지자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까지 나서 정식 조사에 착수했다. SEC는 두 건의 대규모 정보유출 사건이 투자자들에게 적절한

시점에 알려졌는지를 조사하고 있다. 상황이 심각해지자 버라이즌이 야후 인수를 포기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되기도 했다. 버라이즌은 야후 인수에 대해 제검토에 들어갔고 이후 수개월간 양사는 해킹 피해에 따른 경제적 영향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일각에서는 양사가 이르면 오는 4월 새로 수정된 합의안으로 합병을 마무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러나 SEC 조사 결과가 언제 나오느냐에 따라 양사 합병 일정도 달라질 수 있다고 WSJ는 전했다. 야후가 새로 수정된 M&A 합의 후 해당 합병안을 주주 표결에 부치려면 SEC의 승인이 필요하다.  
이날 야후 주가는 전일 대비 1.4% 올랐다. 반면 버라이즌은 0.39% 하락했다. 김나은 기자 better68@



국민의 평생  
금융파트너

KB금융그룹

KB금융그룹과 현대증권이 만나  
KB증권으로  
새롭게 시작합니다

KB증권



강학중의 가족이야기

가정경영연구소장

배국남의 직격탄



대중문화 평론가

‘예능대선’의 두 얼굴

함께, 소설을 읽자

밤중에 잠이 깨어 책을 들었다. 구효서의 '풍경소리', 홀로 깨어 조용히 읽기에 딱 어울리는 맑은 소설이었다. 한없이 가벼워지는 요즘 세상에 '내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같은 무거운 주제를 이렇게도 다룰 수 있구나 싶었다. 우리말의 아름다움과 구효서의 문체에 빠져서 한참 행복했다. 30여 년을 오로지 소설 쓰기에 매달려 온 전업 작가의 끈기와 독심이 존경스러웠다. 주말이라 출근할 일도 없으니 몇 장을 읽고 생각하고, 또 몇 장을 들춰다 적적거리며 노닥노닥, 서두르지 않아도 좋았고.

사람들이 책을 잘 읽지 않는다. 게다가 소설은 더 안 읽는다. 시간이 없어서, 바빠서라고 핑계를 대지만 소설은 별로 쓸모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은 아닐까? 돈 버는 데에도 도움이 안 되고 문제를 해결하는 데 직접적인 해결책을 제시해 주지도 않기 때문이리라. 게다가 소설은 대학에 가거나 자격증을 따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설사 시간이 남아돈다고 해도 소설을 영화나 드라마로 만든 작품을 눈을 돌린다. 게다가 TV나 게임, 음반, SNS, 프로스포츠, 야외 활동과의 경쟁에서도 밀리니 소설이 설 자리는 더욱더 없다.

하지만 세상에는 실용적인 효용가치만 필요한 건 아니다. 몇 시간 며칠에 걸쳐 읽어야 할 소설을 두 시간 정도면 더 자극적인 영화나 드라마로 대체할 수 없다. 하지만 영상 매체로 대신할 수 없는 향기와 감동이 소설에는 있다. 중학교 2학년 때, 국어 선생님이 추천해 주셨던 한국단편문학 전집의 감동과 충격을 잊을 수가 없다. 김동인의 '배따라기'와 '발가락이 닳았다'처럼 평생을 지배하는 그 감동을 무엇이 대신할 수 있을까? 소설을 읽다보면 우리말의 아름다움에 매번 감탄한다. 그리고 내가 쓰는 어휘가 얼마나 빈약한지 절감한다. 영어 단어 하나, 한자 하나 못 읽는다고 무식한 사람 취급을 하면서도 우

리말에 대해서는 예의가 너무 없

는 것이다. 소설을 읽으면 삶이 풍요로워진다. 내가 살아보지 못한 시대와 공간 속의 다양한 인물들을 소설 속에서는 얼마든지 만날 수 있다. 타인을 이해하는 데 소설만큼 유용한 도구가 또 있을까? 소설이 허구이기는 하지만 현재의 인물과 세상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때문에 그 속에서 길을 찾기도 하고 나를 돌아보고 내 삶을 성찰하기도 한다. 무엇보다 소설은 재미있다. 시간 때우기도 좋고 기분전환에도 도움이 된다. 자녀들의 창의력과 상상력, 어휘력과 표현력을 키워주는 데에도 효과적인 방법이다.

소설을 많이 읽어야 능사는 아니다. 시간이 없다면 단편소설을 권한다. 무슨 책을 읽어야 할지 모르겠다면 문학상을 받은 소설이나 베스트셀러를 선택해도 무방하다. 내가 산 소설책이 기대 이하라면 책꽂이의 장식품이나 냄비 받침으로 써도 좋다. 책을 좋아하는 주변 사람에게 나눠 주거나 중고로 팔아 잔돈을 쟁길 수도 있다.

책상에 모처럼 가족이 함께 둘러 앉아보자. 집이 좁다면 소파를 치우고 식탁을 책상 겸용으로 써도 좋다. 습관적으로 틀거나 심심해서 켜놓은 텔레비전을 끄고 휴대전화도 잠시 접어 두고, 오늘은 온 가족이 소설 삼매경에 빠져보자. 각자의 취향에 따라 읽는 연애소설, 아빠는 역사소설, 아이들은 SF 공상소설을 골라도 좋다. 세상에 소설책만 있는 것은 아니니 잡지나 신문, 만화면 또 어떤가?

파팍하고 점점 거칠어지는 세상, 소설 속에서 희망과 사랑을 발견하고 위로도 받고 힐링도 해보자. 문학의 향기에 젖어 며칠은 내가 문화인이 된 듯한 착각에 빠진들 무엇이 문제라. 가족이 책을 함께 읽는 세상은 지금보다 훨씬 더 맑고 따뜻한 사회일 것이다. 단, 소설에 빠져 가족과의 대화나 소통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기 바란다.

jtbc '철전의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 jtbc '말하는 대로'의 이재명 성남시장, 안희정 충남지사, 심상정 정의당 대표, TV조선 '강적들의 남경필 경기지사, SBS '양세형의 스포츠부의 안희정 지사... 조기 대선이 가시화하면서 대통령 선거 출마를 선언한 후보들의 예능 프로그램 출연이 급증하고 있다. 또한, KBS '해피투게더'를 비롯한 지상파와 케이블TV, 종합편성 채널, SNS의 예능 프로그램이 경쟁적으로 대선 후보 출연을 섭외하고 있다.

대선 후보의 예능 프로그램 출연은 이제 과열 양상마저 보인다. 방송사와 대선 후보, 양쪽에 모두 득이 된다는 판단 때문이다. 대선 후보의 예능 프로그램 출연을 통해 방송사에서 시청률 상승을 담보할 수 있고 대선 후보는 인지도와 친근감 제고, 이미지 전환 등을 꾀할 수 있다.

근래 들어 고비용 저효율의 길거리 정치에서 저비용 고효율의 미디어 정치가 자리를 잡으면서 대선 후보의 예능

출연은 일상화한 풍경으로 굳어졌다. 예능 프로그램의 파괴력과 영향력은 대단하다. 대중적 인지도가 낮았던 안철수 전 카이스트 교수가 2009년 6월 17일 MBC '무릎팍도사'의 단 한 번 출연으로 유명인사로 부상하며 정치에 입문한 것이 단적인 사례다.

예능 프로그램을 비롯한 엔터테인먼트 미디어의 정치적 역할과 영향력은 날로 커지고 있다. 화제와 논란을 증폭시킬 수 있는 예능 프로그램은 관심도에서 뉴스와 시사 프로그램을 압도한다. 재미로 무장한 예능 프로그램은 시청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어 정치인은 국민과의 거리를 좁힐 수 있고 정치적 무관심과 냉소를 보이는 젊은이들의 정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다.

또한, 소재 제한이 없는 예능 프로그램은 대선 후보의 가족 등 사적인 부분부터 정치철학, 지향 정책, 리더십까지 다면적으로 검증할 기회를 제공할 수도 있어 엔터테인먼트 정치 미디어의 총아로 떠올랐다.

바라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은 MTV '젊음과의 타운홀 미팅'을 비롯한 음악과 예능 프로그램 출연을 통해 젊은이들의 투표 참여를 독려하고 정책을 홍보해 국민, 특히 대학생 등 젊은층의 긍정적인 반응을 끌어냈다. 또한, 코미디 프로그램을 비롯한 예능 프로그램 출연을 국민과의 소통 기회로 효과적으로 활용했다.

하지만 대선 후보들이 사활을 걸고 출연에 목매고 있는

예능 프로그램의 정치적 기능에 한정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예능 프로그램 장르 특성상 정치인의 능력, 정치철학, 국정 수행 능력 등 정치인의 본질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나 공정한 평가를 방해하는 이미지 경쟁을 부추기고 일방적인 주장, 심지어 허위의 주장이 사실과 진실로 둔갑하는 폐해가 노출된다.

무엇보다 도덕성과 청렴성, 국정 수행능력, 국민과의 소통 능력을 비롯한 대통령의 자질 등 매우 중요한 요소들이 희화화되고 웃음의 소재로 전락해 대선 후보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간과하게 해 결국 잘못된 선택을 하게 하는 최악의 상황까지 연출하고 있다. 프랑스 철학자 장 보드리야르가 간파한 것처럼 사람들이 미디어가 조작한 이미지를 실제보다 더 실제적인 것으로 인식하며 사는 현재 상황에서 더 그렇다.

미디어 환경과 정치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는데 엔터테인먼트 미디어의 정치적 역할을 무조건 비판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다. 하지만 대선 후보의 예능 프로그램 출연을 비롯한 예능 정치의 폐해가 크다는 사실도 알아야 한다. 유력한 한나라당 대선 후보로 2012년 1월 2일 SBS '힐링 캠프'에 출연해 소통과 진정성을 강력하게 역설했던 박근혜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불통과 독선의 대통령으로 국정 마비까지 초래한 것은 대선 후보의 예능 프로그램 출연 폐해의 실체를 지나치게 보여준 사례가 아닐까.

알쏭달쏭

정쟁, 당쟁, 파쟁

대통령 탄핵이 예견되는 가운데 조기 대선이 현실화하고 있다. 각 정당과 이른바 '대선 주자'들의 다툼도 치열해지고 있다. 이런 다툼을 '정쟁(政爭)'이라는 말로 많이 표현을 한다. 그런데, 정쟁은 사실상 성립할 수 없는 말이다. 당쟁(黨爭: 무리 싸움) 혹은 파쟁(派爭: 싸움)이라는 말이 있을 뿐이다.

자전에서는 '政'을 '정사(政事) 정'이라고 혼동하고 '정사(政事)'는 다시 '나라를 다스리는 일'이라고 풀이하고 있다. 그러므로, 정쟁은 '나라를 다스리는 일을 하는 과정에서 벌어지는 다툼'이라는 뜻 정도로 풀이할 수도 있다.

그러나 '政'이라는 글자 구조를 살펴보면 그렇게 풀이하기 곤란한 점이 있다. '政'

은 '正(바를 정)+支(질 북)'의 구조로 바꾸기 위해 막대기(지휘봉)로 받가를 치거나 두드리는 지도자의 행위를 나타낸 글자다. 正은 冫(목표물: 나중에 '-획으로 간략화됨)과 止(발 모양)-가 합하여 이루어진 글자로 어떤 목표물을 향하여 '바르게 나아가다' 혹은 '바르게 감으로써 어떤 목표에 제대로 도달하다'는 의미인데 나중에 '바르다'는 의미가 특별히 강조되어 '바를 정'이라고 혼동하게 되었다.

'다툼 정(爭)'은 冫(손뎌)+又(손)+扌(막대

기 같은 물건)의 구조로 이루어진 글자로 손과 손뎌로 물건을 움켜잡고 내 쪽으로 당겨 빼앗아 오는 다툼 현상을 형상화한 글자이다.

그러므로, 본래부터 받가를 바르게 집행하는 지도자의 행위를 나타낸 글자인 '政'은 다툼이라는 의미의 '爭'과 어울릴 수 없다. 바를을 판단하는 가치관이 다른 개인이나 집단 사이의 다툼, 즉 당쟁이나 파쟁은 있을 수 있어도 이미 바른 것으로 인식된 '바를' 자체에는 '다툼'이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대선정국'이 전개되고 있는 우리 사회, 政論은 많고 당쟁이나 파쟁은 적었으면 좋겠다.

김병기 전북대 중문과 교수

온라인 토닥토닥



마음 나누는 '교복 장터', 저렴하게 교복 사고 저소득층 장학금 주고!

입학과 개학을 앞두고 중고 교복을 저렴하게 살 수 있는 사랑의 교복 나눔 장터가 인기를 끌고 있다. 각 지자체는 이달 중 중고 교복을 기증받아 깨끗하게 수선한 후 저렴하게 판매하는 '사랑의 교복 나눔 장터'를 열고 있다. 매년 지자체별로 100여 명의 자원봉사자가 참여해 '착한 교복' 구매를 독려하고 있으며, 이렇게 판매된 수익금은 저소득층 학생들을 위해 사용된다. 수십만 원에 달하는 교복을 3000~1만 원의 저렴한 가격에 구매

할 수 있어 해마다 이곳을 찾는 사람들이 크게 늘고 있다.

네티즌은 "행사의 취지도 좋고, 교복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으니 더욱 좋다", "교복 한 벌에 수십만 원씩 하는데 이런 데서 저렴하게 구매하면 왠지 대박 난 기분!", "중고 교복 구매한 돈이 저소득층 학생들의 장학금으로 쓰인다고 하니 일석이조네요!" 등의 반응을 보였다.

이재영 기자 lij0403@



"화장은 하는 것보다 씻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라는 모 화장품 광고. 기억하시죠? 그만큼 피부를 위해서는 세안이 중요하다는 얘기일 텐데요. 혹시 잘못된 세안 습관으로 피부를 망치고 있지는 않은가요? 세수하고 나서 수건으로 얼굴을 박박 문지른다는가 아주 뜨겁거나 차가운 물로 씻어야 직성이 풀린다면 자극을 주는 건 아닌가요. 해외 온라인 매체 '위티피드(Wittyfeed)'가 공개한 세수할 때 피해야 할 점들을 확인하세요.

카드뉴스 전문을 보시려면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스캔하거나 아래 주소로 접속하세요. <https://goo.gl/8H8c82>



**RAYCOOK GOLF**

퍼터는 레이콕이 좋습니다

알에스스포츠 TEL. (02)3280-9607



정승호의 키워드  
오뇌 (汚腦·Brainstaining)

# “내 머릿속을 더럽히지 말라!”

지만, 세뇌는 모든 사람이 한 가지 생각에만 머물도록, 그 생각에만 갇혀 있도록 뇌를 오염한다. 그래서 세뇌는 '오뇌(汚腦·Brainstaining)'라고 써야 한다. (영국 소설가 살만 루슈디의 주장이다.) 세뇌는 뇌를 깨끗하게 하는 게 아니라 더럽히기 때문이다.

촛불과 태극기, 태극기와 촛불, 두 극단의 집회가 열리는 그곳, '광장'에 한 번도 나가 보지 않은 사람들, 한



남미의 여러 나라를 강력한 단일국가로 통일하려 했던 베네수엘라 출신의 시몬 볼리바르. 그의 시대는 대농장주 등 기득권층의 철저한 반대로 결국 실패했다.

두 번 나갔다가 발길을 끊은 사람들은 '오뇌'되는 것을 싫어해서일 거라는 생각을 해본다. 촛불이든 태극기든 자신들과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용납하지 못하는 곳, 자신들의 생각만을 머리에 담으라고 세뇌된 권력자나 미디어가 뉴스 혹은 선동 같은 것으로 강요하는 곳, 상대방을 '오뇌'하려다 실패하자 자기들끼리라도 더 '오뇌'하려고 핏대를 세우는 곳, 세상에는 A와 B만 있는 게 아니라 이 둘보다 더 참된 것일 수 있는 C도 있는데, C는 무시하고 오직 "A, B 중 하나만 택하라"고 강요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그 '광장'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을 거라는 말이다.

베네수엘라 출신인 시몬 볼리바르(사진)는 남미 여러 나라를 북미의 미국과 같은 강력한 단일국가로 통일하려다 실패한 혁명가였다. 좌절한 그는 1830년 11월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핏빛 서린 마지막 편지를 남기고 한 달 뒤 결핵으로 죽었다.

(나는 12년간 통치하면서 몇 가지 확신이 생겼다. ① 남미는 우리가 다스리기 벅찬 곳이다. ② 인생을 혁명에 바친 사람은 바다에 갇힐 것이나 다름없다. ③ 남미에서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다른 곳으로의) 이주이다. ④ 이 나라는 필연적으로 고삐 풀린 대중의 손에 들어 갔다가 그들도 모르는 사이에 어쭙잡은 폭군들 차지가 될 것이다. ⑤ 우리가 온갖 범죄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흉포함에 철저히 압도당하면 유럽인들은 우리를 정복할 가치도 느끼지 못할 것이다. ⑥ 만약 어떤 국가가 원초적인 혼돈 상태로 돌아갈 수 있다면 남미가 그런 나라일 것이다.)

볼리바르가 평생을 바쳐 이루고자 했던 혁명, 개혁, 통일이 실패한 것은 남미에는 미국처럼 민주적인 법규와 제도가 없었고, 있었어도 민중은 그것을 무시했으며, 대농장주 등 기득권층이 철저히 반대했기 때문이다.

좌절과 회한만이 가득한 이 편지는 몇 년이만 바꾸면 지금 우리 상황에도 적용할 수 있을 것 같다. '오뇌'되기 싫어 촛불도 태극기도 외면하는 절대다수의 국민들이 아말로 이런 격정을 하는 사람들일 것이다.

# 여당의 정치쇼와 자가당착

애초부터 '쇄신'을 기대한 것은 무리였을까. 새누리당에서 자유한국당으로 간판을 바꿔 단 여당이 여전히 구태를 벗지 못하는 모습이다. 뼈를 깎는 혁신을 통해 다시 태어났다고 하며 당명까지 개칭했지만, 개혁의 실천 의지는 찾기 어렵다.



한국당은 지난 13일 국정농단 사태의 책임이 큰 집권당으로서 당을 쇠신하겠다고 5년 만에 새 간판을 걸고 새 출발을 다짐했다. 그 다음 날부터는 버스를 타고 전국을 돌며 '반성'을 시작했다고 하며, 같은 날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여당으로서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겠다"며 금요일에 보관해 있던 국회의원 배지를 되돌려 주는 반납식까지 진행했다.

그러나 당명을 바꾸고 배지까지 돌려 주는 '쇄신 의식'은 요란한 빈수레에 불과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 가결 이후 친박으로 대변되는 당내 계파정치를 청산하고 새로운 정당으로 거듭나자고 공언했지만 책임도, 반성도 없이 조기 대선에서 정권 재창출에만 몰두하는 모습에 '정치쇼'를 벌인 게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만 터져 나왔다.

2월 임시국회가 본격화하면서 말과 행동이 맞지 않는 여당의 '자기당착' 행태는 극에 달하고 있다. 탄핵정국 속에서도 경제를 살리고 개혁입법을 이뤄 내겠다고 여야 4당이 어렵게 뜻을 모았지만, 이러한 노력은 물거품이 될 처지에 놓였다. 야당이 환경노동위원회에서 MBC 청문회 등을 '날치기' 통과시켰다며 한국당 의원들이 긴급 현안이 있는 대북 관련 국방위·정보위를 제외한 모든 상임위원회를 전면 거부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전날 열렸던 상임위는 줄줄이 취소되거나 아예 열리지도 못했다. 16일에도 정무위·기재위 등 7개 상임위가 예정돼 있지만 파행 운영은 불가

피해 보인다. 김성원 한국당 대변인은 전날 고위 당정회의에서 "민생법안 중심으로 한 경제 활성화를 이뤄 내고 청년 실업 문제와 일자리 창출 관련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결과를 이끌어 내자"고 했다. 신적인 민생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행동은 멈췄다. 2월 임시국회 내 경제활성화법을 통과시키겠다는 다짐은 벌써 온데간데 없이 법안 처리에 적극 나서야 할 권한 여당이 '식물국화'를 만드는 데 앞장서고 있는 것이다.

야당에서는 "개혁입법에 응하지 않고 싶었는데 이를 빌미로 잡았다 싶어 국회를 스톱시키고 있다"라는 의혹까지 제기했다. 2월 국회는 본격 대선 국면 전 경제활성화법과 개혁입법을 처리할 사실상 마지막 기회이지만, 여당의 동나에 임시국회가 끝나는 다음 달 2월까지 여야 간 쟁점 법안의 처리는 더욱 불투명해졌다는 관측이 많다.

여당이 이러한 조강수를 둔 것은 조기 대선 국면에서 안보 이슈를 띄워 운신의 폭을 넓히고 야권의 주도권을 흔들면서 탄핵정국을 장기화해 보수층 결집을 본격화하려는 전략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한 번도를 둘러싼 안보 위기가 가중되고, 경제 상황은 하루가 다르게 악화하고 있다. 민생이 최우선이라는 집권여당의 본분을 잊지 말길 바란다. puri21@

**객석** 이 지 아 더원케이컬처에듀 대표

## 곧 기성세대가 될 청년들에게

젊은 사람들이 살기 힘든 시대이다. 사회 전반에 청년들의 패배의식과 무력감이 팽배해 있음을 직접적으로 느끼고 있다. 활동적이고 적극적이었던 친구들이 자신의 꿈에 도전조차 하지 않는 모습이 안타깝다. 한국에서 한 번 실패하면 다시는 재기할 수 없다는 현실에서 기인한 현상들이다. 그리고 이 무력감은 어느새 '현명함'으로 둔갑하여 전염병처럼 퍼지고 있다.

이렇게 된 것은 누구의 탓인 걸까? 사회 구조적 탓이며, 기성세대의 잘못이다. 젊은이들은 이 사회에 불평을 해야만 한다. 그런데 그 방식을 전략적으로 하는 것이 현명하지 않을까? 정치적 목소리는 매우 뚜렷하고 열정적이면서 정작 자신을 챙기는 일에는 소홀한 사람들이 많음에 안타까움이 크다.

자기 분야에서 성실하게 일을 하면서, 사회 구성원으로서 목소리를 내야 한다. 시국이 어지럽지만 개인의 일상이 무너져선 안 된다. 청년들이 개인의 역량을 발전시키고, 자기 분야에서 목소리를 키우는 것도 중요하다. 시민 한 사람의 목소리와 영향력 있는 사람의 목소리는 분명 다르다. 청년들이 경제, 문화, 학계 등 다양한 분야에서 힘을 갖는다면 정치적 목소리도 커지기 마련이다. 청년들에게 가혹한 시대. 취업은 점점 어려워지고, 자산 불리는 것도 부모세대보다 힘들어졌다.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고 개인의 일상을 놓는다면 불합리한 사회구조에 순응하는 것과 같다. 언젠가 청년들도 기성세대가 될 것이다. 소파에 누워 TV를 보며 입으로 정치에 참여하는 것 대신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사회를 위해 먼저 나의 역량을 키우자.

**기자수첩** 박 엘리 정치경제부/ellee@

## 한미 FTA 경제효과 제대로 보자

얼마 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송기호 변호사는 산업통상자원부를 상대로 한 정보공개 청구소송에서 소송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서문에서 한국에 불리할 것으로 의심되는 조항에 관한 협상 문서를 처음 공개했다.

공개된 문서에 의하면 2007년 6월 이뤄진 한미 간 추가 협상에서 미국은 미국 내 한국 투자자에게 미국법 이상의 보호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불평등 조항을 서문에 삽입할 것을 요구했고, 한국 정부는 세 차례 수정안을 제시했으나 거부당하고 협정문서가 타결됐다.

산업부는 해명자료를 내고 한미 FTA 투자 철폐에 따라 한미 양국 공히 상대국 투자자에 대해 최소한 자국민 투자자와 동등하게 보호받고 있다면서 서문은 법적으로 구속력이 없다는 입

장을 밝혔다. 산업부는 서문에 '부기적인 조항'으로 봤지만, 송기호 변호사는 한법 전문과 같다고 했다. 분쟁이 생겼을 때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다음 달이면 한미 FTA 발효 5주년을 맞는다. 한미 FTA를 둘러싸고 지금까지 수많은 국내적 논쟁과 갈등이 있었지만, 이제는 긍정적·부정적 효과에 대해 제대로 평가해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이 재협상을 요구할 것이냐 말 것이냐에 따라 한미 FTA 평가가 달라질 순 없는 것이다.

긍정적인 개선 효과가 있다면 얼마나 고르게 그 이익을 누리고 있는 것인지, 소비자 후생이 얼마나 나아진 것인지 철저히 들여다봐야 한다. 모든 국민에게 이롭게 작용하는 '국익'이 무엇인지 정부의 고민이 좀 더 필요할 시점이다.

**이투데이** 발행인 김상우 편집인 김정우 주필 임철순 편집국장 박민수

논설실 (02)799-6701 온라인뉴스부 (02)799-6741 기획취재팀 (02)799-2651  
 정치경제부 (02)799-2665 정책사회부 (02)799-2663 자본시장부 (02)799-2658  
 기업금융부 (02)799-2648 산업1부 (02)799-2684 산업2부 (02)799-2641

광고접수 광고문의 (02)799-2601 / 2802 구독신청 배달안내 (02)799-2684

www.eltoday.co.kr 2010. 10. 4 등록번호 서울 가 00344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156-807 서울시 동작구 여의대방로 62길 1 이투데이빌딩 대표전화 (02)799-2600 팩스 (02)784-1003

문의 02-325-5676 문학의숲 수필선

맛깔스러운 수다에 담긴 웃음과 눈물  
사람만이 고향임을 고백하는 연가

성민희 수필집

## 사람이 고향이다

성민희 지음 | 15,000원 | 304쪽

겨우 겨우 살아가는 우리네 삶에서  
겨우와 겨우 사이를 들여다보다

이숙영 수필집

## 보석을 찾는 마음

이숙영 지음 | 15,000원 | 276쪽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이 참 고맙다

“웃음도 나고 눈물도 난다. 모국을 떠나 로스앤젤레스에 어릴사리 안착한 한 미주 한인의 삶의 여정이 눈앞에 그대로 펼쳐지는 듯해서다. 아들딸·남편·부모·형제·시댁·식구·친구들·이웃들과 어우러져 살아온 교포 생활을 ‘맛깔스러운 수다’로 드러냈다. 살면서 제어하지 못한 무례와 욕심에 대한 성찰이 나 사색까지 있어 더욱 값진 작품이 됐다.”

- 박덕규 (문학평론가, 단국대 교수)

삶이란 보석을 찾았다

이숙영의 수필은 작위적인 구성이나 지나친 정서의 표현으로 인한 부담감이 없다. 일상적인 문법에 충실하면서 소박한 기록과 절제된 정서로 만들어진 글들은 수필 읽기의 큰 미덕이다. 꾸밈이 없는 글쓰기, 그것은 이숙영 수필이 지향적이고 매력이다. 화려한 걸치레로 독자를 유혹하지 않고도 읽기를 멈추지 못하게 힘이 있다.

- 김동혁(문학평론가)

# 도산분야 전문법관 고정 배치 '신속·효율·공정 심리' 기대



## 서울중앙지법 파산부서 독립... 내달 문 여는 '회생법원'

작년 법인파산 390건 3년새 2배↑  
지법 일부 부서 처리하기에는 부담

법관 충원... 4번째 전문법원 탄생  
순환근무·판결 편차 등 한계 보완

회계·인수합병 등 전문가 보강 과제  
출범이후 지방 거점 추가 설치 논의

국회는 지난해 12월 도산사건을 전문으로 다루는 법원을 신설하기 위해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권성동 의원 등 14명은 "2000년대 후반 세계적인 금융위기 이후 지속적인 경기불황으로 인해 한계기업이 증가하고, 가계부채가 늘면서 어려움을 겪는 채무자에 대한 구조조정 필요성이 상시화됐다"며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보다 공정하고 효율적인 구조조정 절차를 담당하기 위해 도산사건을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전문법원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다.

사법부가 오랜 기간 공을 들인 별도의 회생법원 설치가 현실화되는 순간이기도 했다. 회생법원은 오는 3월 2일 문을 열고, 서울지역의 기업 파산과 구조조정을 전담할 예정이다. 사법부가 전문 법원을 두는 것은 특허법원, 가정법원, 행정법원에 이어 4번째다.

16일 대법원에 따르면 국내 최대 규모 법원인 서울중앙지법에 지난해 접수된 법인파산 사건은 390건이다. 그중 27건이 인용됐다. 2013년 222건이던 법인파산 사건은 2014년 246건, 2015년 307건으로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합의부에서 처리하는 회생사건 역시 2013년 296건에서 지난해 404건으로 크게 늘었다. 반면 개인회생 사건은 △2013년 2만5234건 △2014년 2만5167건 △2015년 2만1351건으로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다 지난해 1만7000건으로 급감했다. 법원에서는 개

인회생 제도를 악용하는 브로커들이 개입하는 사례가 크게 줄어들었기 때문으로 분석하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해부터 '체크리스트' 제도를 통해 개인회생 신청자로부터 수수료를 받아 행거는 브로커를 선별해 고발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통계만 놓고 보더라도 지방법원 일부 부서가 처리하기에는 지나치게 많은 사건이 몰리고 있다. 특히 지난해에는 한진해운과 STX조선 등 굵직한 대형 회생사건이 들어오면서, 파산부 소속 판사들이 서울과 지방 현장을 오가며 사건을 심리하는 데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기존 서울중앙지법 파산부에서 별도의 법원으로 독립하면 30여 명 수준이던 법관 인력도 늘어나고, 재판부 증원 등 조직개편도 이어질 예정이다. 순환 인사로 인한 효율성 손실을 막고, 전문성 있는 인력을 고정적으로 투입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그동안 파산부 소속 판사가 회생·파산사건 재판부에서 일할 수 있는 기간이 최장 3년에 불과해 전문성을 쌓기 어렵다는 점이 지적됐다.

재판부별로 도산사건 처리 이해도 편차가 현실적으로 존재해 사건처리 결과가 균일하지 못하다는 점도 문제였다. 사건이 어느 재판부로 가느냐에 따라 재판권 행사의 차이가 커 결과적으로 이해관계자들의 불신이 생기기도 했다. 회생법원 신설에 이어 전문 법관 제도가 도입되면 재판부별 업무처리 편차로 인한 문제는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신설되는 회생법원이 판사 이외의 내부 인적 조직을 어떻게 구성할지도 중요한 대목이다. 특허법원의 경우 특허청으로부터 기술심리관을 파견받고, 행정법원은 국제청 세무공무원을 통해 전문성을 보장하고 있다. 회생법원 역시 회계와 기업경영, 기업 인수합병 등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요소가 많아 유관기관으로부터 전문인력을 지원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또 전국적으로 균일한 재판 결과를 보장하기 위해 서울뿐만 아니라, 지방 거점 지역에도 전문 회생법원 설치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회생법원이 출범 초기 어떤 역량을 보이는가에 따라 좌우될 수 있는 부분이다.

좌영길 기자 jy97@

★★★★★  
모든 것을 압도하는 노래의 힘  
연합뉴스

심장으로 듣는 뮤지컬, 음악에 모든 것을 걸었다.  
**THE BODYGUARD**  
뮤지컬 보디가드

마지막 티켓오픈 기념 할인 30%  
45세부터 55세까지 모든 분들께  
4555 Always 할인 40% (~2/19 공연 예매 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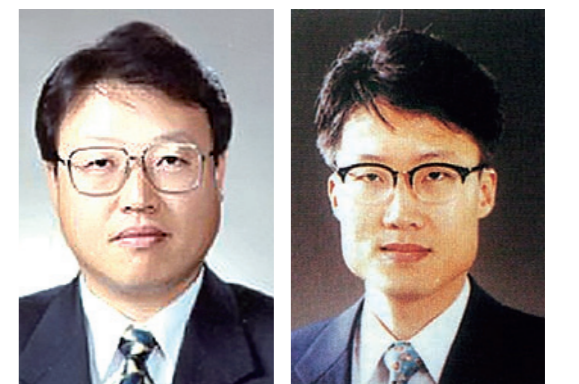
정선아 이은진(양파) 손승연 박성웅 이종혁

2016.12.15 ~ 2017.3.5 LG 아트센터

## 회생법원 이끌 법관들은

### 사법행정 두루거쳐...조직 안정 이끌 이경춘 원장 기업회생 패스트트랙 안착 정준영 수석부장판사

기존 파산부 소속 판사 18명 배치  
도산분야 전문성 15명 신규 발령  
김상규·심태규 부장판사 등 합류



이경춘 초대원장 정준영 수석부장판사

대법원은 오는 20일자로 지방법원 부장 이하 법관 인사를 단행한다. 눈여겨볼 부분은 신설 서울회생법원이 단기간에 자리잡을 수 있도록 전문성 있는 판사들을 집중 배치한 점이다.

이번 인사를 통해 서울회생법원 소속 판사는 총 33명이 된다. 서울중앙지법 파산부 소속 판사 18명(지방법원 부장급 1명 포함)을 배치해 연속성 있는 업무 처리를 가능하게 하고, 재판 경력과 연구활동 등을 토대로 도산 분야 전문성을 갖춘 판사 15명(지방법원 부장급 3명 포함)을 신규 배치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인사 패턴상 서울 시내 법원 근무가 가능한 법관들을 원칙적으로 배치하면서도, 도산 분야에 특별한 전문성이 있는 법관에 대해서는 이와 무관하게 인사가 이뤄졌다"며 "전문법원 성격에 맞게 적재적소 인사 원칙에 따라 인력을 배치했다"고 설명했다.

초대 원장을 맡은 이경춘(58·사법연수원 16기) 원장은 전남대 법대 출신으로 1987년 판사로 임관했다. 법원행정처에서 건설국장과 기획조정실 심의관, 사법지원실장 등 요직을 두루 거치며 법리는 물론 사법행정에도 이해가 깊다. 회생법원 특수성 못지않게 초반에 조직이 안정적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한 인사로 풀이된다.

이 신임 원장은 2010년 인천지법 파산부를 이끌

며 다수의 기업회생절차를 처리했고, 2013년에는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장으로 회생·파산위원회 위원을 맡아 도산절차를 정비하고 로드맵을 마련하는 데 기여했다.

회생법원 수석부장판사로 보임된 정준영(50·26기) 부장판사는 법원 내 손꼽히는 도산 분야 실력자다. 특히 개인회생 제도 이론과 실무에 탁월한 것으로 정평이 나 있다. 2011년부터 3년간 서울중앙지법 파산부 부장판사로 재직하며 기업 회생 사건을 전담했다. 기업회생 절차를 단시간에 종결하는 '패스트트랙' 제도가 안착하는 데 기여했다.

김상규(50·26기)·심태규(49·25기)·안병욱(50·26기)·이진용(42·30기) 부장판사도 서울회생법원에 합류했다. 김 부장판사는 2006년 서울중앙지법에 설치한 금융기관 전담 재판부에서 일했다. 심 부장판사는 지난해 서울중앙지법 파산12부 부장을 맡았고, 한진해운과 현대상선 구조조정 논의에도 관여했다.

좌영길 기자 jy97@



# 헌재, 막바지 증인신문... '3월 초 선고' 시간표 맞추나

## 빨라지는 '탄핵시계'

“탄핵심판, 형사재판과 다르다” 강조  
대통령측 지연 전술에 경고 메시지  
일정 지체면 최종변론 생략할 수도  
5가지 탄핵 사안 중 일부 추려 결론  
재판관들 '중대한 법 위반' 깊은 고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파면 여부가 곧 가려질 전망이다. 대통령 탄핵심판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가 3월 초 선고를 기정사실화하면서 결과에 따라 5월에 대선이 치러질 수도 있다. 헌재는 22일 열리는 16차 변론기일을 끝으로 증인신문 절차를 마무리할 가능성이 크다. 최종 변론을 위한 기일은 23일이나 24일 열리거나 아예 생략할 수도 있다. 재판관 평의와 결정문 작성에 걸리는 시간을 감안하면 3월 둘째 주 선고가 유력한 상황이다.

헌재는 △국민주권·법치주의 위반 △대통령 권한 남용 △뇌물수수 등 형사법 위반 △생명권 보호의무 위반 △언론인의 자유 침해 등 5가지 쟁점을 추려 결론을 낼 예정이다.

탄핵(彈劾)은 잘못을 묻는다는 의미다. 헌법 65조는 대통령뿐만 아니라 국무총리, 국무위원, 헌법재판소 재판관, 법원 판사 등도 국회가 탄핵심판을 통해 파면을 요청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다만 대통령의 경우 국민이 직접 선출했기 때문에, '대통령 직을 도저히 수행할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법 위반'이 확인돼야 파면 결정이 가능하다는 게 선례다.

2004년 헌법재판소는 노무현 대통령의 선거중립의무 위반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중대한 위반이 아니라는 이유로 가각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임의로 탄핵소추 사유를 정할 수는 없고, 국회에서의

결한 사유만을 가지고 파면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번 박 대통령 탄핵심판은 국회에서 제시한 5가지 사유 중 법을 위반 여부가 문제되는 것은 뇌물수수 등 형사법 위반 부분이다. 나머지 국민주권이나 권한남용, 언론자유 침해, 생명권 보호의무 위반 등은 헌법위반 사항이다. 이번 사건 주심은 판사 출신의 강일원 재판관이 맡았다. 소송 절차에 관해 이론과 실무 경험을 오랫동안 쌓은 강 재판관은 “탄핵심판은 형사소송과 다르다”고 수차례 강조했다. 형사사건과는 다르게 재판을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고, 판단을 내리는 기준도 형사재판 수준의 엄격한 증명을 요하지 않는다는 의미다.

박 대통령 측은 대부분의 사실관계를 부인하지 않고 있다. 예를 들어 국회가 주장하는 탄핵사유 중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을 설립해 기업으로부터 760억 원이 넘는 돈을 걷은 부분을 보면, 재단을 설립하기 위해 돈을 걷었고, 대통령이 직접 지시를 내린 사실은 모두 인정하고 있다. 설립 강제로 돈을 걷어 범죄가 된다고 해도 뇌물수수로 볼 수 있는지를 따져야 한다는 게 대통령 측 입장이다.

기업들은 자발적으로 재단 출연금을 낸 것이지, 강요하지는 않았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헌재는 형법상 뇌물죄가 성립하지 않더라도 대통령 권한남용 등 헌법위반 사항으로 파면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강 재판관은 지난달 19일 열린 7차 변론기일에서 “이 재판에서 다루는 건 대통령에 대한 범죄 행위 유무를 심판하는 게 아니고 국회의 탄핵소추가 정당한지를 보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이 대기업들을 상대로 돈을 내도록 한 게 범죄인지, 그렇다고 한다면 어떤 범죄에 해당하는지는 법원에서 다룰 일이고, 헌재에서는 이 행위가 대통령을 더 이상 못하게 할 중대한 법 위반인지를 판단하면 된다는 설명이다.

탄핵심판이 진행되는 동안 박 대통령 측의 미숙한 대응도 있었다. 박 대통령은 탄핵심판 도중 기자회견담화를 자체해 미르재단과 K스포츠 재단을 통해 대기업 후원금을 걷은 것은 물론, 최순실

씨의 지인에게 특혜를 제공한 사실을 인정하는 발언을 했다. 다만 ‘나쁜 뜻으로 한 게 아니다’라고 해명할 뿐이다.

탄핵심판정에 나선 증인들도 최순실 씨가 추천한 인사를 장관급으로 임명한 사실을 진술했는데도 박 대통령 측은 이를 부정하지 못하고 추천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기업 후원금을 걷거나, 최 씨 지인에게 특혜를 제공한 부분은 권한남용 사유가 될 수 있고, 인사개입 부분은 국민주권주의 위반으로 연결지를 수 있다.

대통령 측은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한 대신 정책적 판단에 따라 이뤄진 일들이라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재단 설립은 문화융성 국정운영

기조에 따라, KD코퍼레이션 등 특정 업체에 혜택을 준 것은 중소기업 활성화 의지에 따른 것이라는 주장이다. 인사개입 부분은 최 씨 말고도 누구나 추천할 수 있는 것인데 인사검증을 거쳤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주장한다.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일에 박 대통령이 직무를 제대로 보지 않았다는 국회 주장은 생명권 보호의무 위반과 연결된다. 형사재판이라면 그 시간에 박 대통령이 해야 할 일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걸 검찰이 일방적으로 입증해야 한다. 하지만 탄핵심판은 형사재판이 아니기 때문에, 그 시간에 무일 했는지 박 대통령도 적극적으로 설명할 책임을 진다.

박 대통령 측은 헌재에 참사 당일 행적을 담은 서면을 제출했지만, 이를 뒷받침할 구체적인 자료는 내놓지 못하고 있다. 전화보고를 받았다는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의 통화기록을 제출하지 못하는 게 대표적이다. 만약 재판부가 박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일 대응이 미숙했다고 보더라도 이것을 대통령 직위를 더 이상 수행하지 못하게 할 사유로 인정할지는 별개의 문제가 된다.

‘언론자유 침해’는 사실관계 자체를 다루고 있는 항목이다. 이른바 ‘정운회 문건’ 보도를 한 세계일보 사장 퇴임에 관해 박 대통령 측은 청와대가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좌영길 기자 jy97@

## 질문으로 본 재판관 '심중'은

강일원 “靑, 미르재단 조성 설계도 제시해야”

이진성 “세월호 당일 대통령 행적 밝혀라”

탄핵심판 결정에 참여한 재판관 8명 중 고검장 출신의 안창호(60·사법연수원 14기) 재판관을 제외하면 모두 고위 법관 출신이다. 판사들은 재판 과정에서 증인들을 심문하면서 은연중에 자신의 생각을 드러내기도 한다. 법조인들은 이것을 ‘심중’이라고 부른다.

하지만 이런 정황을 근거로 결론을 예측했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도 적지 않다. 노련한 판사들은 속내를 드러내지 않기 위해 재판에서 이길 쪽을 다그친다거나, 지는 쪽 얘기를 잘 들어주기도 하기 때문이다.

주심을 맡은 강일원(58·14기) 재판관은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의 조성 경위를 꾸준히 묻고 있다. 박 대통령 측 주장대로 청와대 문화 융성 기조에 따라 설립된 것이라면, 실무진에서 작성한 설계도가 있을 것이라는 게 강 재판관의 생각이다. 하지만 경제수석과 정책조정수석을 맡았던 안중범(58) 씨나 김상률(57) 전 교육문화수석도 이러한 내용의 기안서를 제시하지 못했다.

흔히 ‘대포폰’으로 불리는 차명 전화기 사용 여부도 강 재판관이 증인들을 상대로 자주 던졌던 질문이다. 정호성(48)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은 탄핵심판 과정에서 박 대통령이 차명 차명전화를 사용한 사실을 시인했다. 단순히 전화기 명의를 빌렸다는 불법이 문제가 아니라, 최순실(61) 씨 등 국정농단 의혹 당사자들과 따로 연락하는 수단

이 존재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질문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재판장인 이정미(54·16기) 재판관은 소장 권한 대행을 맡은 이후 재판 진행에 집중하고, 개별적인 질문은 자제하고 있다. 이 재판관은 지난달 정 전 비서관에게 “최순실이 추천한 인사도 실제 반영됐다고 했는데, 그게 누구냐”고 물었다. 정 전 비서관은 김종덕(60)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김상률 전 수석이 최 씨를 통해 추천된 인사라는 취지로 답변했다.

이진성(60·10기) 재판관은 세월호 참사 당일 대통령 행적에 관심이 많다. 이 재판관은 재판 초기 “2014년 4월 16일은 특별한 날로, 대부분 행적을 떠올릴 수 있다”며 이날 대통령의 동선을 구체적으로 소명하라고 요구했다.

야당 추천으로 지명된 김이수(64·9기) 재판관은 변론 과정에서 정 전 비서관을 질책했다. 정 전 비서관은 ‘비선실세’로 지목된 최순실 씨를 “없는 사람으로 생각했다”고 말했는데, 김 재판관은 “그렇다면 더 관리감독을 했어야 하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청와대 보좌진이 강력하게 막아서 아예 그런 생각(국정농단)을 못하도록 해야지, 계속 문서도 보내주고 의견도 들으면 없는 사람이 되겠느냐”고 말하기도 했다. “박지만 관리하듯 엄격히 관리했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것”이라는 게 김 재판관의 생각이다. 좌영길 기자 jy97@

### 블랙박스 아무거나 달지 마세요!

브랜드를 보고 선택 하셔야죠!

블랙박스는 역시 -

## 아이나비

강소라가 강력 추천하는 아이나비 프리미엄 블랙박스  
아이나비 QXD950 View1

*Strong*  
O hater  
1278624

# R&D 여직원 압도적인 16층엔 女화장실만... 男차별 아네요

기획 여성친화 기업을 찾아  
13 한독

한독은 국내 대표 제약회사로 1954년 연합약품이라는 이름으로 설립됐다. 1964년 국내 제약사 최초로 독일 웨히스트(현 사노피)와의 기술 제휴와 합작을 하며 글로벌 비즈니스를 시작했다. 대표적인 의약품으로는 소화제인 '웨히탈'이 있다. 약 48년간 합작기업으로 운영된 한독은 2012년 사노피와 합작 관계를 정리하고 독립경영체제에 돌입하면서 한독약품에서 한독으로 사명을 변경했다. 한독은 설립 초창기부터 세계적인 제약사들과 제휴하면서 기술력뿐만 아니라, 선진국형 인사 시스템과 문화를 수용했다. 덕분에 일찍이 가족친화적 기업문화를 만들어 낼 수 있었다.

제약업계 최초로 주 5일 근무제(1998년)를 시행했으며, 엄마방 운영, 패밀리 투어, 김깡다리 휴일제 등으로 가족친화경영을 펼치고 있다. 올해는 본사 인근 어린이집과 위탁 운영계약을 체결해 3월 첫 입학에 앞두고 있다. 지난해에는 여성가족부가 주관하는 가족친화 우수기업 재인증을 받아 2019년까지 총 8년간 가족친화우수기업 자격을 유지하게 됐다. 또한, 2010년 보건복지부가 주관하는 '아이사랑 좋은세상 운동 경진대회'에서 대통령 표창을 받는 등 외부기관에서도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서울 강남 테헤란로 가운데 위치한 한독 본사 20층에는 전망 좋은 스카이라운지를 연상케 하는 카페가 자리하고 있다.

이 공간에는 여러 개의 회의실이 마련돼 있어 실제 직원들이 팀 회의를 하거나 미팅을 진행하는 장소로 활용된다. 발걸음을 옮겨 18층으로 향했다. 한쪽에는 대학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원룸을 닮은 공간이 있다. 일명 '엄마방'이다. 가임기 여성부터 임신·출산한 여성들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ID카드를 활용해 전산상으로 허용된 사람만 출입할 수 있다. 칸막이를 나눠 침대방이 2개 있고 소파와 냉장고, 싱크대, 안마의자, 발마사지기, 모유수유기 등 여성들을 배려한 장치가 돋보인다.



한독은 지난해 5월 충북 음성에 위치한 한독 공장에서 임직원 가족들을 초청해 1박 2일 패밀리투어를 진행했다. 한독 직원과 가족이 체육활동을 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사진제공 한독

1998년 제약업계 최초 주5일 근무제  
8년간 여가부 '가족친화 우수기업' 인증  
임신·출산 여직원 위한 휴식공간 '엄마방'  
직원가족 초청 1박2일 '패밀리투어'도

특이한 점은 16층엔 남성 화장실이 없다는 것이다. 약사 출신이나 약학 전공자가 많은 연구개발 부서가 위치한 이곳은 직무 특성상 여성 비율이

높아 모두 여성화장실로 개조했다. 한독의 흥미로운 조직문화 중 하나는 패밀리투어다. 2003년부터 시작한 패밀리투어는 매년 충북 음성에 위치한 한독 공장에서 진행된다. 직원들의 일가친척까지 모두 참석이 가능하다.

규모는 통상 200여 명에 달한다. 모든 프로그램 진행 비용은 회사가 부담하며 교통비도 지급해 준다. 정경주 인트로컨트롤링 팀장은 "입사 후 처음 패밀리투어에 갔을 때 큰아이가 초등학교 3학년이었는데, 어느새 올해 고등학생이 된다"면서 "아이에게 아빠가 다니는 회사를 보여주려고 시작했는데, 이제는 아이에게도 패밀리투어와 회사가 특별한 추억이 되고 있다"고 전했다. 정 팀장은 이어 "가족에게 회사를 자랑할 수 있어 뿌듯하고, 직원뿐 아니라 가족까지 생각하는 회사를 보며 애사심도 높아진다"고 덧붙였다.

김민정 기자 mj\_kim@

인터뷰 백진기 한독 부사장

## “일·가정 양립 균형 찾으니 회사도 이익 능력있는 직원 지키는 게 합리적 경영”

입사후 33년간 인력관리한 'HR 전문가' 인재경영으로 일하기 좋은 기업 만들고파



백진기 한독 부사장은 33년간 인력관리만 해온 HR 전문가로 일과 가정을 병행할 수 있는 다양한 제도를 시행하며 남녀고용 평등에 앞장서고 있다. 고이관 기자 photoeran@

“우리 조직 문화는 ‘합리’에서 시작한다. 어떤 제도나 정책을 시행하고 평가하는 것대는 합리적인지 아닌지에 초점을 맞춘다. HR(Human Resources) 시스템도 마찬가지다. 조직원들에게 동기부여가 되는 HR 시스템이 구축되지 못하면 인사의 존재 이유가 없다. 조직원들이 신나게 업무에 몰입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강화하는 것이 업무의 핵심이자 최대 고민거리다.”

백진기 한독 부사장이 인터뷰에서 강조한 말이다. 백 부사장은 1984년 한독약품(현 한독) 인사와 인사원으로 입사해 약 33년간 인력관리만 해온 HR 전문가다. 지난 2013년에는 일과 가정을 병행할 수 있는 다양한 제도를 시행하며 남녀고용 평등을 실천하고 있는 점을 높이 평가받아 고용노동부로부터 '남녀고용평등 유공자' 국민훈장을 받았다. 백 부사장이 생각하는 인력관리의 핵심 가치는 무엇인지, 어떤 인재경영의 가치관으로 한독을 일하기 좋은 기업으로 만들고 있는지 궁금했다.

“한독은 글로벌 합작기업으로 선진국형 인사 시스템과 문화를 일찍부터 수용했고, 직원들이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왔다. 내가 입사했을 당시에도 격주로 주 5일제 근무를 시행하고 있었다. 직원이 즐겁고 행복해야 일의 능률도 오르고 회사도 함께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한독은 1977년부터 격주 휴무제를 시행했다. 주 5일 근무제도는 실제 법제화된 2005년보다 훨씬 빠른 1998년부터 도입했다. 탄력근무제도 2000년부터 시작했다. 육아휴직 중 승진한 여성을 종종 볼 수 있으며, 휴가 제도 사용에 따른 불이익을 없애 제도의 수용성을 높였다. 육아휴직에 따른 인력 손실은 계약직 대체인력을 활용한다. 이 같은 제도과 정책안에 담아낸 핵심 가치는 합리과 실용성이다. 백 부사장은 조직원들이 어디서든 자신에게 주어진 일만 잘하면 된다고 강조한다.

이 같은 조직문화는 자연스레 역량이 뛰어난 여성 인력들을 확보할 수 있게 했다. 현재 여성 직원 비율은 전체의 약 41%를 차지하고 있다. 실장 이상의 고급관리자도 여성 비율이 40%에 달한다. 남성 중심이고 보수적이라는 인식이 강한 제약업계에서는 고무적인 결과다. 백 부사장은 “우리는 약물이 없는 회사다. 직원들이 스스로 자신이 속한 기업을 추천하는 회사다. 퇴사하겠다고 하면 오히려 가족들이 반대하고 나선다”며 한독의 조직문화를 자부했다.

“출산과 육아 휴직을 단기적으로 보면 기업 차원에서 인력 손실로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중장기적으로 보면 유능한 인재가 다시 회사에 돌아와 더 열심히 일하게 되므로 결국 회사에 이익이 된다. 능력 있는 인재가 계속해서 커리어를 이어가가는 것은 본인뿐만 아니라 기업, 더 나아가서 사회적으로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백 부사장은 한독이 더욱 여성들이 일하기 좋은 기업으로 성장하길 바란다. 그래서 직원이 일과 가정의 조화로운 균형을 이루며 개인의 능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일터가 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 변화를 맞게 될 미래의 근로 형태에 대해 거부감 없이 유연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조직문화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목표다. 김민정 기자 mj\_kim@

### 직원들이 말하는 '일하기 좋은 우리 회사' 3가지 이유

능력에 따른 평가... 육아휴직 중 승진했죠

저는 2012년 육아휴직 중에 사원에서 주임으로 승진했어요. 동료로부터 승진 소식을 들었을 때 거짓말인 줄 알았어요. 회사는 승진심사를 하면서 육아휴직 대상자라고 불이익을 주지 않았고, 다른 직원들과 동일한 기준으로 평가했어요. 승진 소식을 듣고 더 열심히 일해야겠다는 마음으로 바뀌었어요. 실제 복귀 후 정말 열심히 했고, 그 뒤로 대리로 승진하고 우수사원으로 여러 번 상을 받기도 했죠. <전선희 영업본부 대리>

남성 육아휴직도 걱정 '뚝'... 애사심은 '쑥'

올해 아내가 복직을 앞두고 있는데, 두 아이(6세, 2세)를 돌봐 줄 사람이 없어 고민하다 내가 육아휴직을 하기로 결심했어요. 우리 회사의 경우 2013년 최초 남성 육아휴직자가 생겼고, 남성 육아휴직 사례가 종종 있었기에 어렵지 않게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었죠. 지난해 12월부터 1년간 육아휴직을 하게 됐어요. 아이를 보면서도 늘 돌아갈 곳이 있다는 점이 든든했고, 애사심도 이전보다 몇 배로 커졌네요. <전치홍 품질운영실 주임>

직장내 어린이집 덕분에 마음 놓고 일해요

21개월 된 아이를 키우는 워킹맘입니다. 올해부터 어린이집을 보내려고 알아보는데,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집 근처 구립어린이집 대기번호가 500대였어요. 2~3년 안에 자리가 날 리 없죠. 그런데 행운은 뜻밖에 찾아왔어요. 올해부터 회사에서 본사 인근 어린이집과 위탁 운영 계약을 체결해 직장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게 된 거죠. 직장 어린이집이라 믿을 수 있고, 가까이 있어 더욱 안심돼요. 게다가 주차 공간과 일부 보육비를 보조받을 수 있게 돼 마음 놓고 업무에 몰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정가영 메디컬팀 대리>

사무기기 전문기업

**현대오피스**

## 우리 아이의 꿈노트, 직접 만들어 주세요!

아이들이 꿈을 잃어버리지 않게 현대오피스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가정에서도, 사무실에서도 사무기기는 현대오피스입니다**

(주)현대오피스는 미래의 희망인 아이들의 꿈을 응원합니다.

가정에서 초보자도 쉽게 사용할 수 있는 현대오피스의 코팅기로 내 아이의 목소리나 교육용 시작해 보세요!  
전제품 안전인증마크 획득으로 더욱 믿을 수 있고 안전한 사용이 가능합니다.

**심플 & 스마트한 탁상용 문서세단기**

개인정보 유출은 이제 그만  
고지서·영수증을 깔끔하게 세면

**엄마표 교구제작의 필수품! 코팅기**

빛에 바래거나 물에 젖을 일 없게  
중요문서·아이들 교구까지

**나만의 책 만들기로 학습효과 UP! 제본기**

제인서·연습장·교재제작 등  
필요한 내용만 복사!

www.hd2.co.kr    검색    현대오피스    제품구매 및 상담    **1566-3445**

제품구매처 | 현대오피스 쇼핑몰 www.hd2.co.kr | 옥션, 지마켓, 11번가, 인터넷, 조달청 나라장터, 교육기관 전자조달시스템, 공무원연금채우소평물, 씨제이, 신세계, 1300k, NH마켓, nsmall, d&shop, 현대 Hmall, GS SHOP, 롯데닷컴, 롯데이몰, 네이버 지식쇼핑, 네이버 체크아웃, 네이버 샵N, B2B ZONE, 예누리닷컴, 어바웃, 다나와

# “흡연권” vs “혐연권”... 딜레마에 빠진 금연정책

지난 토요일인 11일 오전 서울 지하철 2호선 을지로입구역 출구에서 나와 명동으로 걸어가던 김모(36) 씨는 무심코 담배를 빨다 주위 눈초리가 따가워 다시 담배를 주머니에 집어 넣었다. 금연구역인 것은 알고 있었지만, 주말 아침이라 사람들이 신경쓰지 않을 것으로 생각해 습관적으로 담배를 물었던 게 오산이었다. 그는 “유동인구가 많은 곳을 금연구역으로 정하는 것까지는 좋는데, 혐연권도 보장해 줬으면 좋겠다”며 “이렇게 온통 금연구역으로 만들면 대체 담배를 어디서 피우라고 하는 것이냐”고 불만을 토로했다. 그는 이어 “금연구역 확대에 비례하진 않더라도 사람이 많은 곳에는 흡연부스를 설치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항변했다.

이에 반해 김 씨 옆을 지나가던 대학생 이모(25) 씨는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을 금연구역으로 정하지 않더라도 당연히 흡연을 하면 안 된다”면서 “흡연권과 혐연권이 상충했을 때 당연히 혐연권이 우선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옆에 있던 사회 초년생 한모(29) 씨는 “금연구역이 아닌 곳에서도 흡연을 하면 사람들의 시선이 부담스럽고, 입사한 회사는 아예 흡연금지라 작년부터 전자담배를 피우기 시작했다”며 “단순히 금연구역 지정용 확대하기보다는, 흡연 가능 지역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을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서울시 금연구역 1만6984개소로 6년새 25배  
흡연구역 43곳 불과... 애연가들 한숨만 뿜어  
비흡연자 5명 중 4명도 “흡연공간 마련해야”**

**‘폐쇄형’ 흡연자 꺼리고 ‘개방형’ 담배연기 퍼져  
시, 금연구역 확대·흡연실 가이드라인 고민**

흡연자가 공공장소에서 담배를 피울 수 있는 흡연권과 비흡연자가 담배 연기를 거부할 수 있는 혐연권의 논란이 증폭되면서 금연구역 확대 정책을 유지하고 있는 서울시가 딜레마에 빠졌다. 서울시는 금연구역 확대 정책 기조를 이어가고 있지만, 혐연권도 보장해 달라는 흡연자들의 민원이 빗발치고 있어 몸살을 겪고 있다. 전문가들 역시 서울시가 일방적으로 금연거리를 지정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는 금연정책을 손봐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지만, 시는 아직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16일 서울시에 따르면 2011년 670곳에 불과하던 서울 시내 금연구역은 2017년 1월 1만6984곳으로 25배 이상 증가했다. 서울시가 금연구역으로 지정한 면적은 82.51㎢에 달하며, 이는 공원·광장·거리·광장·공원) 비율이 전체 면적(35.4㎢)의 39.0%로 가장 많다. 이어 서대문구(26.5%), 중랑구(21.1%), 은평구(20.4%), 종로구(19.8%) 순이다.

이에 반해 흡연구역은 서울 시내 통틀어 43곳에 불과하다. 합법적인 흡연구역 43개소는 서울시 24개 자치구 중 11개 자치구에 설치돼 있다. 송파구 9개소, 서초구 8개소, 서대문구 6개소, 중구 5개소 등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꺾연가들의 흡연부스 요구 민원은 봇물을 이루고 있다. 한 시민은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나서 흡연권과 혐연권을

동시에 보장할 수 있도록 흡연부스 설치를 적극 권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시민은 지난해 6월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전국 19세 이상 흡연자와 비흡연자 각각 500명을 대상으로 흡연공간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흡연공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79.9%로 나타났다는 구체적인 근거도 제시했다. 당시 조사에서는 응답자 중 흡연자 77.0%가 흡연공간이 필요하다고 대답했고, 비흡연자 80.6% 또한 흡연공간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애연가라고 밝힌 또 다른 시민은 “담뱃값 인상으로 세금도 많이 내게 됐는데, 어디서 피우야 할지 모르겠다”며 “정부 정책이 금연에 맞춰져 있다는 것은 이해하지만, 흡연부스를 만들어 줘야 비흡연자들도 스트레스를 받지 않을 것”이라고 각을 세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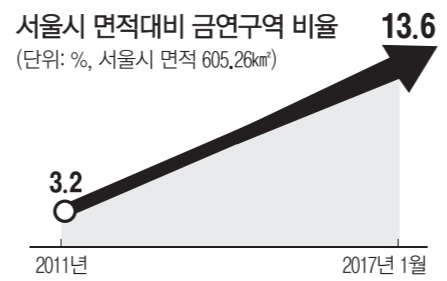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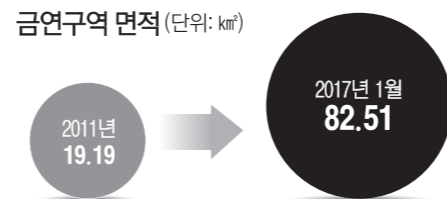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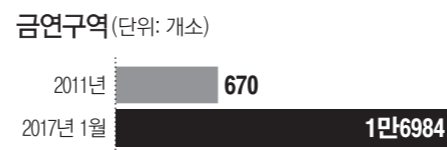
흡연가들의 요청에도 서울시는 “당초 2014년까지 전체 면적의 21%를 실외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방침이었다”면서 “지하철역 출입구 등을 추가로 지정한 것처럼 금연구역 확대 기조를 계속 이어갈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금연정책을 확대하면서 동시에 흡연부스 설치를 권장하는 것은 모순으로 보여 입장이 애매모호하다”면서 “공공장소에서의 흡연실 가이드라인도 고민하고 있다”고 전했다.

흡연구역에 설치된 부스 유형도 서울시가 고민하는 것 중의 하나다. 서울시에 설치된 흡연부스는 개방형, 폐쇄형, 부분폐쇄형 등 3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열과 뒤 백면이 뚫려 있는 ‘개방형 흡연부스’가 28곳으로 가장 많고, 모두 막혀 있는 ‘폐쇄형 흡연부스’는 11곳이다. 일부 방향만 개방돼 있는 ‘부분폐쇄형 흡연부스’는 4곳에 설치돼 있다. 개방형의 경우 환기구가 설치돼 있더라도 담배 냄새가 주변으로 퍼질 수밖에 없고, 폐쇄형은 답답하다는 흡연자들의 불만이 많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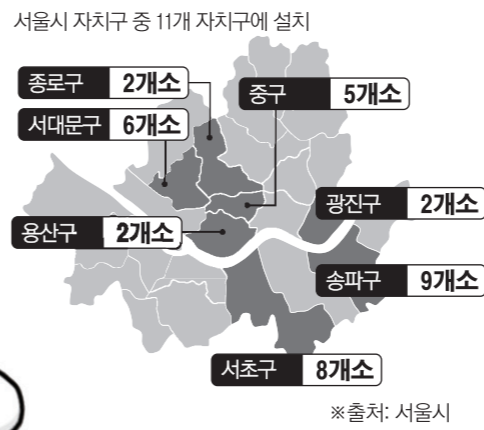
한국보건산업연구원 관계자는 “유동인구·주변 환경은 물론, 흡연율 감소, 간접흡연 피해 정도 등 다양한 요인을 고려해 금연구역 확대와 흡연구역 설치, 흡연부스 유형 등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시가 금연정책과 관련해 갈팡질팡한 사이 자치구는 간접흡연 피해를 줄이기 위해 자체적으로 흡연부스 설치를 진행 중이다. 각 자치구는 흡연부스 설치가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판단해 이 같은 정책을 이어가고 있다. 이선애 기자 isa@

## 서울시 실외 금연구역 추이



## 서울시 흡연구역



## 금연거리 확대하는 자치구 흡연구역 지정, 왜 늘리지?

서울시 자치구들이 흡연자들의 지속적인 민원제기에 떠밀려 흡연구역 지정에 적극 나서고 있다.

16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내 자치구별 흡연구역은 2013년 서울역 광장이 처음 지정된 이후 순차적으로 늘어났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송파구 9개소, 서초구 8개소, 서대문구 6개소, 중구 5개소, 강남구 3개소, 종로·용산·성동·광진구 각 2개소, 마포·구로구 각 1개소 등 대형건물이 밀집한 자치구를 중심으로 흡연구역들이 지정돼 있다.

자치구들은 흡연자들의 지속적인 민원 제기 때문에 흡연구역을 늘려갈 수밖에 없다고 입을 모은다. 중구 보건소 관계자는 “흡연자들로부터 ‘금연구역이 이렇게 많으면 우리는 도대체 어디서 담배를 피우냐’는 민원이 쇄도해서 골머리를 앓는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흡연장소를 못 찾은 일부 흡연자가 인도만 금연구역이라는 점을 이용해 차도에

**흡연자들 잇단 민원제기에 흡연시설 증설  
금연·흡연 동시에 권하는 ‘엇박자 정책’ 지적  
“간접흡연 피해 예방...신규 지정 신중할 것”**



서울시 중구에 설치된 한 흡연부스.

나가 담배를 피우는 사례까지 발견될 정도”라며 “같은 시민인 흡연자들의 불편도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특히 대형 사무용 빌딩이 많은 중구의 경우 흡연자들의 흡연권 보장을 위해

각 건물마다 자체적인 실내 흡연실을 확보할 것을 요구했지만, 강제성이 없어 실현되는 경우가 거의 없다고 하소연했다. 결국 금연정책의 실무를 담당하는 자치구 차원에서 흡연구역을 늘리는 것 외에는 특별한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흡연구역 증가에 대해 일각에서는 금연과 흡연을 함께 권하는 ‘엇박자 행정’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서울시와 자치구들 역시 이 같은 지적을 인지하고 있지만, 현재로서는 흡연자와 비흡연자들로부터 접수되는 민원을 모두 처리해주는 것 외에 뾰족한 대안은 없다고 입을 모은다.

서울시 건강정책팀 관계자는 “흡연구역을 지정하면 흡연자와 비흡연자 모두에게 좋을 것이라고 오해하는데, 실상은 그렇지 않다”며 “실시 우리나라도 가입된 WHO의 ‘담배규제기본협약’에 의하면 흡연실 설치를 통한 흡연 정책이 효과가 거의 없다고 나타나 있다”고 지적했다. 흡연실을 설치해도 밖에서 흡연하는 시민들이 있는가 하면, 폐쇄형 부스에서 담배 연기가 새어나오기 때문에 비흡연자들의 민원도 많다는 것이다. 그는 “자치구 입장에서 흡연자 민원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나름대로 난처한 입장”이라고 곤란함을 나타내기도 했다. 이 관계자는 “흡연구역을 정확히 몇 개까지 늘리겠다는 계획은 없지만, 시민의견을 수렴해 간접흡연 피해자를 예방하는 선에서 조금씩 늘릴 것”이라며 “현재로서는 흡연구역 신규 지정은 되도록 신중히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정용 기자 cogito@

미국의 대대적인 신자유주의정책의 환상은 여전히 유효한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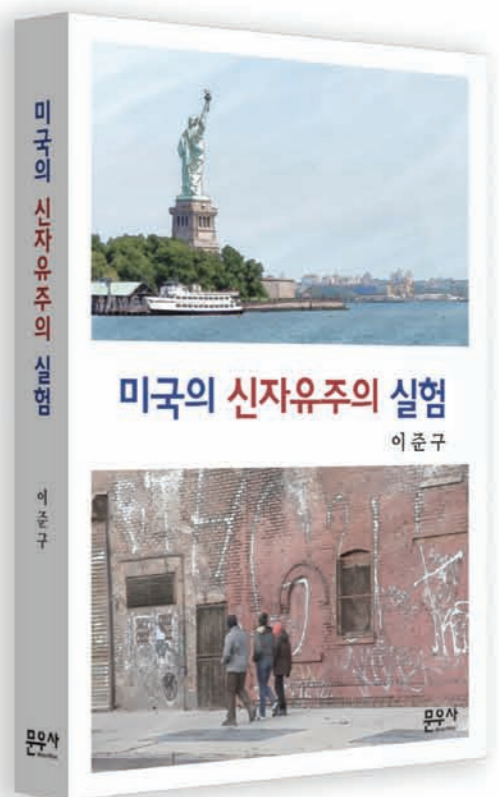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이준구 명예교수의

# 미국의 신자유주의 실험

미국의 감세정책 실험은 과연 경제 살리기에 성공했는가?

**한국 사회를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어 가고 있는 정책들의 배경에 도사리고 있는  
사대주의에 사로잡힌 정치인들의 분별없는 '미국 따라 하기'에 울리는 경종**

정부는 약덕(vice)이며 시장은 미덕(virtue)이라는 신자유주의 이념의 광풍이 미국뿐 아니라 전세계를 거세게 휩쓸고 지나갔다. 특히 지지부진한 경제성장으로 인해 많은 경제적, 사회적 문제들이 분출되어 나오는 곳일수록 신자유주의의 마력은 더욱 큰 힘을 발휘했다. 하지만 시장에 모든 일을 내맡기는 체제가 가장 효율적이라는 믿음은 마치 진공상태처럼 모든 조건이 통제된 상황에서만 성립할 수 있는 가공의 신념일 뿐이다. 결국 글로벌 금융위기의 발생과 함께 신자유주의정책에 대한 환상은 어느 정도 깨져버린 상태가 되었고 세계의 모든 나라들이 규제 철폐와 세금 감면만이 만병통치약이 아니라는 진실을 서서히 깨달아가고 있다. 그러나 보수층과 경제계를 중심으로 우리 사회 일각에는 아직도 신자유주의정책에 대한 미련이 강하게 남아 있는 것을 볼 수 있으며 그 한 예로 감세는 미덕이고 증세는 약덕이라는 단순하고 맹목적인 논리를 발견하게 된다. 이 책은 보수세력이 정치와 사회의 헤게모니를 잡으면서 최상위 1%에 속하는 가진 자의 천국이 된 결코 답지 않아야 할 미국의 신자유주의정책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을 담고 있으며 성숙한 한국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진지한 질문을 던지고 있다.



이준구 지음 | 288쪽 | 문우사 | 값 18,000원

문의: 031-901-6542

# 美증시 연일 랠리...코스피, 커플링 언제 끝까지

뉴욕증시가 연일 사상 최고치를 갈아 치우고 있는 반면 우리 증시는 지지부진한 모습이다. 다행히 코스피가 하루만에 반등했지만 여전히 지난 5년간 머물러온 '1840~2190선 박스피'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15일(현지시간) 뉴욕증시 3대 주요 지수는 모두 5거래일 연속 사상 최고가 행진을 이어갔다. 이날 S&P500 지수는 전장보다 11.67포인트(0.50%) 높은 2349.25에 거래를 마쳤다. 특히 금융주들이 급등하며 지난해 11월 8일 이후 16번째 사상 최고가를 기록했다. 다우존스 30 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107.45포인트(0.52%) 상승한 2만611.86에 거래를 마쳤으며 나스닥종합지수도 36.87포인트(0.64%) 오른 5819.44에 장을 마감했다. 이는 재닛 옐런 연방준비제도(Fed)

3대 지수 5일째 사상 최고 마감  
 엘런, 3월 금리인상 시사 불명거  
 국내 증시 대내외적 불확실성에  
 2080선 회복했지만 아직 박스권  
 기업 실적개선·강달러 진정 기미  
 "올해 2300 가능" 긍정적 전망도

의장이 14일(현지시간) 상원 은행위원회에서 "다가오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에서 Fed는 고용과 인플레이션이 지속적으로 진전하고 있는지를 평가하고 경우에 따라 연방기금 금리의

추가 적 조정이 적절할 것 같다"고 말하며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을 내비쳤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이르면 3월 금리가 인상될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반면 국내 코스피지수는 15일 오전까지만 해도 전 거래일 대비 0.97포인트(0.05%) 내린 2073.60에 출발하며 이들 연속 내림세를 보였다. 다만 이날 원·달러 환율 상승에 따른 외국인 매도규모 축소, 기관 매수세에 힘입어 반등에 성공하면서 지난 1일 이후 10거래일 만에 2080선을 회복했다.

이날 코스피는 전날보다 9.29포인트(0.45%) 오른 2,083.86에 거래를 마쳤다. 코스닥지수도 전날보다 4.41포인트(0.72%) 오른 615.95에 장을 마쳤다. 이날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4.8원 오른 1142.2원에 마감했다.

국내 증시가 하루 만에 반등했지만 박스권을 벗어나기엔 여전히 거리가 있다. 이는 대내외적 불확실성에 따른 불안감을 떨쳐버릴 수 없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김용구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환율 조작국 지정 우려 등 트럼프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국내 증시는 당분간 소강상태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다. 실제 시장에서는 미국의 환율조작국 지정과 맞물려 4월 위기설이 나돌고 있는데다 프랑스 대선이 예정돼 있는 등 3~4월 중 유럽 정치권에 불확실성이 많다는 점 역시 국내 증시의 발목을 잡을 수 있는 변수다.

다만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박스피(박스권+코스피)를 벗어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달러 강세가 진정 국면으로

접어 들면서 국내 기업들의 이익이 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경수 메리츠증권증권 센터장은 "지금까지 코스피 지수가 박스권에 머물렀던 핵심적인 이유는 국내기업의 이익이 80조 원을 넘지 못했단다. 달러가 강세였기 때문이다. 결국 해외 유동성 자금이 들어오기에는 매력이 떨어졌기 때문"이라며 "하지만 지난해 기업 실적은 80조 원대 이익을 훌쩍 뛰어넘는 완전히 차별화 된 레벨 업으로 95조~100조 원 사이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지난 4년간의 달러 강세도 점차 진정될 것으로 보여 그간의 걸림돌 2가지가 풀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이 같은 상황이라면 코스피지수도 2200~2300까지 올라 박스피를 탈피할 것이라는 전망도 해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하유미 기자 jscs508@

## 프리젠 454% 폭등 한진해운 '테자뷰'

### 상폐 앞 정리매매...투기 물러

상장폐지에 따른 정리매매 풍목이 발생하면서 단기 차익을 노린 '물자마' 투자가 이어지고 있다.

15일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에 따르면 자동차 전장품 제조업체 프리젠은 이날부터 오는 23일까지 상장폐지에 따른 정리매매 절차에 돌입했다.

거래소가 밝힌 프리젠의 상폐 사유는 최근 5사업연도 연속 영업손실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정리매매 기간은 7거래일 동안 진행되며 상장폐지일은 오는 24일이다.

프리젠은 지난 2013년 3월 15일부터 거래정지 상태에 있었다. 유가증권시장까지 포함해 가장 오랜 기간 거래가 정지된 종목이다. 적자가 지속됐다는 점도 문제였지만 거래정지 장기화의 가장 큰 요인은 4년에 걸친 거래소와의 법적 다툼 때문이었다.

문제는 정리매매를 위해 프리젠의 거래가 재개되자 주가가 최대 450% 이상 치솟는 등 이상 급등 현상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프리젠 주가는 이날 454.35%(4180원) 오른 5100원에 거래를 마쳤다.

한진해운 사태에서 볼 수 있듯 투기성 매매는 심각한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 파산 선고에 거래가 정지된 한진해운은 청산 가능성에도 단기 추종 세력의 매수세가 유입되며 거래정지 직전까지 거래량이 몰렸다. 그 결과 일부 투자자의 경우 투자 금액의 최대 40%가 넘는 손실이 발생하는 등 피해가 막심했다.

최두선 기자 sun@

## 눈치보는 국민연금? '삼성합병 반대' CGS 자문기관에

〈한국기업지배구조원〉

공동 자문...올해는 단수선정  
 찬성의견 대신경제연구소 탈락  
 특혜 의혹 잡음 피하기 지적에  
 국민연금 "업계 선두 뽑았을뿐"

국민연금이 올해 의결권 자문기관으로 한국기업지배구조원(CGSI)을 선정했다.

의결권 자문기관 중 유일하게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했던 대신경제연구소는 이번 자문기관 선정에서 탈락 배경에 궁금증이 쏠리고 있다.

16일 국민연금과 금융투자 업계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지난해 CGS와 의결권 자문 계약을 체결했다. 2015년 국민연금이 처음 의결권 자문을 한 후로 3년 연속 CGS가 임무를 맡게 됐다.

지난해 국민연금은 CGS와 서스틴베스트 두 곳을 자문기관으로 채택하고 각 기관에 의결권 행사 대상 기업을 일정량씩 분배했다.



그러나 올해는 단수입찰로 진행해 CGS와 대신경제연구소가 경쟁했다.

CGS는 2013년부터 본격적으로 의결권 자문 서비스를 시작한 업계 선두주자다. 대신경제연구소는 2015년 3월부터 자문 시장에 진출했다.

금융업계 한 관계자는 "CGS가 다른 의결권 자문기관에 비해 압력이 있고 전문성이 높은 측면도 있지만 삼성 합병 이슈와 관련해 의혹에 휩싸인 국민연금이 잡음을 피하기 위해 대신경제연구소 선정을 피한 면도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실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안건에 대해 대신경제연구소는 의결권 자문기관 중 유일하게 찬성 의견을 권고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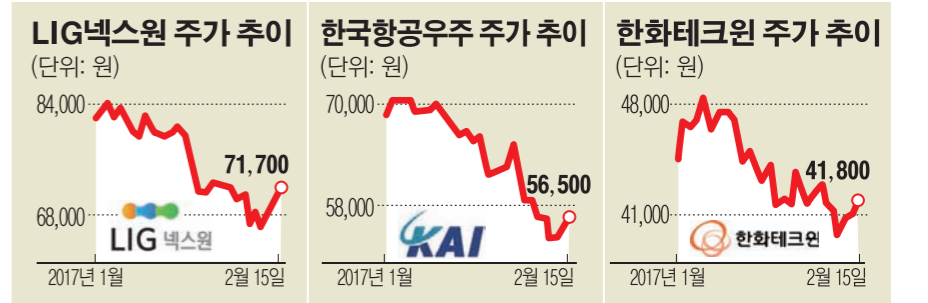
반면 CGS와 서스틴베스트는 국민연금 입장에서 해당 합병은 손해가 커 반대 의견을 내야 한다고 권했다.

특검은 당시 찬성표를 던진 국민연금이 청와대와 비선 실세의 압력이 있었는지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을 구속하고 흥완선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 기소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한편 3년 차를 맞은 국민연금의 의결권 자문과 관련해 자문기관 선정 기준과 기간 등을 보다 구체적으로 정립하고 공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자산운용사 관계자는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는 다른 기관들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며 "연단위 단기간 분석보다는 중·장기 계약을 통해 의결권 기준을 정립하고 전문화하는 것이 기업과 다른 기관투자자에도 안정성이 있다"고 말했다.

정다운 기자 gamja@



## '미사일·김정남' 北이슈에 방산주 들쭉

한화테크윈·KAI 등 일제히 상승  
 시장 "실적개선 없던 단발 그칠것"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이북형 김정남 피살 소식에 방위산업 관련주가 일제히 상승했다. 그러나 증권가에서는 이번 사건의 영향이 '반짝 효과'에 그칠 것으로 봤다. 그만큼 투자자들의 주의가 요구되는 시점이다.

15일 유가증권시장에서 대표 방산주인 한화테크윈은 1.83% 상승한 4만1800원에 거래를 마쳤다. LIG넥스원(2.14%)과 한국항공우주(1.25%), 풍산(0.97%)도 함께 올랐다. 코스닥시장에서는 빅텍(1.35%)이 상승 마감했다.

방산주는 북한이 지난 12일 동해상에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데 이어 김정남 피살 소식까지 전해지면서 최근 3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기록했다.

올해 들어 줄곧 내리막길을 걷던 LIG넥스원은 사흘간 8.6% 뛰었으며, 한화테크윈은 4.5%, 한국항공우주는 3.8% 올랐다.

하지만, 증권가에서는 미사일 발사와 김정남 피살 등 연속적인 안보 이슈가 방산주의 추세적인 상승세를 낳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했다.

박상현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그동안 한반도에 지정학적 위기가 여러 번 발생했지만 관련주의 상승·하락이 지속된 경험은 거의 없다"면서 "김정남 피살 사건 같은 경우는 북한 내부적 문제로 우리에게 실질적 영향이 적은 이슈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실적 개선이 가시화하기 전까지 방산주 주가는 박스권에 움직일 것으로 봤다. 아울러 방산업체에 대한 증권가의 실적 눈높이도 전반적으로 낮아지는 흐름이다. 유혜은 기자 euna@

창조, 융합, 연결, 확장 등의 키워드로 살펴보는 2050년

## STATE OF THE FUTURE 세계미래보고서 2050

미래사회, 인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말한다



박영숙·제물 글렌 지음 | 376쪽  
 교보문고 | 값 15,000원

현재의 가치관으로는 전혀 상상할 수 없는 미래  
 2050년을 읽으려면 먼저 당신의 사고방식을 바꿔라!

《세계미래보고서 2050》은 신기술과 변화하는 미래의 모습만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기술의 발달로 인한 사회구조의 변화, 그리고 그에 따라 우리가 바꿔야 할 사고방식에 대해 중점적으로 다루고자 했다. 지금까지 《세계미래보고서》 시리즈는 에너지, 인공지능, 직업, 우주개발, 수명연장 기술 등 주로 소재적인 키워드를 중심으로 미래예측을 소개해왔다. 그런데 이번에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미래의 변화를 상징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새로운 키워드를 선택했다. 창조, 문제 해결, 융합과 연결, 확장 등이 그것이다. 변화는 여러 분야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며 각각 개별적인 것으로 보이지만, 모든 변화는 이들 키워드로 수렴된다.

문의: 02-3156-3824

리커버 특별한정판 출간

110만 독자가 선택한 우리 시대 최고의 인문교양서

## 지적대화를 위한 넓고 얇은 지식

리커버 특별한정판 출간  
 양장본 세트(전 2권) + 에코백



채사장 지음 | 1권 376쪽 2권 372쪽  
 한빛비즈 | 값 32,000원

'꼭 필요한 최소한의 지식'이라는 콘셉트로 재해석한 표지와 한정판으로 제작된 '지대넓얇' 에코백으로 소장 가치를 높인 특별한정판!

2017년을 맞아 새롭게 각오를 다지는 지인들에게 아주 특별한 《지대넓얇》을 선물하세요.

《지적 대화를 위한 넓고 얇은 지식》은 개별적 지식을 가르치지 않는다. 세계가 어떻게 신자유주의 시대가 되었는지, 정부의 경제정책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진보와 보수가 무엇인지, 사회문제들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지 통시적으로 알려준다. 이 거칠고 거대한 흐름을 꿰다보면 세계사는 물론 경제 원리, 정치 이슈, 사회문제들이 한 방에 명쾌히 이해된다.

※ 한정수량으로만 제작되었으며, 재고 소진 시 종료됩니다.

문의: 02-325-5506



# 에이티젠 'NK뷰키트' 이번엔 중동시장 두드린다



## 중동 유력 사업파트너 27일 내방 결코 협력 회의 6개국 판매 논의

대만·러시아 인허가 마무리 단계  
태국·이탈리아 조만간 판매 개시  
일본·터키·싱가포르 진출도 모색

에이티젠이 중동지역 유력 사업파트너와 제품 판매와 투자유치 등에 대해 논의한다.

NK세포의 활동성을 측정하는 키트 기업 에이티젠은 오는 27일 아랍에미리트와 사우디아라비아의 유력 사업 파트너가 본사를 내방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중동지역 사업의 본격 진행을 위한 것이라는 회사측의 설명이다. 이번 방문 시 걸코협력회의(GCC) 6개

국에서의 NK뷰키트 판매, NK세포치료제 협력 방안 및 중동에서의 투자 유치 문제가 논의될 예정이다.

회사 측은 지난해 11월 사업에 관한 업무협약이 체결된 후 구체적인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이라며 중동 파트너 측의 사업 추진 의지가 강해 조만간 가시적 결과가 도출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에이티젠은 지난해 11월 에미리트 존과 중동 사업을 위한 위탁 업무협약을 체결해 중동지역 진출의 발판을 마련했다.

지난 1월 GCC 6개 국가(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카타르, 바레인, 오만 및 아랍에미리트)에 대한 의료기기 인허가를 위한 서류 접수에 들어가, 올 하반기 전 인허가 절차가 완료될 것이라 기대 회사측의 예상이다.

중동지역 이외에도 지난해 독점권 계약이 체결된 대만, 인도네시아, 카자흐

스탄, 러시아에 대한 인허가 절차도 하계를 전후해 순차적으로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태국, 이탈리아 등 인허가 절차가 완료됐거나 곧 완료 예정인 국가에 대해서는 조만간 판매가 시작될 예정이다.

일본을 비롯한 터키, 싱가포르 시장 진출도 모색하고 있다.

박상우 에이티젠 대표는 "현재 일본 대형 제약회사와 현지 허가 및 판매를 위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터키 및 싱가포르의 사업 파트너와도 계약 조건에 대해 협의 중에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에는 NK뷰키트 본격 판매를 위한 국내외 공급망을 확대하는 성과가 있었다"며 "올해부터는 국내외에서 매출 증가를 큰 폭으로 늘려 실적 턴어라운드를 달성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우람 기자 hura@

## '필로시스 혈당측정기' 국내 독점 판매권 획득 코디엠 '바이오플랫폼' 속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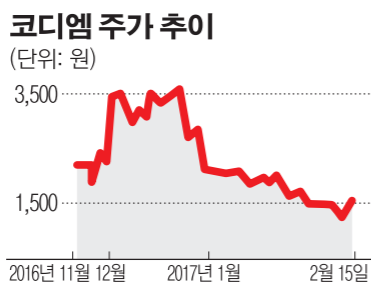
코스닥 상장사 코디엠이 필로시스의 혈당측정기 국내 독점 판매권을 따내며 바이오 플랫폼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코디엠은 필로시스가 보유하고 있는 혈당측정기 및 제반 제품에 관한 국내 독점 판매권을 획득했다고 16일 밝혔다. 지난달 9일에는 필로시스와 전략적 사업제휴를 맺고 20억 원 규모의 필로시스 신주인수권 부사채(BW)를 취득한 바 있다.

필로시스는 지난 2009년부터 혈액진단측정기 개발에 매진한 결과, 2011년 세계 최초로 스마트폰용 혈당측정기 개발에 성공했다. 지난해 멕시코 현지에서 실시한 해외 평가 결과 전 세계 혈당기 업체 2위 존슨앤존슨(Johnson & Johnson)에 비해 정확도, 재현성에서 동등하거나 다소 우수한 결과를 확인했다.

스마트폰을 활용한 혈당측정기는 앱(APP)을 실행해서 혈당 측정이 가능한 뿐만 아니라 혈당 검사 결과를 이메일, 문자로 바로 의사에게 전송할 수 있다. 기존에 혈당 측정 후 환자가 수기로 메모해야 하는 불편함 등을 대폭 개선해 편의성을 높였다고 회사 측은 강조했다.

코디엠 관계자는 "필로시스는 글로벌 시장에서 혈당측정기 수요가 급증해 해외 수출시장을 우선 공략하면서 상대적으로 국내 시장 진출이 늦어졌다"며 "지난달 연간



## 지난달 전략적 사업제휴 맺고 20억 신주인수권부 사채 취득

500억 원 규모의 생산시설을 갖춘 산 제2공장 준공을 계기로 국내 판매 물량을 확보했으며 연간 5조 원 규모에 달하는 국내 의료기기 시장에 진출해 본격 판매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자료에 따르면 2015년 국내 의료기기 시장 규모는 5조2656억 원으로 전년 대비 4.9% 성장했으며 2011년 이후 연평균 5.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디엠은 독점 판매계약을 통해 이미 글로벌 시장에서 품질과 기능을 인정받은 지메이트 스마트(Gmate Smart)를 국내에 공급하게 됐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의 당초 소모품 급여확대 고시 등을 통한 국내 시장 안착이 가능할 것으로 회사 측은 내다보고 있다.

최두선 기자 su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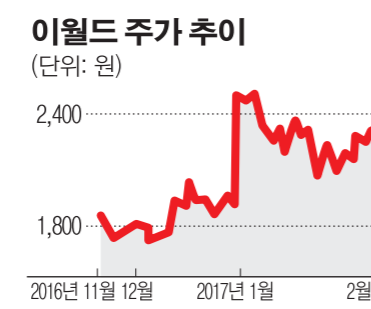
## 이월드, 年 입장객 50만 '쑹'... 5년 만에 흑자

### 지난해 영업익 42억... 765% 상승 "올 200만 방문객 330억 매출 목표"

이월드가 테마파크 인수합병 5년 만에 흑자전환에 성공했다. 대구·경북 지역 고객 니즈를 확인하고 투자한 결과 인수할 당시 대비 연 50만 명의 입장객이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16일 이월드 관계자는 "법정관리 중 이던 대구·경북 테마파크를 지난 2010년 인수한 이후 연 50만 명의 입장객이 증가했다"며 "세계 유일의 타워(Tower)와 파크(Park)가 어우러진 유럽식 도시공원' 등 지속적인 시설 투자를 통해 대구·경북 지역 테마파크로 자리 잡았다"고 밝혔다.

이월드가 시설투자와 함께 여러 축제 개발을 통한 볼거리를 확보한 것도 입장객 증가에 주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이에 이월드는 지난해 별도기준 영업



이익이 전년 대비 732.1% 늘어난 42억 원을 기록했다. 매출액도 296억 원으로 22.3% 늘었고, 당기순익은 20억 원으로 흑자전환했다. 올해에도 이월드는 좋은 실적이 예상된다.

이월드 관계자는 "대구·경북 지역을 넘어 발달한 교통과 대구지역의 관광 자원과 결합한 상품 개발로 지속적인 성장을 기대하고 있다"며 "올해 방문객 200만 명, 매출 330억 원, 2020년 방문객 300만 명, 매출 600억 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설경진 기자 skj78@

## 연우 "드롭퍼 튜브 新기술로 글로벌 공략"

### '2017 ADF' 혁신제품 선정 미국·중국·일본서 특허 출원

화장품 기능성 용기 제조·제품개발 기업 연우가 기존 튜브에 애플리케이터(Applicator)를 장착한 드롭퍼 튜브(Dropper Tube)를 통해 글로벌 시장을 적극 공략한다.

연우는 2017 ADF(Aerosol & Dispensing Forum)에서 자사 드롭퍼 튜브 제품이 퍼스널 케어(Personal Care) 부문 혁신 제품으로 선정됐다고 16일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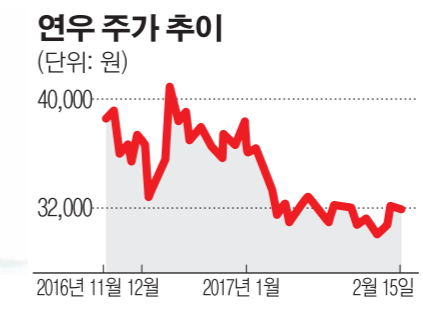
ADF는 매년 전 세계 분사(Aerosol) 및 펌프(Pump) 패키징 분야의 혁신 제품을 선정해 수상하는 행사로 올해로 11회째를 맞이하고 있다.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된 올해 행사에는 총 70여 개 국가에서 화장품 패키징을 선도하는 420여 개 업체가 제품을 출품했으며, 전 세



연우 '드롭퍼 튜브' 제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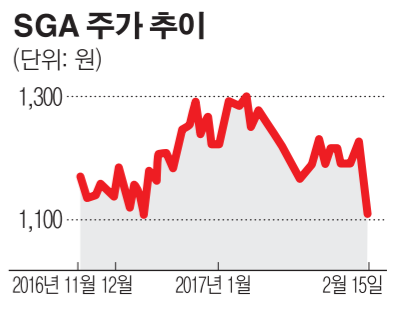
계에서 6500여 명의 패키징 관계자가 참석했다. 드롭퍼 튜브는 기존 튜브 제품에 드롭퍼를 장착해 도출량을 일정하게 조절해주는 기능을 갖추고 있다. 점성이 낮은 내용물의 경우 튜브 용기 적용이 어려움이 있었으나, 드롭퍼 튜브에 적용 시 내용물의 안정적인 보관과 내용물의 정량 도출이 가능한 장점이 있다.

연우는 드롭퍼 튜브를 개발해 국내 특허 등록을 이미 완료했으며 미국, 유럽, 중국, 일본에도 특허를 출원해놓은



상태다. 연우 관계자는 "전 세계 상위 패키징 업체들의 혁신 제품들이 출품되는 이번 행사에서 당당히 혁신제품으로 선정됨으로써 드롭퍼 튜브 제품에 대한 품질 및 기술력을 인정받았다"며 "올해부터 국내 신공장을 통한 튜브 생산 능력이 확대되는 만큼, 국내 시장뿐만 아니라 글로벌 화장품 및 생활용품 시장의 튜브 제품 공략에 더욱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태성 기자 tskwon@



## SGA, 90억원 규모 전환사채 납입 완료

### '그룹 통합 R&D센터' 구축 채비

종합정보통신(IT)기업 SGA는 SBI저축은행 외 26인을 대상으로 발행한 90억 원 규모 사모 전환사채 납입이 완료됐다고 16일 밝혔다.

전환사채 대금은 전액 그룹 통합 연구개발(R&D)센터 구축 자금으로 사용된다. SGA는 지난해 4월 그룹 사옥 이전을 계획하고 서울시 송파구 문정동 지식산업센터에 계열회사가 모두 모일 수 있도록 총 218억 원 규모의 건물 취득 결정을 했다.

SGA는 통합보안기업 SGA솔루션즈, IT서비스 기업 SGA시스템즈, 임베디드 기업 SGA임베디드를 주요 관계회사로 두고 있다.

SGA는 이 회사들이 2013년부터 출범 이래 매년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고 강조했다.

SGA시스템즈는 2016년 코넥스시장 이후 스몰캡 사업 등 대규모 SI사업을 잇따라 수주했으며, SGA임베디드 역시 지난해 성장을 위한 투자유치를 완료하고 스마트택배함, 초미세먼지측정기 등 신제품을 출시해 사물인터넷(IoT) 시장에 진출했다.

은유진 SGA 대표는 "SGA를 비롯해 SGA솔루션즈, SGA시스템즈, SGA임베디드 등 소속 회사들의 성장에 따라 계열사 간 연구개발 협업 필요성이 커져 그룹 통합 R&D센터 구축을 결정하게 됐다"며 "4차 산업혁명 시기를 대비해 ICBM(IoT, Cloud, BigData, Mobile) 분야 개발역량을 강화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김우람 기자 hura@

## 다날 美법인, 프랑스 3대 이동사와 모바일 인증 계약

### "유럽 내 금융기업 등 글로벌 기업과 사업 확대 계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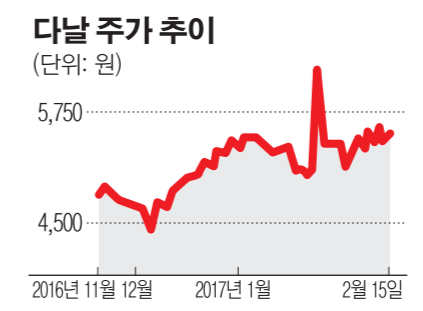
다날 미국법인이 프랑스 3대 이동통신사인 브이그텔레콤(Voysgues Telecom)과 모바일 인증 계약을 체결했다.

다날은 프랑스 내에서 급증하고 있는 모바일 인증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브이그텔레콤과 계약을 체결했다고 16일 밝혔다. 다날은 이를 통해 디지털 고객확인(KYC: know your customer) 및 개인 ID도용방지, 위험거래방지 그리고 결제시 자동정보 입력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김 그린월 다날 미국법인 대표는 "미국과 한국에서 특허받은 기술이 적용된 인증 솔루션을 통해 실시간으로 데

이터를 매칭하면서 본인 확인을 거쳐 부정거래를 방지하는 등 브이그텔레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고객 정보를 완벽하게 보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유럽시장에서 신뢰할 만한 인증 데이터 공급업체의 부족, 대면 과정을 요구하는 엄격한 고객확인 과정 등 이를 대체할 만한 편리한 모바일 인증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면서 이미 유럽 최대의 이동통신사인 오렌지텔레콤과 계약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며 "브이그텔레콤이 합류하면서 유럽 내 금융기업들을 비롯한 글로벌 기업들과 사업을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



이라고 덧붙였다.

모바일 ID 및 인증 솔루션 분야의 글로벌 기업인 다날은 고객기업과 이용자 모두에게 보안성이 강화된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글로벌 브랜드 기업과 이커머스, 금융, 리테일 기업, 통신사 등 대형 고객들을 확보하면서 점유율을 높여 나가고 있다. 권태성 기자 tskwon@

## 나노스, 회생절차 종결

### 최대주주 광림·쌍방울과 시너지 기대

광림·쌍방울 컨소시엄에 인수된 나노스의 회생절차가 종결됐다.

나노스는 회생계획에 따라 회생채무에 대한 변제를 모두 완료해 관할법원인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 종결을 승인받았다고 16일 밝혔다. 지난해 5월 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나노스는 지난해 말 회생계

획인가를 받은 후 광림·쌍방울 컨소시엄으로부터 인가 전 M&A를 통해 약 470억 원을 납입받은 바 있다.

2004년 삼성전기 VCR 헤드 사업부에서 분사된 나노스는 휴대폰 카메라 모듈의 핵심 부품인 IR필터, 블루필터, 필름필터에 관한 생산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특히 OIS(광학손떨림방지)용 GaAs 홀센서 분야에서는 일본의 아사히카세이와 함께 제조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다.

향후 나노스는 경영 정상화를 통해

듀얼 카메라가 채택된 스마트폰, 광학필터, 홀센서 분야에서의 역할이 증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자율주행차, 드론 등 성장 가능성이 높은 영역에서 새로운 수요를 창출할 전망이다.

특히, 광림과 쌍방울 등의 상장기업이 나노스의 최대주주가 되면서 경영 안정성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나노스는 향후 광림과 쌍방울의 중국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해 주력 사업의 고객사를 중화권으로 확대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권태성 기자 tskwon@



# 혼자 앞에 서기보다 **함께** 앞을 향합니다

SK텔레콤이 준비하는 New ICT 생태계

철새들은 함께의 힘으로 더 멀리 나아갑니다  
SK텔레콤도 그렇습니다  
인공지능, 스마트 미디어·홈, 자율주행 등  
다양한 기업들과의 기술 개방과 협력으로  
새로운 ICT 세상을 향해 나아갑니다

혼자보다 함께, 그렇게 더 멀리 갈 수 있는  
New ICT 생태계를 만들겠습니다

